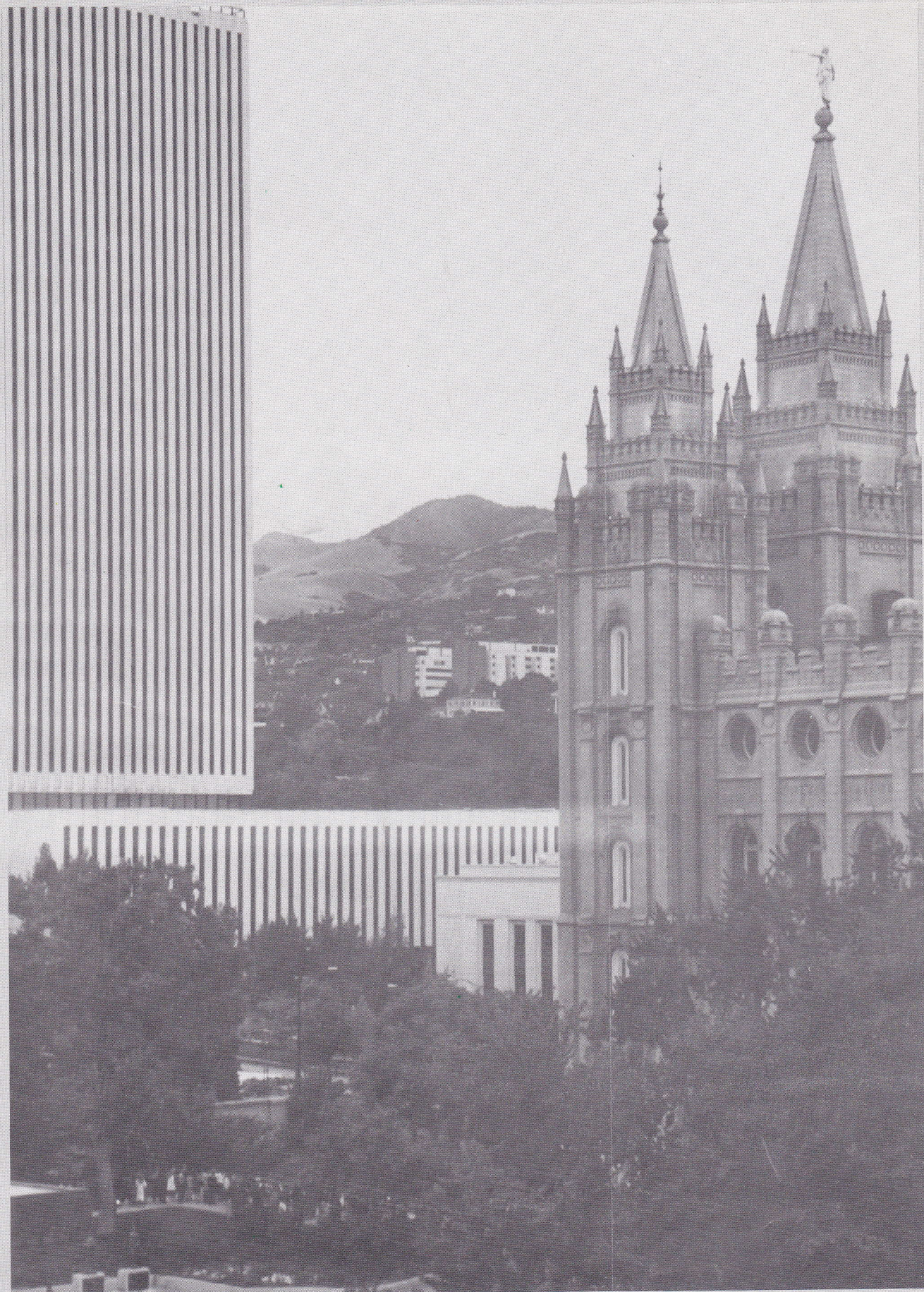


>
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은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봉가어, 포루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절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교문 : 텍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 제297권, 제28권, 제1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1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료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1 320
 Printed in Korea 1/91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가족... 리그랜드 알 커티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엘레인 엘 잭, 아데스 지 캡

가족역사... 리차드 지 스코트, 데이비드 비 헤이트

간중... 고든 비 힝클리(토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헬베시오 마틴스, 린 에이 미켈슨, 델린 에이치 옥스, 제임즈 엠 패러모어, 엘레인 엘 잭

감사... 헬리오 알 카마고

개척자... 아데스 지 캡

경건... 엘 톰 페리

경전... 제임즈 엠 패러모어, 조셉 비 워스린, 헬리오 알 카마고

계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교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워스린

교회의 명칭...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구원의 계획... 데이비드 비 헤이트, 러셀 엠 넬슨

규범... 마빈 제이 애쉬튼

기도...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워스틴

도덕적인 순결... 엠 러셀 벨라드,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조셉 비 워스린, 하트만 렉터 이세, 보이드 케이 패커,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동성연애... 보이드 케이 패커

동성심... 글렌 엘 페이스,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엘레인 엘 잭

마약 복용... 에두와도 아얄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보이드 케이 패커,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신권...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더럴 에이 울지,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신앙... 고드 비 힝클리(토요일 오전 모임), 에두와도 아얄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마빈 제이 애쉬튼,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러셀 엠 넬슨, 왈도 피 콜, 아데스 지 캡

안식일...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여성... 엘레인 엘 잭, 베티 조 켈슨, 아데스 지 캡,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역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하트만 렉터 이세, 왈도 피 콜

예수 그리스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델린 에이치 옥스, 엘레인 엘 잭, 베티 조 켈슨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토요일 오전 모임), 글렌 엘 페이스, 제이 벨라드 워시번, 조세 비 워스린, 엘 톰 페리, 왈도 피 콜,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요셉 스미스... 헬리오 알 카마고

우정 증진... 헤들드 지 힐람

유순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유산... 보이드 케이 패커

유혹... 마빈 제이 애쉬튼, 조셉 비 워스린, 보이드 케이 패커, 아데스 지 캡,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육으로 난 인간... 닐 에이 맥스웰

이기심... 닐 에이 맥스웰

인간의 가치... 엘레인 엘 잭, 아데스 지 캡

자유 의자... 마빈 제이 애쉬튼, 매리온 디 행스, 러셀 엠 넬슨, 보이드 케이 패커

전생... 데이비드 비 헤이트

증인... 델린 에이치 옥스, 제임즈 엠 패러모어

청소년...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제이 벨라드 워시번,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베티 조 켈슨, 아데스 지 캡,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친절... 베티 조 켈슨

회개... 엠 러셀 벨라드,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하트만 렉터 이세, 토마스 에스 몬슨(여성 대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0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90년 10월 6일~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절차



대 관장단의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제160차
반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벤슨 대관장께서 저에게
그분을 대신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당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따르며 주님께서 예언자, 선견자,
게시자로 부르신 그분의 선택된 종들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정에 사랑이 깃들고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커갈
것이며, 이스라엘 청소년의 가슴에 신앙이 쌓여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악마의 영향과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국가와 백성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때까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임을 간등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들
중에도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제반 환경들을 변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국경을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대회가 열리기 수일 전에 수술을 받으신 벤슨 대관장님은
회복중이시기 때문에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대회 진행을
지켜 보실 수 있었다.

힝클리 부대관장과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모임을
사회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벤슨 대관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저와 힝클리
부대관장님 사이에 있는 빈

의자를 보니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함께 며칠 전에 다녀왔던 벤슨 대관장님의
병실에 여러분을 모시고 갔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곳에 깃들어 있는 평온과 사랑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느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침대에 누워서 왼손으로는 훌륭한 아들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아름다운 딸의 손을 잡고 계셨으며,
오른쪽에 있는 따님은 물론경을 읽어 드리고 계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태버내클 합창단의 노래가 온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행해진 행정 조치로는 칠십인 계이
정원회의 왈도 피콜 장로와 헬리오 알 카바고 장로가 5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후 해임된 것이다. 또한
청남 회장단과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으로 일할 총관리
역원들의 임무 지명이 변경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이다.

대회 진행 과정은 북반구의 전지역에 영어와 기타 15개의
언어로 방송되었다. 생중계 및 녹화 중계 방송이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은 지역의 교회 단위 조직에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배부되었다. -편집인.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0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이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5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 : 사랑의
결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8 몇 천 번
글렌 엘 페이스 감독
- 11 지혜의 말씀
에두와도 아알라 장로
- 13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 15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널 에이 맥스웰 장로
- 19 "내게로 오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1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22 범사에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25 개종의 시간
로버트 캔트 델린바흐 장로
- 27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해롤드 지 힐렘
- 29 간증의 가치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 31 진리란 무엇인가?
린 에이 미켈슨 장로
- 33 그리스도의 증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37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토요일 심권 모임

- 40 순결은 큰 힘을 발휘함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44 채널을 돌림
매리온 디 헝스 장로

- 47 예언자를 따름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 50 영원한 열쇠
더럴 에이 울지 장로
- 52 하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7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1 물문은 "더욱 훌륭함"을 의미해야 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65 성전과 성전 사업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71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많은 증인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 73 끈고 좁은 길
조셉 비 워스틴 장로
- 77 잊을 수 없는 날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엘 톰 페리 장로
- 84 선택
러셀 엠 넬슨 장로
- 87 부활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 90 물문경에서 나오는 힘
루스 비 라이트 자매
- 92 범사에 감사하라
헬리오 알 카마고 장로
- 94 예언자의 말씀에 따름
왈도 피 콜 장로
- 96 성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100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여성 대회

- 102 "만물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엘레인 엘 잭 회장
- 106 "친절-하나님 계획의 일부"
베티 조 잭슨 자매
- 109 "매뚜기들은 영성을 통해서
파멸될 수 있습니다"
아데스 지 캡 회장
- 112 주님의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8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21 교회 소식
- 122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123 교회 및 지역 소식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

고든 비 힝클리	에두와도 아알라
글렌 엘 페이스	엘 톰 페리
널 에이 맥스웰	엘레인 엘 잭
더럴 에이 울지	엠 러셀 벨라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왈도 피 콜
러셀 엠 넬슨	제이 벨라드 워시번
로버트 캔트 델린바흐	제임즈 엠 패러모어
루스 비 라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리그랜드 알 커티스	조셉 비 워스틴
리차드 지 스코트	토마스 에스 몬슨
린 에이 미켈슨	델린 에이치 옥스
마빈 제이 애쉬튼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매리온 디 헝스	하트만 렉터 이세
베티 조 잭슨	해롤드 지 힐렘
보이드 케이 패커	헬리오 알 카마고
아데스 지 캡	헬베시오 마틴스

사진 : 모든 대회 사진은 시청각 기획 및 개발 부서의 사진부에서 촬영한 것이다. 제드 에이 클라크(책임자), 웬던 애더슨, 필 서틀리프, 크레이그 다이어몬든, 존 루크, 페기 켈링하우젠.

표지 : 베드로와 안드레아에게 부름을 주시는 그리스도. 제임즈 테일러 하워드 그림.

“이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에 따를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어린이의 친구, 1957년 4월, 26쪽)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사업이 모든 국가와 백성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들 중에도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불 분이 게실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재반 환경들을 변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국경을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 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8년, 174쪽)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므로써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어렵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나아가 간증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있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일본 도쿄 지역 대회, 1975년 8월 10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 음성이 미치는 곳에 계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제가 그분께 드리는 다음 말씀에 모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지도자인, 우리의 예언자, 대관장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께 임하셔서 필요한 힘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관례대로라면 교회의 대관장께서 대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께서 저에게 그 분을 대신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당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위대하고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고 계시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훈계를 따르며 주님께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르신 그분의 선택된 종들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정에 사랑이 깃들고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커갈 것이며,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마음에 신앙이 쌓여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악마의 영향과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진실로 지상의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 : 사랑의 결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마도 조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느낌은 있었으나 자신이 계보 학자가 아니라고 안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 금으로부터 150년 전 바로
금주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침례에 관한 숭고한

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 빛은 다른
기독교들이 인간이 죽은 뒤에는 피할
수도 없으며 영원히 불변하게 될 운명을
맞게 된다고 가르치던 때에 주어졌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보상으로 받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속죄에 대한 희망없이
영원한 고뇌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베풀 수
있다는 계시를 주심으로써 다음에서
말씀하신 공의를 보존하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5)

다행스럽게도 이 대리 침례로 인하여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합당한 영들을

위해 의식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로운 교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
미침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자신의 대속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셨으며, 영의 세계에 있는 합당한
영들이 대리 의식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50년전 10월 언차 대회에서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 가르치도록
임명된 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죽은 친척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이 의식을 행하기에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교회 정사 4:231쪽)

주님이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교경 2:2)라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언자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을 방문하여 요셉 스미스에게 대리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열쇠를
맡겼습니다.(교경 110:13~16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은
예언자들을 통해 추가로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성전 사업을 더욱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성전 사업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이후로 모든
예언자들은 우리 자신과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모든 의식을 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권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킨다.

-우리 자신과 조상을 위해 의식이
행해지도록 한다.

-가족 각자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도록 한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계명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조상들을 확인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조상을 찾고 성전
의식을 받도록 성명 확인을 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기록이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약 70억 명의 죽은 자
가운데 대략 20억 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매년 수백만 명씩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1,500군데의 가족
역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마다 매우 신중하고 그 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각각 탐구 안내서, 텔레팩스 및 통신을
통해 솔트레이크시티 가족 역사
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현대의 기술로 말미암아 이 사업에
필요한 과거의 복잡한 규칙과 규제
사항들이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간소화된 절차가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옴”이라는
소책자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신권 지도자들을
통해 모국어로 된 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관한 기본 교리가 요약되어
있으며, 또한 가족 역사 교문이 있는
와드나 지부 회원들은 그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지닌 많은 분들이 개인 컴퓨터를 제공하여 진보된 기술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는 가족 찾기라는 이름의 막강한 힘을 지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센터에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책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지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들은 가족 찾기를 이용하여 교회의 중앙 계보 컴퓨터 화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은 탐구하는 일이 매우 간소화되었으며 회원들이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된 방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교회 자료실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종래에 사용되던 마이크로 필름이나 마이크로 피시와는 달리 보다 짧은 시간에 오차없이 콤팩트 디스크에 있는 많은 귀중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 찾기는 전화로 사용하는 것 만큼이나 손쉽게 다음 다섯 가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조상철은 가족 단위로 묶은 700만 명의 성명을 담고 있는 컴퓨터 목록으로서, 사람들의 계보를 수집하여 회원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역사 탐구를 간소화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가족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구심체입니다.

조상철에는 회원들과 그들의 친지들로부터 접수된 "4대 계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료들은 서로 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탐구 작업을 간소화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가족을 연결시키는 것에 관한 매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는 성명 및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조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과 조상들이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한 교회 친구가 15센티미터 두께 정도의 자료를 갖고 와서는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교회에서 제 일생 동안의 작업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구히 기록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전세계를 통하여 교회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자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수집해 놓은 가족 역사 자료를 선뜻 기증하는 친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가족 역사 도서관 목록에는 사실상 교회의 모든 가족 역사 기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 목록을 이용하여 성명 및 장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처리된 국제 계보 색인은 일만장의 마이크로피시 화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이 컴퓨터 탐색을 통하여 1억 4천 7백만 명의 사망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가족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수개월 이전에 미국 사회보장 사망 기록부에서 제공받은, 컴퓨터화된 3천 9백만 명의 명단이 배부될 것입니다.

2, 3년 후에는 정리중에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 수백 수천만 명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데이터가 공급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의 컴퓨터화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회원들이 한 팀이 되어 1880년 미국 인구 조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5천만 명의 성명을 정리하고 있으며, 5천 명의 비회원과 77명의 선교사들이 1881년 영국 인구 조사 자료에 들어 있는 2천 7백만 명의 성명을 정리하는 중이며, 또한 1788년부터 1888년 사이에 호주에서 출생하고, 결혼하고, 사망한 5백만 명의 기록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여러분은 조상이 살았던 장소를 모르더라도 그들에 대한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조상철은 가정에서 가족 역사

자료를 정리, 분석 및 인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값싸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의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조상을 위한 의식을 받기 위해 승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하게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여러분은 교회 본부에 승인 요청을 할 필요없이 여러분의 집회소내에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한 조상의 성명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회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전에 의식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성전으로 가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가속화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섬포나 마침포, 대문자 사용과 같은 많은 규칙과 제약 때문에 계보 사업에 흥미를 갖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족 사업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부한 유산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랑스럽고, 자상하고, 다감했던 조상들을 다루는 일입니다.

리처드 텔보트, 존 던커슨, 아브라함 쉐리와 같은 성명은 단지 성전 의식을 위해 주어지는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이름뿐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 사업을 통하여 사랑하게 된 우리의 조상이며, 또한 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의 목적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이 저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교성 2:2)라고 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영광스러운 교리가 지상에 회복되었는지 알아보십시오.

한번은 거의 시력을 잃어 한쪽 눈으로만 겨우 사물을 흐릿하게 볼 수 있는 한 겸손한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한 성명들을

확인하며 가졌던 영적인 경험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최근 내부 출혈로 인해 그나마 남은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스러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에 대한 간증은 아름다우면서도 힘이 넘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이 자매님은 시력이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조상에 관한 가장 훌륭한 기록 중의 하나는 1888년 어느 위대한 여성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분은 교리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부한 자료도 없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과 인내와 무척이나 많은 서신을 통해 16,000명이나 되는 귀중한 탈보트 가계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분의 후손이며 현재 두 명의 유치원생이 있고 또 한 갓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캐시 프로스트는 이제 막 그 성명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아내 지니와 제가 이제부터 직접 간소화된 방법으로 이 성명들을 성전 의식을 위해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은 몸소 성전에 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성명을 성전 사업을 위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에 살고 계신다면, 아주 가까운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계도에 따라 여러분의 외갓쪽으로도 하시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성전 의식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분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공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길을 찾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시고, 조상을 위한 의식과 성약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윌클리 부대관장님(좌)과 제가 앉는 자리의 사이에 있는 의자가 비어 있으니 매우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우)이 말씀하셨음. 대회사에 언제나 벤슨 대관장님이 앉으시던 의자에 대해 말씀하셨음. 벤슨 대관장님은 수술을 받으신 후 병원에 계시며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숭고한 사업의 열매를 충분히 맛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엘리야가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해 주신 열쇠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조상들에게로 연결되도록 자물쇠를 풀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위임하신 권능을 사용하여 이 지상에 있는 거룩한 성전내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구원을 위한 의식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스러운 사업에 대한 깊은 확신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마치 혼자서 맨손으로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곡식들을 모두 추수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를 용감하게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강력한 콤파인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셉 스미스가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사업에 관련된 교리를 선포한 지 15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대관장단이 조상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이 행해지도록 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것을 발표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영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제쳐두고, 영원한 결과를 불러올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마도 조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느낌은 있었으나 자신이 계보학자가 아니라고 안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단지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본질상 영적인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 계시더라도 기도와 결단과 근면 그리고 약간의 희생을 함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훌륭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몇 천 번

글렌 엘 페이스 감독

관리 감독관 제2보좌

우리는 불행을 방지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극의 희생자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지 루했던 하루가 지나고 겨우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어린 자녀가 지르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 때문에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이 산산히 부서지고, 여러분은 안락 의자에서 튕겨지듯 일어나 현관 계단 위로 무척이나 흥분해서 달려오는 아들을 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 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가 나 있습니다. 순간 여러분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짐작합니다. 그런 다음 입에서 튀어나오는 첫 마디는 동정과 위안이 아니라, “왜 좀더 조심하지 못했느냐!, 왜 부모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 내가 차고 지붕 위에서 놀지 말라고 몇 천 번이나 얘기 했어, 응?”이라는 질책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소리를 열 다섯 번이나 어쩌면 아홉 번, 심지어는 두세 번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수천 번이나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 가운데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이처럼 자녀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 자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교성 1:4)

그들의 “간증 뒤에 지진의 간증이 있어 땅 한가운데 신음 소리를 내게 할 것이요...

“또한 뇌성의 음성과 번개... 폭풍우...

그 경계를 넘어 밀어 닥치는 파도 소리의 간증이 있도다.”(교성 88:89, 90)

“그 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

(교성 45:26, 27)

“또 전염병이 퍼질 것이나...”

(교성 84:97)

“온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교성 45:26)

주님이 경고하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면 지나치게 삼가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또는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고치라고 수천 번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오늘날 일상 언어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점을 두 가지만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명론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관한 예언과 마지막 날에 귀결지어질 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및 앞일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지상을 가득 메우게 될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서 그저 이 세상이 속히 끝나 복천년의 통치가 시작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큰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를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지막 행사 때에 방관하는 자가 아닌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불행을 방지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극의 희생자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의 미래를 알게 된 리하이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통해 이에 관한 좋은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레이먼과 레뮤엘이 청년이었을 때에, 그들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 않는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리하이는 이 일이 있는 즉시 “주님의 자비하심이 저들에게 미쳐...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저들을 권고”(니파이일서 8:37)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레이먼과 레뮤엘은 참회하리라는 희망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는 행위만을 하였으나, 리하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두 아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였으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나의 영혼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로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하여, 비통과 슬픔을 안고 무덤에 이르지 않게 하라. 티끌에서 일어서라. 나의 아들들아,”(니파이일서 1:21)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위대한 예언자였던 몰몬 또한 이에 필적할만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몰몬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간악하여 믿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골몬서 1:14)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골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그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저들이 간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저들을 사랑하였고, 평생을 두고 저들을 위하여 심령을 다 기울여 기도하였으니”(골몬서 3:12)

이 예언자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사랑에 자족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빛을 밝히어 어둠을 몰아내며 진리로 거짓을 대항해 싸울 때, 그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쓰러진 자들의 상처를 싸매야 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운명론을 논하고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는 자세를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죄로 인한 결과를 접하게 될 때, 그 희생자를 비난하고 방관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전쟁, 기근, 질병, 빈곤 및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 내가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었지.”라든가 또는 “그같은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수천 번은 이야기했을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잠언 17:5)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잠언 24:17)

이 주제에 관해 읊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뿜내었던가”(욥기 31:28~29)

베나민 왕은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죄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혹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은 저마다 저 스스로 자기의 비참을 불러 갖는 것이매, 나는 잠잠하여 음식을 나누거나 저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재물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가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크게 뉘우칠 것이요.”(모사이아서 4:17~18)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원리에 순종하지만 한다면 간단히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스스로 불러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어깨를 움츠리는 행위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묵과하지는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환영과 위안을 주십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10)

우리는 범법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손을 뻗쳐 도움을 주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만을 위하여 폐암 병동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나 혹은 그 고통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트럭에 치였을 경우, 우리는 그가 차도를 건너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갈매기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

이 세상에는 개인적으로 분순종하였거나 판단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실수의 결과와는 관계 없이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고 있으며, 잠이 깨어 있는 동안은 질병과 그 밖의 것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외에도 자연 재해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이제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운명론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홍수처럼 휘몰아쳐오는 세상적인 필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회원 한 명당 천 명 꼴의 비회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유한한데 세상의 필요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관리 역원들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국가에 존속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인 이념과는 관계 없이 다국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요셉 스미스는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다른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과부를 돌보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아니면 교회와 전혀 무관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행해져야 합니다.”(타임즈 앤 시즌즈, 3권, 1842년 3월 15일, 732쪽)

최근에 힐러리 부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곳에서든 심한 기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어떠한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자비심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연차 대회, 1985년 4월)

회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읽거나 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볼 때에 마음이 동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원 여러분은 온 세상의 평화와 세상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며 가능한 금식 기금을 후하게 바쳐서 교회가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각자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살고 있든 관계 없이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최선을 다해



칠십인 회장단의 로버트 엘 백맨 장로가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칠십인 정의회)의 도움을 받고 있음. 애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칠십인 정의회)가 옆에서 보고 있음.

봉사할 수 있는가를 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활동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회원들 각자도 지원을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 가운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 교회가 승인 도장을 찍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까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는 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고 영의 도움을 받아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할지의 결정은 여러분이 내려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교성 58 : 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사회 단체를 통해서도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혀 공식적인 단체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에만 의존하여 남을 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인 일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집회소의 활동실 안에만 한 덩어리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울 때에 감정과 영이 개입되면 마음속으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약간이라도 덜어주게 되며, 이 경험을 통해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속죄를 이루실 때 받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다 성스럽게 되어 좀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마지막 날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서로 뒤엉키고 이 시점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천 번이나 이야기하였는데도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해도 결코 운명론자나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지혜의 말씀

에두와도 아알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우리가 모두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통해 주어진 성스러운 약속의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계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성실히 지키며, 스스로 모범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축복을 주었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뛰어나게 돋보이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은 주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충실한 회원 중에 마이크로 신경 외과 분야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형제님의 말에 의하면 그가 현재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움과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형제님은 어렸을 때 개종하였으며, 그 이후로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이 형제님은 자신이 세웠던 두 가지 큰 목표인 대학 진학과 이상형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이 뇌에 심한 병이 생겨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그 딸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던 중에 이러한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된 이 형제님은 새롭고도 힘든 분야인 신경 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린 딸이 뇌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아 죽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멀고도 힘든 마이크로 신경 외과 의사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에서도 마이크로 신경 외과는 특별히 엄청난 육체적 자제력과 세밀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형제님은 그 당시 학문을 추구하는 동안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89편에 들어 있는 약속이 자신에게 실현되어 자신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학문을 추구하는 그 힘든 기간 동안 이 형제님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지칠줄 모르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으며, 결국은 상당한 손기술을 체득하게 되었고 인간의 두뇌를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손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든가 조금이라도 떨리게 되면 환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며, 어쩌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교리와 성약 89편을 공부하는 가운데 만일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취하지만 앓는다면 지혜를 얻음은 물론 건강하고 튼튼한 육체를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강한 간증을 얻었으며, 또한 의사로서,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음을 알고 건강한 육신을 위하여 지혜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마지막 시험인 숙련도 시험이 닥쳐오자 이 형제님은 자신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시험을 감독하는 의사들에게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바로 전날이 되자 평소에는 침착하고 세밀하던 손이 좀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주님에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손이 떨리지 않게 해 달라고 겸손히 간구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형제님은 손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긴만한 죄를 지은 일이 있었는지를 곰곰이 돌이켜 찾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의 말씀을 어겼던 일을 기억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이 바로 이 약속이 필요한 때야”라고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환자의 뇌수술을 집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형제님은 현미경을 통해 전에 없이 그의 손이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도가 응답된 것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온 몸에 흥수처럼 밀려오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형제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손상된 뇌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혜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축복과 약속이 이 형제님과 함께 하였으며, 그 어려운 수술을 보통 때보다 한 시간 빨리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이 형제님은 시험 감독을 맡았던 의사가 하는 축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품은 채



템플 스퀘어에 있는 갈매기 기념비(앞)와 이솜블리 숲.

이 형제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다음 약속을 다시 음미해 보았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20)

근래에 이 형제님은 유명한 진료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그와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첫째,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며, 둘째로, 저는 마이크로 신경 외과 의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이 훌륭한 교회 회원이 한 것 같이 그들이 이룩한 큰 업적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

결과로 얻은 축복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간에게 취하지 말라고 명하신 해로운 물질을 피할 경우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자극제나 약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계명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힘에 대한 예를 교리와 성약 89편에서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또 담배는 몸이나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요,”(교성 89 :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1833년 2월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그 이후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이 지혜의 말씀을 충실한 교회 회원만이 중시했을 것이나, 오늘날은 의사들에 의해 담배는 이것을 피우는 사람들이 중독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담배는 그 사용량에 관계 없이 인류에게 너무 큰 손상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금연 활동을 벌일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통해 주어진 성스러운 약속의 결과를 전달해 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며, 따라서 우리 가족과 국가가 튼튼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교리와 성약 89편 마지막 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8 : 21)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고를 깨닫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지혜를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언자들은 이 성스러운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신과 마음 뿐만 아니라 영까지 해치는 이 해로운 물질에 의해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며 파멸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로운 물질로 인하여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지혜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과 이제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들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었을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이끌어 내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일기를 거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행복한 추억은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영적인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부부는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큰 손녀딸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서가 맛있는 젊은이와 함께 성전 안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여러 가지 희망과 축복이 실현되었습니다. 즉 이 젊은 한 쌍의 부부에게는 성전 의식을 통해 주어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주어졌으며, 양가의 부모님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의 가르침과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아내 패트리샤와 저는 저희들의 여덟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이 새로운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성전에 모인 하객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참으로 많은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장소나 크기 또는 꾸밈면에 있어서 회원들의 숫자 만큼이나 다양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가정과 가족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장소나 크기 또는 꾸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적인 가정을 꾸미기 위한 우리의 소망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일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는 천국이란 이상적인 가정이 연속되는 것이라고 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8년 10월호, 618쪽) 우리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이야기할 때에 두 손을 꼭잡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그 목표는 이룩되어져야만 합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지속적으로도 신중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모두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격을 키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훈계는 일종의 체계적인 사랑이며, 자녀들은 사랑과

적당한 지침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적절히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불순종함으로인하여 벌을 받는 것보다 부모를 흉내냄으로 인해 벌을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남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자신도 그것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세워야 할 가정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이 세상에는 우리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책과 잡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책들은 읽혀지게 마련이므로 내용이 저속한 것이어서 감춰두고 보는 책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는 절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해야 하므로, 우리는 어떠한 질문에도 정직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은 진리와 동반하며, 부정직은 거짓과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서도 완전한 정직을 기대해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도 그만큼 정직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날은 가족이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 교회 모임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요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면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주일학교 공과 및 기타 모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리 바쁘게 일할지라도 계속해서 시사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대회 방문자

양서를 읽으며, 자녀와 함께 교회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하겠습니다. 교회 잡지를 가정에 늘 비치하여 가족과 함께 토론을 하는 데 활용한다면 이로 인해 생활의 차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합니다.

가족들은 매일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엘마서 58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백성을 지켜 우리의 성읍과 우리 나라를 지킬 힘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였느니라.” 저희 가족은 늘 강화될 필요가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는 하지만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확실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그들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될 때 해야 할 일에 관해 계속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모든 면에서 세련되고 정숙해야 하며, 상호부조회나 청년회

또는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아내와 저는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던 때를 회상해봅니다.

형제님들은 예절 바르고 친절해야 하며, 신권을 존중하고 선교 사업을 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가족은 모든 면에서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이 거룩한 계명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서 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들을 지키는 데에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간증을 나누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간증은 예배당에서만 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영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추억은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영적인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며, 그들이 밖에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찾아 나설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경전을 참으로 많이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식탁은 여러 가지 귀중한 가르침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식탁에서 좋은 음식만 취할게 아니라 사랑과 우정도 함께 취해야 합니다. 식탁에서는 또한 경전을 읽을 수 있으며, 부모님들은 예언자의 가르침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니파이의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록하노라.”(니파이이서 4:15)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를 회상해 볼 때에, 우리 부부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전을 늘 얼마나 필요로 했었던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경전 내용 및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토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저녁에 음악과 오락 및 귀중한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결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마루 바닥에서 뒹굴며 장난치는 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요즘 커티스 자매와 저는 여덟 자녀들이 제각기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우리에게 손자 손녀가 되는 그들의 자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 봅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모두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상적인 것이므로 이 목표에 이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나,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만으로도 노력할 만한 가치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과 아울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은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분의 종들과 매우 가까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라고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구세주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기심은 모든 심각한 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연자들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낳는 위협에 대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과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과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완고하리만큼 이기심에 집착하는 행위는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사무엘상 15 : 23)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심각한 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쉽게 명을 깨뜨리게 하는 기폭 장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중심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하기 보다는 무시하게 되기가 더욱 쉽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유욕이 앞서기 때문에 도둑질도 예사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요인으로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막을 수가 없도록 이미 깨뜨릴 수 없는 보호막을 치고 있어서 쉽게 탐욕에 젖어들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는 쾌락을 추구하는 치명적인 불장난의 대명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우며,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잔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쉽사리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들게 되면 진리마저 편의에 따라 그에 부속시키므로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며,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약을 깨뜨리기조차 합니다.

이기심은 나 이외의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시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모세 6 : 27; 마태복음 24 : 12; 교리와 성약 45 : 27 참조.)

말일에는 육욕으로 인한 죄악이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맹렬히 날릴 것입니다. 경전에는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으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 : 11~12; 모세

8 : 28) 부패와 폭력...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이 홍수처럼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상태가 이미 최고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물결에 휩쓸린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 : 26; 교성 45 : 26 참조.) 심지어는 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근육의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는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중 인물인 엘리자베스는 명상에 잠기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원리적으로는 안그랬다 할지라도 실재는 평생 동안 이기적인 존재였어.”(오만과 편견, 뉴욕 : 에어몬트 출판, 1962년 58쪽) 이기적인 사람은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대명사 I(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수직선인 대명사 I(나)는 대명사 We(우리의) 첫글자와는 달리 구부릴 무릎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아에 완전히 몰두하기 때문에 마땅히 칭찬할 일이 있을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꺼리며, 침묵으로 상대의 칭찬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맙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이기심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칭찬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것을 요구하는 행위, 과분한 칭찬을 기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고소한 마음을 갖는 행위,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는 행위, 사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는 행위,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니파이서서 28 : 8)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조명하고 “나에게” 그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숨이불 보따리가 있는데 화가 잔뜩난 운전수들이 차에서 내려 보따리

주변으로 몰려왔으나 그 속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보따리를 치우려 하지 않는 것과 흡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야심적이며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자 투쟁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말씀, 앤드루 에프 에하트 린더 러블류 쿡 공동 편집, 프로보 유타: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연구 센터, 1980년, 201쪽)

사무엘은 사울이 이기심에 부풀어 있자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사무엘상 15:17)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기심은 종종 마음이 완고한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가장 훌륭하게 될 수도 있을 영리한 사람조차도 때때로 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5:20) 매우 영리한 사람들에게 흔히 결핍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온순함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대신 다른 사람의 권고나 스며들 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흔히 남보다 뛰어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역대상 28:9; 고린도전서 2:16; 교리와 성약 64:34) “저들 모두보다 총명”(아브라함서 3:19)하신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허세를 부리시거나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계단 위에 올려 놓으셨으며, 그 위대한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교리와 성약 19:19; 모세 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영리하신 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모사이야서 15:7; 요한복음 6:38)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이 완악한 이기심은 선량한

사람들을 피어 가축이나 작은 땅덩어리, 우유 짜는 일 등을 가지고도 싸움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아침 이슬에 지나지 않을 것을 탐내어 대사를 소홀히”(교리와 성약 117:8)한다고 정의하신 탐욕에서 유래합니다. 이 근시안적인 이기심이 팔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 이상으로 보게 하고 은 30냥을 마치 엄청난 보화 이상으로 여기게 한 것처럼, 우리의 강한 소유욕이 “세상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교리와 성약 117:4)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게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욕으로 난 인간의 짐을 벗어 버리는 지침입니다. (모사이야서 3:19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실로 우리는 이처럼 필요 없는 짐을 지고 다니느라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 너무나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바늘 귀를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앤 모로우 린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와 같은 많은 걱정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위신을 벗어버려야 한다. 침으로 흥가분해질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알아낸 삶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생활을 그토록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이다.”(바다에서 얻은 선물, 뉴욕: 빈티지 출판, 1978년, 32쪽)

이처럼 통제 불능의 이기심은 사랑,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친절, 우애심, 선함, 온순함 등의 성스러운 성품들이 발전하는 모든 길을 차단시켜 버리며, 이러한 미덕들이 싹들 때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이기심의 가위로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을 때 그들로부터 싹트는 이기심을 잘라내지 않는 복음 성약을 하나라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정도는

다르더라도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참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제거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으로 된 자기가 혹시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오는 자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로 우리가 이기심을 벗어버리는 것을 도우려고 주어졌습니다. “어찌 아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또는 딸]이 있으리요”(히브리서 12:7)

복음의 회복과 함께 주어진 경전에는 결국은 “공의를 다스리시”는 “자비”로 인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어떻게 인간이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앨마서 34:15) 우리는 미래에 욕으로 된 자기를 벗어 버리고 좀더 성도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획도 결국은 이와 같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니파이서 27:20~21 참조) 인간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의 모든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제약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는 때가되면 모두 실현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64:32)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불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밖의 영적인 것에 관한 통찰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매우 다른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어 갈 경우 사람들은 노력도 전혀 들이지 않고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고든 비 험플리 부대관장님이 대회에서 심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그리고 러셀 엠 넬슨 장로의 인사를 받고 계심.

정치 및 경제 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기적인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치인들로 인해 그릇
인도된 백성들은 그 방법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으로 자신을 귀속시키면서,
결국은 후대들까지도 저당잡힐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며,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 파헤쳐질 때에,
인내심이 얼마나 쉽사리 사라지며
타협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신성한
소속감이 없어 질 경우에는 그 즉시
거대한 도시들이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계명이 없어지게 될
때에, 오늘날 성에 대한 예찬과 세속적인

종교들의 탐욕을 승배하는 전례문 및
이를 뒷바쳐 주는 음악 등을 보십시오.
이들의 신학 이론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들의 미래가 곧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종교에
사로잡힌 신봉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마음의 감동이 없는 자”(에베소서
4:19)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을
종합해 볼 때, 이기심은 서서히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기심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마음의 창문을
닫고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킴으로써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 공간을
축소시켜 가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으로 찾게
되는 것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정이
결핍된 것에 대한 자기 연민에 완전히

도취되게 될 때 변화가 생겨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집니다.

욕으로 된 자아의 소유심이 발동하게
될 때, 흥수처럼 불어나는 이기심은
우리에게 냉정한 삶의 현장을
펼쳐줍니다. 자신의 필요 사항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감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녀들의
숫자보다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노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데도 말씀입니다.

“기도와 금식”(마태복음 17:21)이
아니고서는 결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께서 경고하셨듯이 “욕으로 된 자기”, 또한 인고의 노력 없이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같은 자기와의 투쟁에 관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도록 생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이기적인 욕으로 된 자기를 “던져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0 : 5)

욕으로 된 자기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로 태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태어난 겸손한 사람은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면서도 또한 자신을 자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방언의 은사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청을 쉽게 들어 주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옆으로 밀쳐내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에게로 태어난 사람들은 변함없이 충실하며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모였을 때나 차이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 뿐인데 두 개의 장부를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반면, 욕으로 난 인간은 “나를 숭배하라” “나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권세를 행사하기를 추구합니다. (모세서 1 : 12, 4 : 3; 교리와 성약 121 : 41 참조.)

욕으로 난 인간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쉽사리 “성내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3 : 5) 욕으로 난 인간은 탐욕으로 가득차 있으나 그리스도에게로 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고린도전서



13 : 5)합니다. 욕으로 난 인간은 좀처럼 세상적인 즐거움을 거절하지 않으나 그리스도에게로 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엘머서 38 : 12 참조.)

욕으로 난 인간은 부와 찬사를 몹시 탐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이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다행스러운 아이러니는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비이기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 : 38)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심에 가장 교활한 성격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개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기로 결심한 사람은 곧 그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및 우리 자신까지 주님께 헌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고하게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겸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아에 억매이는 일은 독립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닉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기심을 멸절시킬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수필집, 던 시 제시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4년 485쪽) 그러나 이 시점에서조차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아주 조금이나마 만물을 사실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서 4 : 13 참조.)

진실로 이 복음은 우리의 가능성에 관한 영광스러운 빛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기심이 흘러 내리면서 시야를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맑아진 눈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맑은날 아침, 일어나 주변을 보라,
네가 누구인지 알게되리라. 어느 맑은날 아침, 너는 숨이 멎을 듯 놀라리니...
너의 광채가 못별들 위에 빛나리라...
그러면 어느날 아침...
너는 시간을 넘어 영원을 볼 수 있으리라.”(아드 해리스 “어느 맑은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내게로 오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실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 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아끼시고 그 지리에 익숙하셨던 사랑스런 갈릴리 고향에서 기록상으로는 첫번째로 알려진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든 갈릴리 주민들이 놀라고 경악해 마지 않게 하셨음이 틀림 없었을 많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으며, 폭풍을 잠재우시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으며 죽은 소녀의 생명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누가복음 4 : 22)라고 반박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다 더 잘 알아야 할 이 사람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며, 이들의 회의주의적인 마음과 불신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들로 말미암아 대부분 자신의 위대한 사업을

행하셨던 성읍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고라신과 벳새다 및 가버나움 성읍의 사악함을 심히 비난하시고 잘못을 들추어 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보다 건디기 쉬우리라”(마태복음 11 : 23~24)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고향 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악하여 신앙이 결핍되어 있는 것에 변민을 느끼셨으나, 한편으로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인하여 소리내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과처럼 마음을 낮추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으며,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기꺼이 듣고 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새로이 믿음을 갖게된 이 사람들에게 대한 확신과 자신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이 “인간에게 알려진 최대의 영적 감정의 발로 중의 하나”(예수 그리스도 제3판,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16년 262쪽)라고 표현하신 다음과 같이 의미 깊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마태복음 11 : 28~30)

이 성구는 모든 경전 말씀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 형언할 수 없는 위안과 확신을 주고 있으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날에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시야가 지나치게 좁아서 예수님이 때때로 그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쿡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팔았을 것임이 틀림없을 목재 멍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탈매지 장로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된 일로 부터 즐거운 봉사로, 교회의 부당한 강요와 전통적인 형식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참된 영적 예배의 자유로, 속박에서 자유로 그들을 초대하셨으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예수 그리스도, 262쪽)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애연적인 호소력과 위대한 약속이 들어 있었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운명을 아시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이 편히 쉬을 얻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이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들과 세상의 걱정을 덜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짐까지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권세를 갖고 계심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기적과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이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몸소 제시하신 이 놀라운 도움의 손길은 그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라시는 부름은 한 세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도시와 국가 및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호소입니다.

이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에 대한 이 확실한 해결책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평화와 보호에 대한 약속과, 온 세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실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무거운 짐을 벗고 쉬어야 합니다.

물론 이같은 약속에는 의무도 따릅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당부하십니다. 고대의 성서 시대에 멍에는 밭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였습니다. 이 멍에를 두 마리의 소에 함께 메어 주면 한 마리가 할 때 드는 힘이 두 마리에게 똑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쟁기나 짐마차를 끄는 힘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겨우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짐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면 둘 다 똑같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어렵고도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진실로 개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왜 삶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며 쉽사리 걸려 넘어질 세상적인 도움만으로 그 짐을 옮기려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도덕심을 일구기 위해 거칠고 딱딱한 땅을 파내는 힘든 일과를 견뎌낼 수 있게 돕고 짐을 나누어 가지며 힘을 공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이며, 한 하나님과 나란히 서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권세와 평화입니다.

삶의 짐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도 분명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의 시련을 주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말미암는 세상의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수도 있으나, 이유가 어떻든 삶의 역경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왕에 모두가 정도는 다르더라도 짐을 지고 멍에를 메어야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마태복음 11:28~30참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교만과 오만한 태도, 자화자찬과 자만심 및 허영심 속에는 한 개인이나 도시 또는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모든 씨앗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고라신과 벳새대 및 가버나움의 몰락은 구세주께서 당시의 그곳 주민들에게 하신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귀결지어진 것임을 말없이 증거해 줍니다. 한 때는 것처럼 웅장하고 강력했던 도시들이 이제는 그 자취조차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당한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 가족의 이름이 추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명단에서 빠지고 싶으시다면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 느끼셨던 감정을 우리도 지님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예수님과 같아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가장 위대하며 가장 축복을 받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적인 부나 권력 또는 특권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위대함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거쳐야 할 유일하고 진정한 시험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올바른 길이요, 충만한 진리이시며, 풍부한 생명이십니다.”(앤사인, 1988년 12월호, 2쪽)

그리스도에게로 오라시는 부르심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전에도 이 초대와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 누구에게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외침이며, 진실로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로 기쁨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직까지도 몸소 외치시는 고요하지만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영생과 승영을 얻기 위해 온유하고 겸손히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기쁨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대의 방문자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 중에서 왈도 피 콜 장로와 헬리오 알 카마고 장로를 해임하며, 이 장로들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두 장로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이 두 장로들은 각기 멕시코시티 성전과 상파울루 성전의 성전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봉사한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몬트제이 브러프 장로를 해임하며, 또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를 해임하며 이 장로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장로의 해임은 다른 입무 지명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 장로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장로를 새로운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찬성 지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신뢰와 사랑으로 계속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범사에 따라야 할 규범이 있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약점에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거친 날씨로 인해 기체가 흔들려 불안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종종 거센 바람, 폭풍우, 사나운 구름 등으로 인해, 특히 착륙하려 할 때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몹시 불안했습니다. 한 번은 그러한 경우 경험이 많고 노련한 조종사에게서 정해진 비행 항로에 착륙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정밀한 기기, 경험, 신뢰 그리고 적절한 이착륙을 통해서 안전한 항로로 인도됩니다. “우리가 기후나 자연 조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규범을 따름으로써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조종사는 강조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바느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손으로 누벼서 만든 아름다운 이불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분이 수 년간 많은 이불을 만들어 왔으며, 훌륭한 솜씨로 인해 주위에 널리 알려진 분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건본 없이 이불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따라서 할 건본이 없다면 어떤 이불이 만들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규범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추측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에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나는 일입니까?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백성들을 속이려 다니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2:14) 저는 항상 이 훌륭한 성구에서 용기와 위안과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규범이란 따라야 할 지침이며 무엇인가를 만들 때 따라야 할 모형입니다. 말하자면 항공기가 착륙할 때 따라야 할 정해진 비행 항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로운 생활과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규범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매일 안전하게 생활하고 승영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세주께서 계획하신 빛과 진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규범은 구세주와 연결됩니다.

최근에 저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여자와 우선 순위, 인생의 규범, 소망, 목표 및 목적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매력적인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친절하시죠. 그러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쓰지 마세요.” 고집과 불순종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은 사탄의 제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약속에 죄에 대한 관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 많으시며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은 자유의지의 은사를 행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만 죄를 묵과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과 상반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진실되고 정선된 규범을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면, 각 개인과 가족과 친구들은 마음을 상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는 있지만 행동의 결과까지 선택할 자유를 허락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감소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고통을 면제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의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진리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까지도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하거나, 또는 배도를 하도록 종용합니다. 인생에서 적절한 규범을 따를 때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불안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상처를 받고 규범을 따를 때,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불안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참된 승자는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딛고 일어서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게 위해 자주 시련을 주십니다. 운명이 인생의 승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올림픽 표어는 “올림픽 경기의 영광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 있다.”입니다. 그랜트랜드 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경기에서 여러분에 대해 기록하실 때 여러분의 승패에 관해 기록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기록하십니다.”

사탄은 죄를 예쁜 포장지와 리본으로 멋지게 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부도덕, 자멸, 그리고 저속한 문화에 빠져들게 하는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규범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순간적인 충동을 따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고 외치며 여러분을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의 덫에 걸려들게 하기 위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교활하게 사기를 칩니다. 사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악과 잘못된 것들을 잘 치장시키는 모든 계획을 만들어 냅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기를 쓰고 나오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파괴시키는 다른 행동을 계속 유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 참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우리는 위대한 예언자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파이서 2:16)

사탄이 부리는 사기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죄인이 행복해 보일지라도, 죄인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행한 개인적인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인의 짐이 성도의 짐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정의가 보장된 길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몹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최막대를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사탄이 설치해 놓은 덫 중에 가장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의 한 가지는 성숙한 인간이 저야 할 책임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한다든지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따위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방책이나 자기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려 하기 보다는 함께 몰려 항의하며 무료로 물자와 치료책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약점을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끈고 지시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가장 큰 은사이며 약속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건설적이고 유익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게으른 사람에게서 거두는 사탄의 성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미술, 문학 및 기타 유익한 오락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적절한 규범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복은 훌륭한 규범의 체제 안에서 의로운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옵니다.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온 행동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은 여러분이 한 행동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라는 규범 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인내와 행동 및 고결에 관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보면 모든 합당한 일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방식에 따라 지어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94:2) 달리 지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또 패배하여 이 규범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런코로 너희는 이 규범으로써 온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어떠한 경우의 영의 나타남도 분별하게 되리라.(교성 52:18~19)”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따라야 할 올바른 규범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야기 중의 하나는 로저 배니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 마일 경주 우승자로서 여러 해 전에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승산이 있었던 경주에서 4등을 하고 실망과 환멸과 당황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의과 대학생이었고 매우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모든 시간을 의학 공부에 투자하여 전력을 다하고 사분내에 일 마일을 달려야 이룩될 세계 기록을 향해 도전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코우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우치 선생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의 코우치는 “로저, 나는 자네가 일 마일에 사 분 걸리는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자네가 그만 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았으면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로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이 지나기 전, 로저는 달리기를 그만 두기 전에 강철같은 굳센 의지를 키우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일 마일에 사 분 걸리는 기록을 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로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규범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일곱, 여덟, 심지어는 아홉 시간을 공부해야 의과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에 최소한 네 시간 이상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달리기를 하려면 그의 몸을 가장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몸에 가장 좋은 식사를 해야 했으며 잠자리에 일찍 들어 하루에 아홉 시간 내지 열 시간씩 수면을 취함으로써 그의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복되어 최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로저는 승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엄격한 규범을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1953년 5월 6일, 일 마일에 사 분 걸리던 장벽은 각 진 얼굴에 안색이 좋은, 골격이 크고 키가 큰 영국인, 세상의 주목을 끌게 한 승리의 규범을 지킨 로저 배니스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음산하고 춥고 바람이 부는 습한 어느 날, 로저는 그의 이론과 기술을 마지막 시험대에 올려 놓기 위해 옥스포드 대학교 경주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로저의 부모와 수 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도표와 규범에 따라 정확하게 달림으로써 일 마일을 삼 분 오십 구 초 사로 달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 거리를 사 분 이내에 달린 최초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해 오던 것 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올바른 규범에 따라 대가를 치루고,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영국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마일 장벽을 넘어서 승리한 그는 모든 경기 기록책에 국제적인 영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에 일 마일, 사 분의 장벽이 계속 깨지고 있지마는 로저 배니스터는 이미 오래 전에 규범을 세우고 그 규범을 완전한 헌신과 자기 훈련과 강철 같은 의지로 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 따르고 견디야 할 규범을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계시와 지시를 받는 데 따르는 정해진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지시와 계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내의 지역, 스테이크 또는 와드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행동의 규범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사랑은 사람과 장소와 방법과 때를 초월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승영과 행복한 나날을 맞으려면 의로움의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 존중과 성공은 기만과 거만함, 자만심 및 염세주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생활의 규범을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타협함으로써 오는 이점이 얼마이든지 간에 속임수가 근절되는 그 날에 만이 확고하고 영원한 진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특성과 성품을 계발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58:26)

우리는 범사에 명령을 받는 대신에 범사에 규범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도록 도와 주시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께서 쌓아 놓은 상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대의 방문자

개종의 시간

로버트 케이 텔린바흐 장로

“여러분이 개종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회복된 복음으로 진정한 개종을 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의 경험이 말일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보다 깊은 간증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전 폭풍우가 이는 11월 어느 날, 저는 독일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위해 뉴욕에서 브레머하벤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멀미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음료수와 크래커와 딱딱하게 마른 빵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배멀미가 심해 죽고 싶을 정도로 살아 있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내가 정말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실로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어느 곳에서나’(모사이사서 18:9)나의 간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만 해도 간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저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말이라고는 독일제 승용차인 “폴크스바겐”과 작별인사 밖에 모르는 낯선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저는 제가 지닌 간증 중에서도 특히 물몬경에 관한 영적인 강한 확신의 간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배의 차가운 강철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물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물몬경을 읽고 이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불타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망망한 대서양의 어딘가에서, 파도가 거칠게 이는 날들 동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빌립보서 4:7)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평화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갖게 되었으며 이 성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참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물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왜 물몬경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경전이 증언을 하는 책이며 개심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기록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물몬경은

우리 교회의 종석이며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교회 정사, 4:46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약이 담겨있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한 예언자라는 것과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몬경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물몬경 표제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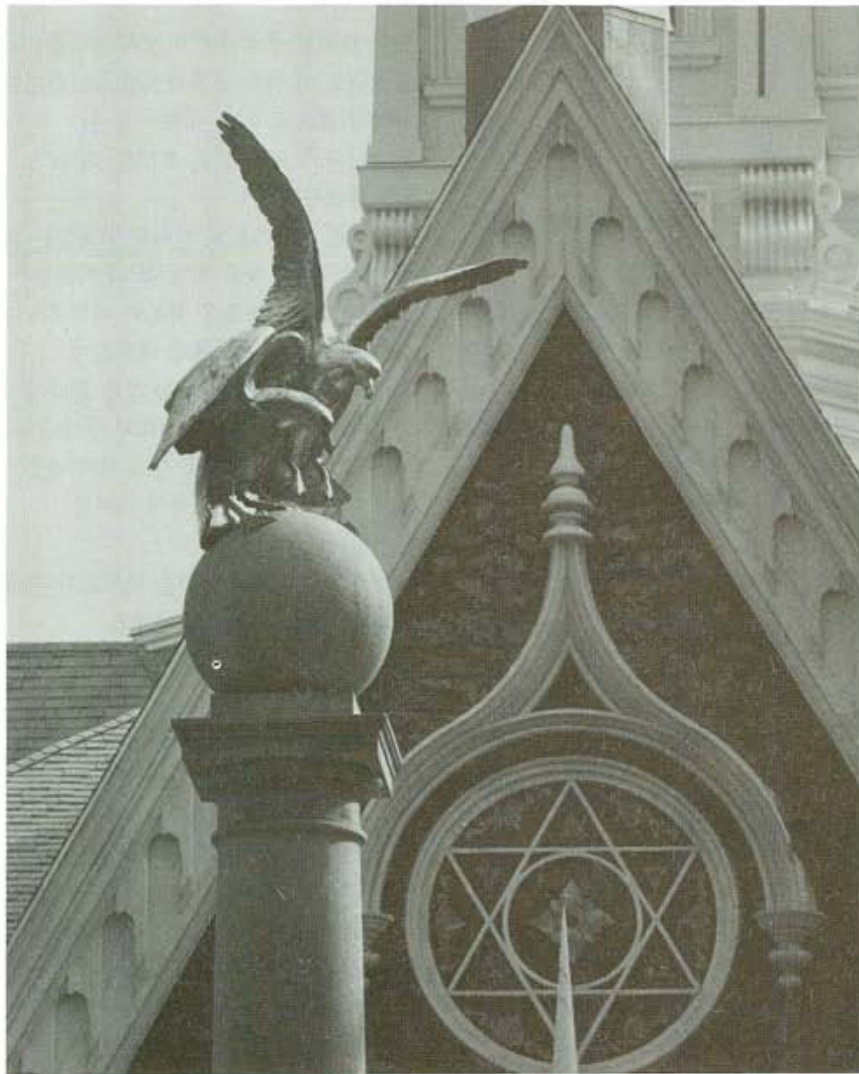
여러분이 개종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란 (1) 의욕, (2) 실행, (3) 기도, (4)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욕 : 올리버 카우드리는 물몬경의 기록이 적혀있는 판에 관해서 더 확고한 증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더 많은 증거를 원하면 이러한 일이 참된지를 알기 위하여 네 마음 속으로 내게 간구하던 그날 저녁 일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나?”(교성 6:22-23)

주님은 올리버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은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마는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27)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실행 : 올리버 카우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의 경우,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물몬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어린 요셉은 성경 구절을 깊이 생각한 후 기도하러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 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대항했습니다. 저의 증조 할머니는 “유타에 있는 물몬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히브리서 11 : 6)이십니다.

네 번째 단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 : 5)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입니다. 주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더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 : 6)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몬경을 갖고 다니십시오. 물몬경을 읽으시다가 “이 책을 인간이 쓸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자문해 본 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라고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속여서 여러분의 결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전에 다른 장소에서 사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있었던 천국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우리가 사탄을)

이기었으니”(요한계시록 12 : 11)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굳건한 간증을 가졌었고 현세에서 다시 그 간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물몬경은 우리의 간증을 인도하는 방향구입니다. (엘마서 37 : 45) 이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큰 간증을 갖기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의로운 길을 행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물몬경을 열심히 탐구하십시오. 저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물몬경은 여러분을 참된 개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배를 탔습니다. 의로운 일은 성스러운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은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 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기도 :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찬송가, 61장)

우리가 주님에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성스러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잔잔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힐라멘서 5 : 30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올리버가 받은 평화를 기억하십시오. 이 평화스러운 확신은 “불타는 간증”으로 자라 날 것입니다. (힐라멘서 5 : 45 참조)

엘마는 모사이아의 네 아들과 만나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십사 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해 온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엘마는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했으며)...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마서 17 : 2~3)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 : 4)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을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해롤드 지 힐렘장로

“교회에 속해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러 해 전 제가 포르투갈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저에게 선교사의 구두를 닦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의 구두가 매우 깨끗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두를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저는 그를 친구로 생각했으며, 그가 저의 구두를 닦는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죽었고, 가족도 없으며, 인생에서 그의 단 한가지 즐거움은 사람들과 새로 닦아놓은 구두를 신고 기분 좋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두를 닦는 장소는 리스본 시내의 복잡한 작은 광장의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방에는 구두 닦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낮으막한 세 발 달린 낮은

의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솔과 구두약이 가득 찬 녹슬고 낡은 구두 통 위에 구두를 올려 놓고 닦을 때 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리스본 시에서 세워 놓은 아름답게 장식된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가 구두에 광을 멋지게 내고 있는 동안 손님은 그 가로등에 기대고 있게 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두솔로 구두약을 두 번 입히고 광을 내었습니다. 그는 더욱 광을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특별한 구두약을 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형겅으로 구두를 빨리 문질러 광을 낸 다음 일어서서 포르투갈 모자를 벗어서 큰 인사를 하며 “당신의 구두는 세상에서 제일 구두를 잘 닦는 사람이 닦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구두를 제일 잘 닦는 사람이 제 구두를 닦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선교부장의 부름이 끝난 몇 달 후에 저는 포르투갈 지역 대표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리스본에 다시 갔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구두닦기”에게 구두를 닦으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번 가 보았을 때, 이전에 그가 일하던 장소에서는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근처에 있는 고급 상점들에 문의했습니다.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죽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구두를 제일 잘 닦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확실히 모르고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죽을 때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홀로 그냥 죽었는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조아킴 아이리스 부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와 그의 아내는 1974년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있었던 포르투갈 식민지 혁명 이후 포르투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포르투갈로 돌아왔으며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 젊은 선교사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을 받아들였고 선교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합당한 형제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권능인 신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리스 형제는 선교부 산하 한 지방부의 지방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리스 형제가 자동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는 코임브라의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뇌출혈로 인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갔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 갔을 때 그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를 깨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가 우리가 온 것을 알기 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면서 잠시 저를 쳐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약한 음성으로 “형제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신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4~15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포르투갈 전역에서 교회 회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아이리스 형제님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포르투갈로 돌아 온 이

훌륭한 부부는 이제 교회의 회원인 까닭으로 문자 그대로 수 천 명이 그 부부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으로 드린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아이리스 형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아이리스 자매와 함께 복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조되는 것을 종종 생각했습니다. 곧 이름 없는 방랑자로서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사라져간 구두담던 친구와 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여 준 교회 회원이 된 조아킴 아이리스 형제를 비교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한을 보내었을 때, 그는 새로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이 됨으로서 받는 축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 교회에 속해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신앙의 울타리 밖에 있어 성도들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엘마의 말씀대로 서로 “남의 짐을”(모사이야서 18:8) 나눌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기시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여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며, 오히려 진실로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회원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그 구두담던 사람처럼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롭게 지내며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조금 내어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몫을 진정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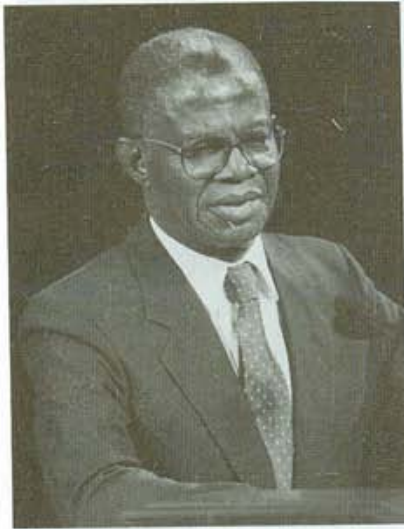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가 대회에 참석한 어린 소년과 함께 있음.

간증의 가치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간증은 완성되어 종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마스 매킨타이어 장로와 스티브 리차드 장로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운 원리에는 제 아내와 제가 그토록 갈망하며 찾던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희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영혼에 깊은 감동을 준 것은 주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지닌 간증의 힘이었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느낌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면서 메시지가 참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 거한 영과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을 느끼며 매우 훌륭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메시지와 간증에서 느끼게 된 영적인 느낌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았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과 회원들의 성공적인 우정 증진, 그리고 저희의 기도와 금식

덕분에 저희의 세상적인 습관이 점차 바뀌어졌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존경심을 품고서 저희는 집회와 활동에 참여했으나 나머지 가족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 침례를 미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발생한 일들은 저희의 지혜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으며 저희는 이를 회개하였습니다. 티주카 예배당에서 리오테자네이로 지방부 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르간 반주가 시작될 때부터 장내는 강한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영감적인 메시지가 저희의 마음을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대회를 감리하시던 브라질 북선교부장이신 조지 에이 옥스 형제님이 선교부장의 보좌인 카터 형제님을 소개했습니다.

경전 구절을 몇 가지 인용한 뒤 카터 형제님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서서 찬송가, "늘 함께 하소서"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카터 형제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한 뒤 그가 구원을 얻고 승영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눈물을 흘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으나 그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성신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해의 영광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 침례에 대한 저희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1972년 7월 2일, 저희 부부와 장남인 마커스가 침례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법에 대한 순종, 금식, 봉사를 통하여 두려움과 여러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여동생인 이벳 만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도 교회를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일어났으며 편견과 오해가 풀리고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누구의 공으로 돌려야 할까요? 제가 일시적으로 의존했던 충실한 성도들의 간증의 힘과 권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저의 마음과 가슴을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확신을 충만하게 받도록 준비시키며 저를 지적로나 영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완성되어 종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간증에 영양을 공급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이 새로 부름받은 교회의 장로였을 당시 배도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커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팔리 피 프랫은 그분에게 요셉 스미스에 대해 나도는 불평을 말해 주었습니다. 존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이 가르쳐 준 원리는 저를 [요셉]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님이 기뻐하셨던 것과 똑같은 간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전에 진실이었던 일은 오늘도 진실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때 예언자였다면 지금도 예언자입니다."(비 에이치 로버츠, 존 테일러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



대회 방문자

북크래프트사, 1963년 39~40쪽)

그와 마찬가지로, 암몬과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

“그 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앨마서 17:2,3)

간증을 감추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62:3; 84:61 참조)

197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회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충실한 성도들이 바치는 십일조와 헌금의 양에 있는 것도 아니며, 집회소나 성전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힘은 바로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왕국이라는 확신을 가진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답은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간증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전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알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가슴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키우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승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의 열쇠가 되는 예언자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살아계신 예언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경에는 충만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진리란 무엇인가?

린 에이 미켈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진리를 알려는 소망을 품어야 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그 소망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이 질문은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가 고소되어 나온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을 때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요한복음 18:37)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이에서 지니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거짓 말하는 자인 저 악한 자의 영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93:24~25)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초기의 교회 회원들은 당시의 믿음에 따라 여러 가지 관습, 전통 및 관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관례가 전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31년 5월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러한 관례가 합당한 지를

분별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침을 주고 받는 문제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나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리의 영으로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받느냐?”

“만일 다른 방법으로 받을진대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50:19~20) 만약 우리가 진리를 성신에 의해 받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진리를 성신에 의해 받지 아니한 자들에 관해 확고히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탄은 저희 마음을 굳게 사로잡았으니, 저희를 선동하여 악을 행하고 선한 것을 대적하게 하느니라...”

“저희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니... 그러므로 내게 간구하려는 뜻이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20~21)

몇 달 전 한 친구가 교회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을 해 줄 수 있느냐며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는 물문경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쓴 기사와 책들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자료를 나열했을 때 저는 그에게 나도 그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읽어보았는데 나의 경우에는 물문경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간증을 더 갖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같은 것들을 읽고 그가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요셉 스미스와 물문경을 증거하는 자료들을 그가 읽었던 자료들을 읽은 시간만큼 읽어보고 나서 결정하기를 제의했지만 그는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속박에서 구해주신 주님께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주 하나님, 저희 구세주께서 저들을 인도하사 친히 앞서 가시며, 낮에는 인도하시고 밤에는 빛을 주시며, 인간이 받아서 좋은 것은 모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심령을 어둡게 하며 모세를 거역하였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니파이일서 17:30)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업에 관한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항상 권유하시는 대답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올바른 것에서 그릇된 것을 찾고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주의깊게 공부했으나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입감은 성령의 인도를 막아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며,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올바른 장소에서 물어보면 그의 사회 및 교회에서의 위치를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밤에 구세주를 만나러 와야만 했습니다.

라모나이왕은 암몬에게 올바른 질문을



칠십인 회장단의 칼로스 이 예시 장로와 십이사도 경원회의 마빈 제이 예쉬븐 장로.

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아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암몬이 그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할 때 그는 새로운 지식에 관해 마음의 문을 열었고 영에게도 마음을 열어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조람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 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 : 27) 엘마는 조람인들에게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려는 소망을 품어야 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그 소망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려는 진지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나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야기하여 그대로 기록하게 한 말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내가 전할 말을 듣게 된 나의 백성들아.

너희를 명하여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을 소홀히 다루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게 귀를 기울여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함이며, 너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함이요 너희 심령을 열어 너희 의사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아서 2 : 9)

오순절 날, 베드로와 요한은 큰 권세를 갖고 영의 도움으로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 : 37)라고 물었습니다.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 간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비롯하니,”(모로나이서 7 : 12)라고 한 모로나이의 권고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선택을 신중히 하라고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보라 나의 형제들아,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15~16절)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올바른 이유를 갖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질문을 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과 시드니 리그돈이 다가올 세상에서 인간이 처하게 될 상태에 관해 의문을 갖고 곰곰히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이해의 눈을 만져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시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현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밤과 낮같이 명백합니다. 구세주에 대한 그분들의 간증은 참됩니다. 물론경의 예언자들이 쓴 성스러운 기록에 있는 구세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일의 예언자들에게 빛과 지식을 더해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여 주님의 영으로써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의 증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저는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필요성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몇 달 전 저는 교회 회원에게서 “저도 구세주에 관한 간증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세주에 관한 간증은 십이사도들만의 특권입니까?”라는 색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왜 모든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서 5:8) 그러자,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 성신이 아담과 이브에 임하시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모세서 5:9, 12)했습니다.

후에 에녹은,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도록 속죄의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모세서 6:52~59 참조)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성신을 통해 간증을 얻은 후에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증거하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침례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것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이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파이이서 31:13 참조)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침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와 교회 회원 앞에서...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0:37, 모로나이서 6:3 참조) 우리는 성찬을 들 때마다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교리와 성약 20:77, 모로나이서 4:3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니삼 18:19, 21, 23; 모세서 5:8 참조) “무엇이든...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46:31)

이러한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침례, 교회의 회원 자격, 성찬을 취함,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다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해야 할 일들을 다하지 못하는 회원이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말일성도들은 일상 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회원으로부터 최근에 받은 편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금식 간증 모임에서 들은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열 일곱 분의 간증을 들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앉아 있나 하는 착각도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 저는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신권회 공과와 복음 교리반 공과를 배웠으며 성찬식에서 일곱 명의 연사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과장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네 종교의 근본 원리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는 사도와 예언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곧 그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간증이며, 우리 종교에 대한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이 원리에 부수되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3쪽)

엘마가 물문의 샘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의 의무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사이아서 18:9)

회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초대 사도들은 구세주의 성역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39~41 참조) 구세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사도행전

1:8; 사도행전 10:42~43 참조)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성신을 받고 난 후에 증인이 되라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 누가복음 24:49 참조)

직접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초대 사도들의 증거와 간증조차 성신에 의한 간증에 바탕을 두어야 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성신에 의한 증거가 “천사들의 방문”이 우리의 영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1:42) 우리가 이러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간증할 때에 성신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44, 47 참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통치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신 왕이요 구세주”라는 간증을 한 후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사도행전 5:31, 32 참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신의 임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니이 31:18; 니삼 28:11, 교성 20:27 참조) 따라서 성신에 의한 증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 간증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십이사도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는 부름과 성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성 107:23 참조)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의무는 언제 어디서든 막론하고 성신으로 간증을 받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누가복음에 이것에 관한 예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사십 일이 지난 뒤 주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영으로 가득 찬 연로한 성전 봉사자들이 성신의 증거를 받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간증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성신을 통해 받았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누가복음 2:25~26 참조) 성경에서 여선지자로 불리운 안나도(누가복음 2:36)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이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8)

안나와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목격했지만 그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지식을 성신에 의한 증거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예언)의 영이니라.”(요한계시록 19:10)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가 각기 그 증거를 받았을 때 그들이 선지자와 여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함으로써 선지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43) 이것은 또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11:29)라고 기원했을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평화원인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경우도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라모니아왕과 왕후가 구속주에 대하여 간증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앨마서 19장 참조) 성경에도 “하나님 높임을” 들은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24, 46 참조)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의무인 구세주에 관한 증인이 되고 그분이 거룩하신 독생자임을 간증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예언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명이 주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신의 권능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은사들 중의

하나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은사입니다. (교리와 성약 46:13)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간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주님은 곧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어 계속하여 충실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를 주시며”(교리와 성약 46:14; 니삼 19:38 참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간증을 함으로써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은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선교사들 중 일부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다.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60:2)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용감하게 간증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주어 너의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에 너희 마음속에...정신을 굳게 세우라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4:61)

이 경고와 약속은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주어졌으나 다른 경전 구절들을 보면 이것이 일반 회원들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에서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 간증한 충실한”(교리와 성약 138:12) 수많은 의로운 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한 시현에서 “세상에서 존경받은 자”이나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해” 달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합창을 한 청년 합창단원들 뒷편에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태버나클 오르간의 파이프들.

왕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76 : 75, 79 참조)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 3 : 15)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에 관한 강렬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베드로의 간증,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 : 2; 교성 109 : 4 참조)고 간증한 것이 참됨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시에 의해 오직 주의 이름으로써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사이야서 3 : 18, 모세서 6 : 52, 59 참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저는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필요성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회복되었을 당시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도 예수는 하나님の子이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와 신권의 권세가 지상에서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수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담대하게 전한 선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수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기 선교사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과 신권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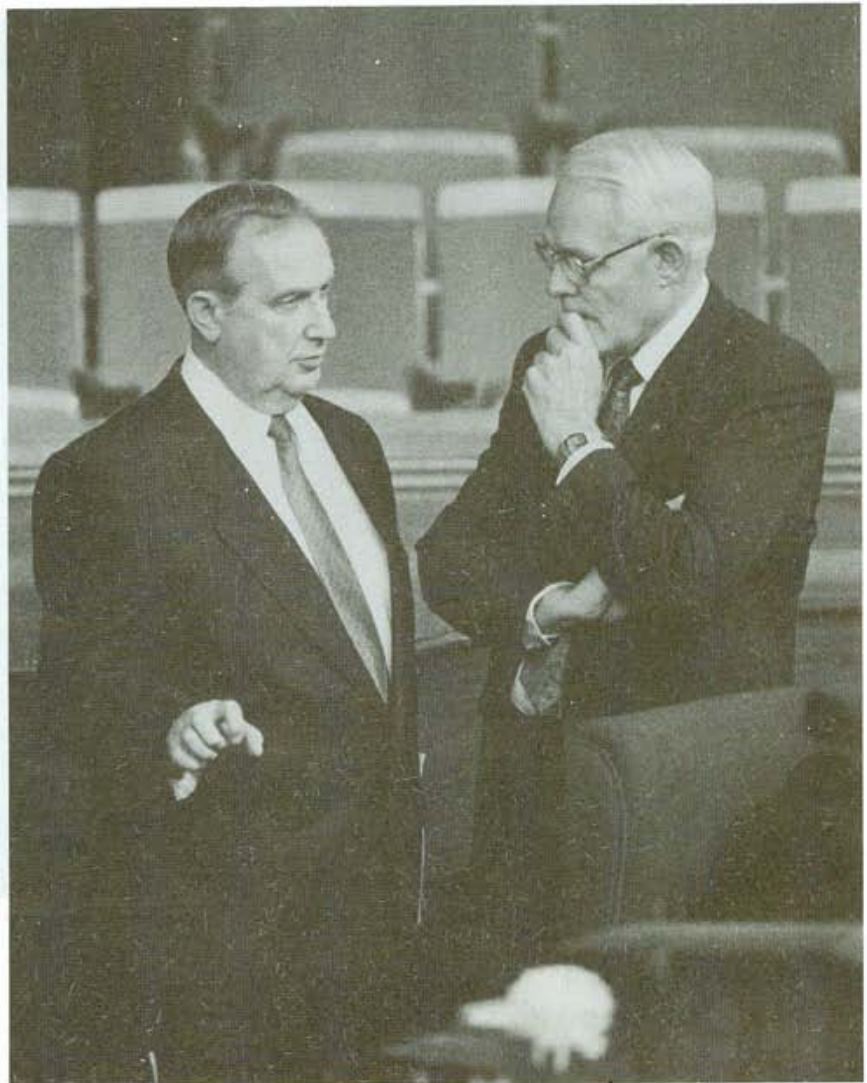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은 그러한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간증하는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존재에 의아심을 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일어났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변질을 보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더욱 솔직하고 담대하게 예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십 년 전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십년 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전인, 제가 선교사였을 적에,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영감을 받았으며 물몬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성경과 그리스도의 부름에 관한 사실상의 의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십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책임과 열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기꺼이 단호하게 수호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말일성도 학생회 노변의 모임에서 행한 말씀, 유타 주립 대학교, 1971년 10월 10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과 속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은 그분의 예언자인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벤슨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안겨 주는”(물몬경, 표제지) 물몬경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간증을 키울 것을 다시 강조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나 그리스도에게 보다는 다른 데 먼저 관심을 쏟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느 잡지는 한 유명한 기독교 종파의 새로운 감독이 시작한 개혁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성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새 감독은 우리 대화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성찬을 “창조주와 구속주와 보혜자”의 이름으로 성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원에서 들리는 불평의 소리,” *인사이트*, 1989년 4월 24일, 47쪽) 기독교인의 신앙에 일어난 이러한 편의주의적인 개혁은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데 기꺼운 마음을 갖지 않고



임이사도 장원회의 리차드 저 스코트 경도가 임심인 장원회의 조 게이 크리스티슨 장로(브리질 지역 회장)와 이야기하고 있음.

있음을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충실한 말일성도는 그러한 의도적인 이탈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공적인 지시나 우리의 예배 모임이나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주의로 인해서 빠뜨리거나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 각자는 우리의 믿는 바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언자 니파이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이서 25:26)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 훌륭한 부모가 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어떤 일보다도... 부지런함을 필요로 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가장 큰 목표라고 칭한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특권 및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많은 부모들이 각기 다른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모든 답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 회원 중에 참으로 훌륭한 청년 청년이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실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 저의 어머니는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나?”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교성 93:40)고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훌륭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부름인 동시에, 헌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소책자,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쪽)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목표가 없으며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신앙심 깊고, 행복하고, 존경할 만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갖게 되는 영광입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삼서 1:4)라고 간증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예지와 직관적인 이해, 겸손, 의지, 지혜, 인내력 및 부지런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특히 명예와 예절의 도덕적 기초가 우리 주위에서

침식당하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며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표준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지원해 주는 사회는 드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도덕적 가치와 표준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덕을 가볍게 여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는 부패해져서 도덕적인 표준을 잃어가고 있으며 가정 파탄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가장 큰 희망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와 가족이며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우리 주위에 스며드는 해로운 도덕적 부패에 대항해서 설 수 있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조화, 행복, 평화 및 사랑은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에 도전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몇 달 전, 조지 부쉬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부쉬 여사는 웰레슬리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와 시기가 변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갖게 되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껴안아 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워싱턴 포스트, 1990년 6월 2일, 2쪽)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써 성실한 부모는 훌륭한 성품을 지니게 되며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인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가족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며 희생하시는 편부모 여러분에게 크나큰 경의를 보냅니다. 그분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우리는 존경을 표해야 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임무는 가정에 부모가 다 있을 때 훨씬 쉬워집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힘과 지혜를 몹시 필요로 합니다. 몇 해 전에 스탠리 스무트 감독님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접견을 하였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가족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스무트 감독님은 “저희는 하루에 두 번 가족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평균 하루에 한 번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을 안전하게 구원하려면 한 번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가정의 밤을 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가끔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인 힘을 강화하는 데 충분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경전 공부를 이따금씩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처하게 될 도덕 부재의 환경 속에서 견디어 내는 데 필요한 미덕을 갖추게 하는 데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가정이 아니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자녀들이 순결, 성실, 정직 및 기본적인 인간의 예절을 배우겠습니까? 이러한 미덕은 교회에서도 물론 강조되었습니다만 부모의 가르침이 더욱 일관성있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협을 피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세상 경험에 많고 세상 일에 현명하기 때문에 바람에 너희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부모의 위선적 행위는 자녀들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금지한 영화를 본다면, 부모로서의 신뢰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정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덕성스럽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성 중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다른 사람의 신앙과 애국심에 대한 존중,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존경 등이 포함됩니다.

디모데는 자녀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디모데전서 5:4)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를 적절하게 잘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모든 자녀는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한 자녀에게 통했던 방법이 다른 자녀에게는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은 그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고 어떤 방법은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기도로서 분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는 처벌보다는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 징계한 후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랑과 도움의 능력 이상으로 징계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했습니다. (설교집, 9:124~125) 그러나, 지도와 훈육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다면 부모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들을 훈육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선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규율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순종심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친절한 마음과 동정 및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순종심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정이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회가 지우는 난폭하고 동정심 없는 징계에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제력과 순종심과 책임감을 지닌 자녀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장한 사람은 “저는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에 매혹되어 몇 시간이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과 같아지게 됩니다. (제롬 클레프카 제롬, 국제 사상 사전, 782쪽) 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종종 방해가 되었지만 그 추억은 아주 값진 것이며 그 일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리하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니파이이서 2:26) 않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들은 모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원예가인 루터 버뱅크는 “우리가 자녀에게 기울이는 관심만큼 식물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잡초가 우거진 정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앨버트 합바드의 스크랩북, 227쪽)

우리 자녀들도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의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자녀들이 이기심, 낭비, 방종 또는 자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자유의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염려와 관심을 가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의의 원리대로 살아온 부모는 일부 자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알고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좋은 행실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항상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나 욕의 인내까지 요구하는 자녀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물질을 준 부모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일부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줄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이 해주는 사람은 곧 그들이 자녀를 더이상 훈육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어서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차 대회, 1975년 4월) 우리는 애써서 벌지 않고 얻게 된 물질에 감사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져 인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녀가 친구들이 하는 잘못을 저지를까봐 염려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알코홀,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살아오면서 가르쳐 온 훌륭한 가치관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들 동료의 행동이나 알코홀, 부도덕한 행위, 간음, 부정적 기타 사악한 것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송 매체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죽음으로부터) 구해 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이며) 모친에게서 들어 배운 말을 내게 되풀이 하여 말하기를 모친들께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엘마서 56:47~48)라고 한 힐라멘의 이천 용사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가치를 자녀들의 생활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은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조가 자녀들의 영혼에 심어질 때 그들은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경전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의 교리”를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8:25) 이러한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교나 정부 또는 사회가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때가 언제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인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찰스 헨리 파크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완성된 아름다움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젊은 관원에게 그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야망을 알리신 이야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이야기, 불을 지피 생선을 구워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시던 이야기,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춥고 지치고 실망한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던 이야기 등의 아름다운 사소한 행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모든 것들은 매우 특별하고, 가장 작은 것에 깊은 염려를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사



대회 방문자

에 나타난 진정한 특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매우 쉽게 이해시켜 줍니다. (“친절과 사랑”, 금으로 된 잎, 펜실베이니아주 혼스데일: 코슬렐 출판사, 1938년, 177쪽)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랑, 신앙, 훈육, 희생, 인내 및 일 등과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가정이 강화되므로 작은 것이 곧 큰 것이 됩니다.

복음에 충실한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영원한 인봉을 받은 자녀들은 성약을 충실히 지킨 그들의 용감한 선조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은 이러한 위대한 성약과 약속의 상속자가 되며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올슨 에프 휘트니,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111쪽 참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며, 존경받는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충실한 부모가 지키는 성약을 특별히 영화롭게 해 주시며 성약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순결은 큰 힘을 발휘함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 중 누구라도 부도덕이란 멍에 걸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저는 주로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청소년들의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청소년 여러분 개개인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비행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비행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년 동안 성적인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수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19세가 되기도 전에 순결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불행히 교회의 청소년들도 이것에 완전히 면역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격을 쌓을 수 있으며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라도 부도덕이란 멍에 걸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행동 결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기라는 만화 주인공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신의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을 지닌 소년 시절에 한 친구와 함께 이 태버나클에서 갖는 신권 모임에 참석하여 단상 옆 이쪽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 단상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앉아 모임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당시에 저는 이 연단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을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태버나클을 떠날 때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총관리 역원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큰 붉은 의자에 앉을 수가 있잖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큰 붉은 의자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제 생애에 감독, 선교부장, 칠십인, 그리고 이제는 사도로서 봉사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미리 준비를 갖추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를 갖추고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매일 자신의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은 우리가 현재에 집착하여 미래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며 저들을 눈 멀게 하여 저들을 위하여 준비된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교성 78:10) “저들을 위하여 준비된 일”이란 순종의 결과로 오는 약속된 보상이나 영생을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먼지를 끼여 이 세상의 것에 눈 멀게 합니다.”(복음 표준,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이라, 1942년, 44~45쪽) 사탄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마는 야비한 싸움꾼이므로 우리는 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 사는 여러 그룹의 청남 청년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청소년 가운데에도 젊은 시절에는 부도덕하게 지내다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성전에서 결혼하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갈 때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린 회개하고 선교사로 나가 그 이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므로 약간의 범법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남 여러분, 이러한 시나리오의 사탄이 만든 커다란 속임수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동화같은 이야기이며 죄는 언제나 항상 예외없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나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과 무서운 가책”(야곱서 6:9)으로 서게 될 것이며, “죄의식과 고통과 번뇌로 가득하게”(모사이야서 2:38) 될 것입니다.

회개하기란 쉬운 일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통을 겪을 때까지는 아직 회개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82년 88, 99쪽) 부도덕한 행동으로 얻으려는 순간적인 쾌락은 그에 따르는 고통을 치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보면 심각한 죄를 지은 후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청소년들은 저에게 그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부도덕과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남들은 얼마나 남성다워 보이느냐로 친구들에게 인정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청녀들은 남자 친구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덕성과 긍지를 잃고 그 대가로 오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주 앞에서 몸을 움추리게”(모사이야서 2:38) 될 것이라고 베냐민왕은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들은 그들의 친구, 부모 및 그외의 가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회피합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매우 큰 축복이지만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나 친구, 또는 신권 지도자 앞에서 떳떳하다면, 구세주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때 느낌이 어떠할지 알 것입니다.

베냐민왕이 하신 다음 말씀보다 미래에 대한 더 좋은 약속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모사이야서 2:41)

그 청소년들은 저에게 깨끗한 양심은 그들의 긍지를 더욱 높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욱 훌륭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몇몇 청소년들은 높은 표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순결의 법을 범한 자들을 따라 다니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도덕적인 순결에 관한 표준을 알아두십시오. 주님은 그분의 계명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노라”(교성 82:9) 다시 말해 계명은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도덕적인 순결의

의미를 잘 모르는 듯합니다. 청남 청녀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 정의를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자기가 부도덕을 범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는 반대가 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몇 년 전, 해군 조종사로서 26년을 보내신 하트만 렉터 장로님은 흥미있는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해군에는 “숲에서 비행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숲에서 5,000피트 이내로 가까이 비행하지 말라”는 자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숲에서 비행하지 말라는 그 규칙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습니다.”(1972년 10월 반 연차 대회)

어떤 표준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교회의 도덕 표준에 관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신권 지도자에게 말씀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영의 속삭임을 따름으로써 올바른 도덕 표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른다면 불안하다거나 깨끗치 못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의 속삭임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육체적인 욕망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단 그 표준을 이해했으면, 그 표준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입니다. 경전에 보면 “주 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아브라함서 3:17)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 보다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도망쳐 나온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9:7-12) 여러분은 악과 타협하는 상황을 피하고 옳은 일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함으로써 부도덕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매우 추웠고 이제 그들은 그 강의 위험한 지대를 건너 가야 했습니다. 그 코치는 강 밑에 있는 돌들이 둥글고 미끄러웠으며 강물은 그분이 입을 방수복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분의 키는 매우 컸으므로 그 강도 역시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홀에게 겁이 나서 물을 건널 수 없다고 말하려다가 축구 코치가 무서움을 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물을 건너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손과 팔을 꼭 붙잡고 있는 동안 한 발자국 옮기십시오. 그런 후 선생님이 서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저도 한 발자국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끄러운 돌을 딛고서도 물살이 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그들은 강을 무사히 건넌으며 큰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도덕 표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앞에 간 분들이 바로 강한 발판이 됩니다. 그분들은 도덕 표준을 잘 지켰고 그에 따르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강물을 건널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굳게 섰을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순결한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덕이 다루기 힘든 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에게 그분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듣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 특히 감독님께서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표준을 알고 계시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권고드립니다.

세째,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혼자서 그 유혹에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주일 전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지역 대표 중 한 분인 찰스 “타이니” 그랜트 장로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이 리스 대학의 미식 축구 코치였을 때 그분은 낚시를 좋아하기로 이름난 홀 바튼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홀은 큰 고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물살이 센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낚시하러 갔던 때는 얼음이 녹고 있는 2월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강을 따라 올라 갔을 때 홀은 50야드쯤 떨어져 있는 한 섬을 가리키면서 “코치 선생님, 저곳이 우리가 큰 고기를 잡으려는 곳이에요.” 그 날은

감독님과 함께 있을 기회를 구하십시오. 감독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감독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감독님께 질문하십시오. 교회의 도덕적 표준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감독님과 약속하십시오. 성인 지도자와 갖는 뜻깊은 관계는 도덕적인 순결과 합당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 신권 고문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고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째,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여러분이 지닌 표준에 공감하는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그와 같은 친구는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의 강요와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청소년들은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이든 친구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높은 도덕적 표준을 지킬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친구들과 우정을 두텁게 쌓을 때 여러분은 도덕에 관한 굳은 결심을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도덕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도와 주십시오.

다섯째, 청남 여러분은 모든 연령의 여성들에게 사려깊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청녀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우해주도록 제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고 테이트를 먼저 신청하고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서서 기다리는 등 훌륭한 예절을 기꺼이 지키십시오.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지만 청녀들은 여러분이 이처럼 단순한 예절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따르며,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을 “뒤덮지 않게”(엘마 13 : 28)될 것입니다.



대회 방문자

매일 드리는 기도에 도덕적으로 순결하겠다는 결심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도 포함시키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순결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한 연후에 온 세상에 나아가 나의 복음을 아직 받아 보지 못한 산 자 모두에게 전파하라.”(교성 112 : 28)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선교 사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권세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이제 도덕적인 율법을 어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한다면 구세주의 속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틀림없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나 완전히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과정을 인도해 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주 그분과 말씀하십시오.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엘마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구할 때까지 죄사함을 얻지 못했었나니, 보라 주께 간청하며 영육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느니라.”(앨마서 38 : 8) 일단 죄를 버렸으면 결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교성 82 : 7)

오늘 밤, 저는 20여년 전, 청소년의 도덕적 비행이 오늘날처럼 흔하지 않았던 그때 이 자리에서 휴 비 브라운 장로님이 드린 기도를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심을 할 때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1967년 10월 반 연차 대회)

형제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합당한 종이 되기 위해 생활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생활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채널을 돌림

메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범에 따라 자유의지를 비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며칠 전, 저는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훌륭한 한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감독인 남편과 함께 열 네살 된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자매님의 편지의 마지막 몇 구절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진지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청소년들이기는 하지만 변화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모임을 통해 적어도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진지한 생각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던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저는 우리들 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앞에 앉아 채널을 돌고 다이얼을 돌리는 등의

별 목적없는 습관에 대해 말하였으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와 같이 기억을 더듬고 기록을 살폈던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제가 유심히 보아 왔던 많은 일들과 경험 및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 제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채널을 돌려 어떤 장면이 잡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차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섯 살된 아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워낙 거칠은 여행이라 아들과 같이 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류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기 때문에 어떤 승객들은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가 아들을 힐끗 바라보자 아들은 매우 즐거워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조종사들은 아이들이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하나요?”

훌륭한 부모와 가족과 지도자와 친구들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란 순수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영성을 고양시키고 영원히 기억할만한 친진 난만한 즐거움입니다. 어린이들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을 쌓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누리는 참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쁨이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채널을 다른데로 돌리겠습니다. 한 고결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련의 마지막 말에 너희 아들들에게 선지자의 말씀 중 몇 마디 유익한 부분을 취하여 말하였노라. 나는 다만 너희 영육의 영원한 복리를 기원할 뿐이로다.”(니파이서서 2:30)

이것은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부모, 선생님과 신권 지도자와 친구가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좋은 목표입니다.

이쯤에서 채널을 돌려 생각과 표현을 통해 빛나는 사랑과 자유의지의 원리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중심이 되는 원리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마태복음 22:40)들의 중요한 강령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이 밖에 다른 모든 미덕 및 가치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22:36~40 참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교리와 성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어”(교리와 성약 34:3)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가지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가지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범에 따라 자유의지를 비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한 말뿐이 아니며 단순한 느낌만도 아니며 단순한 감정만도 아닙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일서 3:18)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임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의 핵심인,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친절함을 보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위를 지키고 명예와 이타적인 마음과 훌륭한 예절과 고상한 취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며 늘 좋은 행실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 대로 행하라.”(니파이삼서 18:24)

채널을 돌리면 이제는 어둡고 슬픈 장면이 나타납니다. 슬픔에 젖은 한 젊은 아버지가 두 자녀와 함께 자신이 손수 지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서서히 죽음을 향한 행진을 하고 있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딸은 잠이 들어서 침대에 옮겨 놓혀 놓았으나 어린 아들은 졸음을 억지로 내몰며 망설이며 앉아 있다가 드디어 아버지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함께 잘 수 있겠냐고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감감한 어둠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입을 엽니다. “아빠, 아빠는 저를 보고 계세요?” “그래, 애야,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 쉬더니 피곤한듯 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계시다면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현재와 내세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도구가 되도록 권능을 주셨지만 또한 강제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면에



보도에 마련된 이 대형 나침반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라고 새겨져 있음. 오른쪽 건물은 대회가 열리는 태버나클이며, 뒷면에 보이는 건물은 어셈블리 홀임. 이 건물은 태버나클에 입장하지 못하는 대회 참석자들을 수용하는 여러 건물 중에 하나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으시기도 하시며, 때때로 우리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이미 앞서 이야기 했던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들이 타락에서 구속될 것임에 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 하느니라.

“그러므로...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 있느니라.”(니파이서 2:26~27)

채널을 돌려 토요일 저녁 어느 농가의 부엌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를 받은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주저하며 묻습니다. “엄마, 방금 봄 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그애 아빠랑 톰이랑 톰 아빠랑 넷이서 눈자동차를 타고 사냥을 가는데 저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대요.” 어머니는 그 물음에 깜짝 놀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르는 듯합니다. (후에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일요일 아침에 할 일이 있으며,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야 하고, 아빠가 밤에 돌아 오시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로 말해 줘야겠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처드야, 너는 이제 열 두 살이란다. 또 신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너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야. 틀림없이 아빠는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봄에게 대답해주시기를 바라실꺼야”

소년은 전화기 앞으로 돌아 가고 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아들이 올바른 대답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소년은 부모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길 건너편에 주차를 한 뒤, 부모님과 함께 다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소형 트럭이 지나갑니다. 어른 두 명과 소년 두 명이 앉아 있고 짐칸에는 눈 자동차가 실려 있으며 뒤편 창에는 총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소년들이 리처드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있다가 말합니다. “아, 정말로...” 어머니는 잠시 숨을 죽입니다. 리처드는 계속 말합니다. “아, 정말로 봄하고 톰에게 오늘 아침 신권회 모임에 오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주님께 이 선택받은 소년을 주시고 그가 올바른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 결정이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소년은 며칠 뒤에 농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다시 채널을 바꾸면 한 위대한 사상가의 가슴 속에서 담대하게 울려 나오는 고전적인 말씀이 들립니다. “아, 나의 영혼이여, 그대가 걷는 길을 보라. 막대기의 한쪽 끝을 잡는 이는 다른 한 쪽도 잡게 되는 것이니, 어느 길의 한쪽 끝을 택한 이는 그 길이 이르는 곳을 택하는 것이라.”(헤리 에머슨 포스디, 교회 신문)

저는 오늘 저녁 청소년 여러분에게 전쟁중에 어느 배에 올랐던 한 전도가 유망했던 청년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진실로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 세상의 마지막 장소로 이끌고 갈 운명에 놓여 있는 그 배에 오르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저지른 첫번째 실수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과 친구들과 익숙한 표준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또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은 교만했기 때문에 훌륭한 조언을 거절하고 물문경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수 천년전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사람들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문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행위를 저들이 용감하다는 표식으로 삼았느니라.”(모로나이사 9:10)

거짓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다움”을 추구하는 삶의 이러한 환상은 가엾게도 너무나 공허한 것이어서 오로지 비극으로만 이끝 뿐입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 간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비롯하니, ...”
“나의 형제들아, 선과 악을 구별하여



교회 본부 번역부의 사모이며 번역사인 사오로토가 알로피포 형제. 알로피포 형제는 32개의 언어로 대회 진행 과정을 동시 통역하는 많은 통역자들과 함께 일했음. 통역자들은 대회가 열리는 슈트레이크 테버내를 지하에 마련된 통역실에서 통역함. 대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 마련된 교회 건물에 앉아서 특별한 헤드폰을 사용함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 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입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모로나이사 7:12, 15~16)

이제 화면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긴장하게 생긴 젊은 미식 축구 선수가 스포츠 담당 기자들에 둘러 싸여 선수 초기 시절에 느꼈던 실망감을 딛고 현재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그의 발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시절에는 혼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자신이 그곳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죠.”

이 청년은 좀더 건설적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끄는 것 같은 길을 걷고 있었으나,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선택하고 돌아 설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관찰과 기억의 채널을 돌리면서 훌륭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화면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서 말일성도인 친구를 사귀게 되어 그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함께 가정의 밤을 갖는 동안 그 이전에는 결코 경험치 못했던 영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 관계를 보고 개종하게 된 어느 자매님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 자매님은 침례를 받은 후에도 가정이 표면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학대와 말다툼과 술과 욕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들어가 경전도 읽고 좋은 음악도 들으며 기도도 하고 주님의 영을 느낄 수도 있는 방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작은 방에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도와 주신다면 항상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 일기에서 찾아내 보여 드리고 싶은 화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회원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 중동 사태에 직면한 냉철한 현실을 보며 참으로 이 상황에 잘 어울리며 또한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추억입니다. 1967년 5월 베트남의 나트랑에서 적은 일기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른 교회의 선임 군목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형제들’이라는 주제로 감명깊은 설교를

했던 잊지 못할 모임을 가졌다. 그 주제는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으며, 계속되는 말씀 또한 주제에 어울리게 처음부터 내내 감명깊었다. 정말 특별하고 훈훈한 느낌이 드는 모임이었으며 성신이 강하게 임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진 방은 몹시 더웠다. 그곳에는 오래된 에어컨이 두 대 있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해 문을 열자 안보다 밖이 더 시원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을 느꼈으며 좋은 경험을 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모임이 열렸던 커다란 방을 따라 아래로 조용히 내려갔다. 뒷문으로 나가다가 어떤 방안을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방 앞 부분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뒤쪽에는 몇 사람이 따로 떨어져 모여 있었다. 남자 세 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다. 네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모임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간에 북쪽에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고 한 명은 같은 임무를 띠고 곧 가야할 사람이었다. 지방부장단에 속한 세 명의 회원이 그들의 상관을 지역 선교사로 성별하고 축복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훌륭한 장면은 제가 들었던 어떤 신권에 대한 설교보다도 더 감명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권은 봉사하며, 동료와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리요 권세였습니다. 저는 그 때의 기억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시라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29:11)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예언자를 따름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가 되도록 예임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예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였고, 따라서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형 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령이 저를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 예언자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에프 엠 베어햄씨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나,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거나, 대륙을 발견케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경을 읽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아기를 내려 보내십니다.”(연차 대회, 1960년 4월, 84쪽)

그래서 1899년 8월 4일 아이다호주 휘트니에서 사라 벤슨은 분만을 시작했으며, 남편 조지는 아내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의사 커틀러씨가 양가의 두 할머니인 루이사 벤슨과 마가렛 덩클리와 함께 조지의 농가에서

사라를 돕고 있었다. 너무도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만이었다. 드디어 몸집이 큰 아기가 태어났으나 의사는 아기의 숨을 쉬게 할 수 없자 재빨리 침대에 눕히고는 아기는 살 가망이 없지만 어머니는 구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커틀러씨가 사라를 서둘러 치료하는 동안 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분만을 도울 때처럼 조용하게 기도하며 찬물 한 대야와 더운 물 한 대야를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 왔다. 아기를 찬 물과 더운 물에 번갈아 담그는 동안 마침내 아기의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몸무게가 5.3킬로그램이나 되는 아기는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후 두 할머니는 주님께서 아기를 살리셨다고 간증했다. 조지와 사라는 아기의 이름을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라고 지었다.”(셰리 엘 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전기,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7년 13~14쪽)

에즈라가 열 두살 때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남인 에즈라는 당시 임신 중이던 어머니와 여섯 명의 동생들을 보살피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떠난 뒤에 가족들이 모두 천원두를 앓아 어머니는 매우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아버지를 집으로 오시게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술한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1920년 이른 가을, 에즈라가 대학의 겨울 학기를 등록하기 위해 로간에서 일주일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촌과 함께 길가에 서 있는데 매력적인

어느 아가씨가 포드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사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오더니 또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지?'에즈라가 물었습니다. '플로라 아유센'이라고 사촌이 대답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에즈라는 '올 겨울에 이곳에 오면 그녀에게 청혼할 것'이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안될 걸. 그녀는 너 같은 시골뜨기에게 시집가기에는 너무 인기가 좋아.'라고 사촌이 말하자, '그렇게 말하니깐 더 마음에 끌리는데'라고 에즈라가 대꾸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에 결혼하고 싶을 만큼 플로라에게서 특별한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듀, 46~47쪽)

에즈라가 스물 한살이 되던 1921년 여름에 히버 계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그에게 영국으로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장을 보냈습니다. 1921년 7월 13일 에즈라는 부모님과 함께 로간 성전에서 의식을 마치고 3일 후에 부모님과 여자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벤슨 장로는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선교 사업을 썩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일지를 보면 "말을 건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벤슨 장로는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사우스웰드 지부에서 말씀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 처음에는 배도에 관하여 말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으나 막상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는 물론경의 참됨에 관하여 확신에 차고도 감명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후에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에도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유창한 말씨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제 곁으로 와서 '오늘밤 저희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평생에 몇 번 겪기

어려운 값진 경험이었으며,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듀, 55쪽)

벤슨 대관장님은 1926년 9월 10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역시 선교 사업을 마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뢰가 대관장님 자신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보다 항상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64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헌신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제 청남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예언자의 모범을 따라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으며, 그분과 같이 봉사하는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별세하셨을 당시 저희는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저희 집에 묵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했으며 그분은 제 아내가 만든 빵과 우유를 드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언자라는 성령의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 이상의 분이요 김볼 대관장님의 뒤를 이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저는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성령을 통하여 벤슨 대관장님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부름과 메시지를 받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언자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물론경을 읽고 그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수 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교회 청남, 청녀, 어린 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및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으로부터 특별히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위대한 예언자의 조인에 따라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6장)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가 되도록 예임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예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였고, 따라서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봉사과 인내의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한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네. 주께서 위안과
즐거움을 그에게 주시기 비옵니
다. 밝은 빛 비추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위해 일하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 능력 가지고
선지자가 우리 인도하고 충고하
게 거룩한 빛으로 비추소서.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
위하여 비옵나니, 언제나 주님의
축복받고 살아가실 동안 모든 일
을 훌륭히 행하기 비옵니다.
(찬송가, 25장)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축복하시고 지지하시며, 우리 모두 그분을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영원한 열쇠

더럴 에이 올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세상이 탐닉하고 있는 돈이나 세상적인 성취는 여러분과 가족들이 흠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신 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가복음 8 : 36) “제 목숨과 자신의 가족을 잃으면”이라고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애리조나 선교부로 떠나기에 앞서 훈련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동안 저는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쇠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열쇠, 집 열쇠, 교회 부름의 열쇠 모두를 남겨 두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열쇠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기운이 쭉 빠졌으며 주머니마저도 텅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하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열쇠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열쇠입니다.

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대부분의 다른 열쇠, 특히 언젠가는 좀과 등록의

희생물이 되고말 물질적인 것들을 지배하는 열쇠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권 지도자의 열쇠와 회장단의 열쇠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충실하게 봉사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열쇠를 넘겨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의 열쇠는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되시는 여러분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러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또한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성공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만 자신을 합리화시킴으로써 곤경에 처하게 되고 가족들을 타락의 상태로 이끕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실하고 충실하며, 가정을 의롭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기꺼운 임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초기의 개척자들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때때로 현대인들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권리와 자유의지나 잘못으로 이끄는 세상의 유혹과 피임에 넘어가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흥미로운 일이라면 무엇이든지”하는 사람이나 오로지 “이득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라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반 그리스도인인 코리호어도 다음과 같이 이와 비슷한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란 없는 것이며, 인간이란 날 때부터 합당하게 모두를 타고난 것이어서 재능에 따라 번영하며 능력에 따라 무엇이든도 정복할 수 있으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엘마서 30 : 17) 이와 같은 웅변술이 오늘날에도 세상의 교리와 조화를 이루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가장이 암초와 여울목 투성이의 뱃길에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가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웅이 되셔야 합니다. 가족에겐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도 없으며 닳아가려고 애쓸 필요는 더더욱 없는 소위 이 시대의 영웅들을 받아들이도록 유혹을 받고 동년배들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 선수나 인기있는 연예인들 가운데는 부정직하고 불안정하며 충실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코리호어가 “...합당하게 모두를 타고난 것이어서”(18절)라고 말한 바와 같이 자신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극악할 정도로 태연하게 좋지 못한 품성과 부도덕함을 과시합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의 영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는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가장은 가족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합당해야 하며, 닳아가려고 노력할만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저 건성으로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시간을 내라는 뜻이 아니며, 피곤에 지쳐 싫증난 말투로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라는

뜻도 아니며 사회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즐거움 또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매일 몇 시간씩 꾸준히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탐닉하고 있는 돈이나, 성공의 사슬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사적인 성취, 또는 운동 선수가 되든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 등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흠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가복음 8:36)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낯선 자를 불러 모으고 저의 자녀를 잃는다면 무슨 이로우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제발 저희들의 자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책임져야 하며, 인도와 지도와 합당한 힘을 얻기 위해 저에게 의지해야 하는 제 자식을 잃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복음 교리, 420쪽)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즉시 여러분과 가족에게 매우 고무적이고도 커다란 혜택이 몰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충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및 이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한 상대방에게 결코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충실하고 신의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둘이 하나가 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도 여러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의 길을 걷기 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어와 행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가르치고 이끌며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좌)와 마빈 케이 애쉬튼 장로와 인사하고 계시는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대관장님 제1보좌).

있습니다. 충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 및 헌신적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며, 성실과 헌신은 여러분이 충실하게 되는 기초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22)

아버지 여러분, 경전은 여러분에게 훌륭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비교적 복잡하고 기술적인 장비를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이에 앞서 그와 관련된 지침서를 연구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 지침서를 자주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는 다소 복잡하고도 중요한 투자를 위한 지침서로는 경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 및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답을 찾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경전을 읽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매일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모든 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 통하는 대화의 길을 얻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예언자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자원이 있겠습니까? 예언자를 따를 때에 여러분과 가족은 매우 안전한 보금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언자께서 현대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항할 수 있는 가르침과 인도를 해 주시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나침반 없이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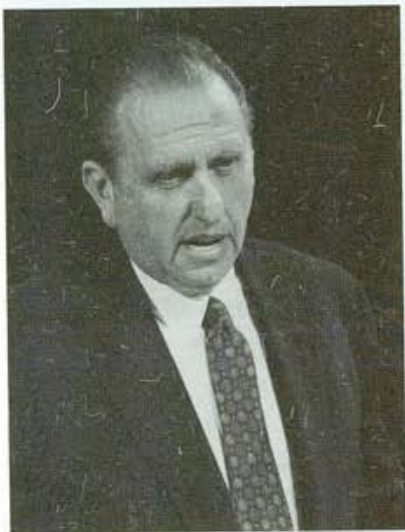
이상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영웅이 되어야 하며, 주목을 받을 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할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꾸준히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온전히 충실하고, 영원한 동반자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끊임없이 매달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예언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처방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로 강하게 뭉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세계에 계시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의 열쇠를 의롭게 얻고 관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하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에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옵니다.”



제 녀리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추억 중 하나는 집사 신권에 부름을 받고 신권회 모임에 참석하여 개회 찬송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를 부르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 태버나클을 가득 메우신 형제 여러분과 온 세상의 예배당에 모이신 형제 여러분에게 저는 이 특별한 찬송가의 영을 전해 드리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신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다 함께 우리의 부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우리의 책임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의무를 배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나이나 풍습이나 국적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교회 회원이며, 모두 신권의 부름을 받아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2주일전에 저는 “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성찬식 발표로 하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은 그들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 준 영으로 충만한 모임이었습니다. 열 한 살난 제 손자는 그 모임에서 첫번째 시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마친 뒤 손자가 우리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 돌아 왔을 때, 제가 “토미도 이제 선교사가 될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구나.”라고 말하자,

손자 아이는 “아직 아니에요. 제가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이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손자와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께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하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라는 소책자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그 소책자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글과 가르침과 경전에서 발췌한 표준이 다루어져 있으며, 이 표준을 따를 때에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여성 대회에서 자매님들에게도 그 일부를 소개드렸듯이,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지침이 될 이 책자의 소개 부분인 대관장단의 말씀을 일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남 청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신뢰합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옳고 선한 모든 것을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희와 책임과

기회가 가장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예비되었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선택하여 생활하시길 권고합니다. ...”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리석게도 순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쾌락을 좇다가 여러 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주님과 그분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지는 표준을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무거운 짐과 이에 따르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으로써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합당하고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원합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90년)

방금 읽은 서문에 언급된 이 특별한 표준을 교회의 젊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열 두 개의 표준이 있습니다. 각 표준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데이트(이성 교제)

성전 결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합당하게 데이트를 하는 것도 그러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데이트가 통용되는 문화권에서라도 16세가 될 때까지는 데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청소년들이 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소년들이 모두 데이트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여럿이 함께 하거나 두 명 이상의 상대와 같이 하십시오. 또한 데이트 상대자를 부모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데이트는

결혼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높은 수준을 지키는 상대와 데이트 하십시오.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위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느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곳을 빠져 나와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충고입니다.

2. 복장 및 외모

주님의 종들은 항상 우리에게 단정한 복장을 갖추으로써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자신을 존중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옷차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종종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단정치 못한 옷이나 외모는 피하십시오.

3. 우정 증진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구들과 서로 공감하는 가치관을 함께 나누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품위있게 대하십시오. 많은 비회원들이 그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킨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4. 정직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격언은 참으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말일성도 청소년은 자신이 가르치고 믿는 바에 따라 생활하며 남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습관적으로도 정직하며, 정직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코 자신에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개인적인 정직의 표준을 무시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상법 강의를 수강할 때였는데 어느 별난 학우가 한번도 그 과목 토론 준비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최종 시험에 합격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해답은 기말 고사를 칠 때 가서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울에 양말을 신지 않은 채로 샌들만 신고 교실에 들어온 그 친구를 보고 저는 무척이나 어안이 병병해져서 시험이 시작된 후에도 그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샌들을 벗고 매우 혼란이 잘되어 있는데다가 글리셀린까지 바른 발가락으로 매우 능숙하게 미리 바닥에 내려 놓은 책장을 넘기며, 시험지의 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법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벌을 받는 날이 왔습시다. 나중에 그 학생이 종합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목의 담당 교수가 처음으로 “올해는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 필기 시험이 아닌 구두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 경우에는 혼란했던 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시험에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언어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나 사용하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불경스럽게나 저속한 언어나 함당치 못한 농담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경망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신문 방송 매체 :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책 및 잡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일성도로서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한 일”(신앙개조 제13조)을 추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무엇을 읽든지, 무엇을 듣든지, 혹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설물은 특히 위험하며 습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한 외설물이 어쩔 수 없는 습관에 젖어들게 되어 점점 더 노골적인 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성적인 범죄로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영화관을 나오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책이나 다른 형태의 오락물이 함당한지 아닌지 의문이 생길 때는, 무엇이든 보거나 읽지 말고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얼마전에 코미디언인 스티브 알렌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한 가지를 다룬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알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점점 더 충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성인을 위주로 한 내용물이 주류를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 코미디언은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의 여론 난에 현대의 텔레비전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혹평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이 우리 모두를 시궁창으로 몰아 넣고 있다.”라고 하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용하기를 금했던

표현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유선 방송국 뿐만 아니라 한 때 높은 표준을 지키던 방송국에서까지도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등장시키는 쇼는 미국의 가정을 몰락으로 이끌 뿐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렌씨는 뉴스 위크 잡지의 최근호에 “텔레비전으로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에다 “경쟁자를 추월하기 위해 국내 3대 방송사들이 앞을 다투어 미국을 진동시킬 음란스럽고 위협하기조차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논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송국들이 갑자기 방송망을 암울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

7. 정신적 건강 및 육체적인 건강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영양가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당한 수면이 튼튼한 육체를 유지시켜 주듯이, 간단없는 경전 공부와 기도는 마음과 영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

습관성 마약, 약물 남용, 술, 커피, 차, 담배 등은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며, 영적인 행복까지도 앗아갑니다. 맥주를 포함하여 어떠한 술도 여러분의 영과 육에 모두 해롭습니다. 또한 담배는 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하고 폐를 약화시키며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8. 음악과 춤

음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교육시키고 교화하며 영감을 불어 넣고 단합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악은 빠르기와 박자와 강도와 가사에 따라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킬 수도



대회 방문자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침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춤은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우정을 증진하는 기회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복장과 용모, 조명, 춤 스타일 및 음악이 있는 무도회를 계획하고 또한 그러한 무도회에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 성적인 순결

성관계는 너무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결혼 전에도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고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성교제(데이트)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순결의 법을 어긴 뒤에는 항상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따라옵니다. 형제 여러분,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생각을 갖도록 간청합니다.” 그런 후, 그분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훌륭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도 따라서 합당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속에 갈라하드경이 이야기한 테니슨 시인의 다음 시귀절이 메아리쳐 울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다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순결하기 때문이오.

이 진리가 강조된 한 예가 고사에 전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적법한 의식을 거쳐 이집트의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역시 파라오이며 다리우스의 경쟁자였던 알렉산더도 자신이 암몬의 적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싸움에 패해 상처를 입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리우스를 발견하고는 그를 치료하려고 자신의 손을 다리우스의 머리 위에 놓고서 그에게 일어나 다시 왕위를 회복하라고 명하면서 “다리우스여, 모든 신들에 맹세코 나는 조금도 거짓 없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함을 그대에게 약속하느니라”라고 말하자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여, 그대가 그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뇨?”라고 가볍게 힐책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신권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여 하늘 나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어느



솔트레이크 시티의 템플 스퀘어의 풍경. (왼쪽부터) 손수레 개척자 기념비, 여성불리 홀, 갈매기 기념비, 테버내클.

작가는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론으로 십대의 성행위는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 이유는 사회가 십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기존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와 대중 매체에서 “성행위를 허용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건전하지 못한 내용” 및 때때로 전문가의 경고와 부모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혹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할지어다”(니파이삼서 20 : 41)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대중 매체의 그릇된 영향을 물리치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 닥칠 때마다 사도 바울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 : 13)

10. 일요일의 행동

주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주일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성스러운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 영적인 도움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외롭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2. 회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회개하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만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은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 : 18)

여러분의 영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면, 그 길에서 빨리 되돌아 올수록, 그만큼 더 빨리 용서의 기적을 통해 오는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에 나오는 표준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에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과 신뢰에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명예롭게 하십시오.

죄를 만나면, 그것을 피하십시오.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간증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영적인 힘은 종종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 옵니다. 몇 해 전 캘리포니아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 조지아주에서 온 어느 한 젊은 선교사와 접견을 하면서, “장로님은 매주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편지를 보내십니까?”라고 묻은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집에서 편지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집에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장로는 떨리는 음성으로 “집에서 편지를 보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사이시고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제게 선교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시며, 만약 제가 선교사로 떠나면 편지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 젊은 아버지의 종에게 제가 뭐라고 말해 주어야 하나니까?” 그러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로님, 매주 부모님에게 장로님의 선교 사업에 관하여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장로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이 부모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부모님께 장로님의 간증을 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모님이 제게 편지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편지하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헤어져서 저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제가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이가 다가 와서 “몬슨 형제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선교 사업을 하면서 9개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던 그 젊은 선교사입니다. 형제님께서 저에게 ‘장로님, 매주마다 집에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께서 장로님에게 편지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선교사입니다. 몬슨 형제님, 그 때 약속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고무줄로 묶은 편지 봉투를 한 다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 봉투입니다. 그중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를 형제님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네 편지를 받고 몹시 기뻐한다. 우린 선교사인 네가 자랑스럽구나. 짐작해 보렴! 너의 아빠가 제사에 성임되었단다. 그리고 나를 침례 주려고 준비중이란다. 나도 선교사와 공부중이란다. 지금부터 일년 후에 네가 선교 사업을 마치면 우린 캘리포니아에 갔으면 한다. 우린 너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는 제 손을 잡고는 “몬슨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도들의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증명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결한 손과 순수한 마음과 굳은 의지는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에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나라에 닿을 수 있고 그렇게 축복 받는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십이사도 경원회)와 제프리 알 폴먼드 장로(칠십인 정원회)가 현재의 렉스 이리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음.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두 보좌들이 회장과 협력함으로써 재동을 가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는 훌륭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 저 이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도 또한 그분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따른다면 평생토록 축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저는 한 특별한 주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신권 모임에서 저는 감독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감독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지 않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늘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좌에 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좌는

감독이나 회장보다 두배나 더 많으며, 또한 중요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무한한 지혜로써 이 교회에 소위 우리가 회장단이라고 부르는 직책을 두셨습니다. 본래 모든 정원회와 보조 조직은 회장단이 감리합니다. 예외적인 조직으로는 회장 한 분만이 계시는 십이사도 정원회와, 일곱 분의 회장님들이 계시는 칠십인 정원회가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는 왜 회장단이 없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십이사도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원회에 제기된 문제는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아홉 명을 감리하기 위하여 세 명의 회장단을 둘 필요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칠십인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많고 또한 조직될 수 있는 정원회원의 숫자면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각 회장은 다른 회장들과 동등하며 일곱 명 중에서 한 명이 선임 회장으로 지명됩니다.

제사 정원회의 경우에는 감독이 회장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감독단, 스테이크 부장단,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장단, 선교부장단, 성전장단, 보조 조직 회장단, 지역 회장단, 혹은 교회 대관장단에는 모두 두 명의 보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보좌로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의 부름과 책임의 한계선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속했던 와드는 회원들이 무척 많아서 집사 정원회가 다섯이나 있었으며, 각 정원회마다 세 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감리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맨처음 맡게 된 임무는 바로 이 집사 정원회 회장인 소년의 보좌가 되어 그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훌륭하신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저의 부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고 좀 아둔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집사 정원회 회장 보좌의 직책은 저의 나이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맡은 직책을 저의 나이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척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른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했으며, 또 스테이크 주일학교 감독단(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스테이크 주일학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이 되기 전에는 보좌로서 봉사하였으며,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이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영감에 가득차신 대관장님을 두 분이나 보좌하고 있습니다.

보좌 부름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 관리 역원이 자신의 보좌를 선택합니다. 보좌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강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관리 역원에 의하여 스테이크가 조직될 때, 먼저 매우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테이크 부장을 선택하면, 선택된 스테이크 부장은 같이 봉사할 보좌를 임명하도록 되었으나, 이들을 접견하기 전에 총관리 역원이 이 선택된 사람들을 승인하여야



오른쪽 끝에 있는 건물은 교회에서 현재 개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전의 유타 호텔임. 저 멀리 유타주 정부의 본산인 주청사가 보임.

합니다.

회장과 보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회장이 보좌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장은 보좌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하며 또한 보좌들은 회장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보좌들은 회장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장 대리로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먼저 권리를 위임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좌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좌는 회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어느 조직이거나 회장의 책임은 무겁고 힘이 듭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도 그가 올바르게 임무를 행한다면 책임이 많습니다. 그 정원회 소년들의 활동 및 발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조를 책임진 보좌는 회장이 아닙니다. 회장의 임무를 떠맡거나 회장보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회장단 모임에서 각 보좌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나, 회장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보좌로서의 임무는 결정된 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의 생각에 관계 없이 회장의 결정은 곧 보좌들의 결정이 됩니다.

지혜로운 회장은 각 보좌에게 임무를 위임하고 보좌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보좌는 협력자입니다. 회장단을 구성하는 세 형제들은 서로 협력하여 일하며, 밀접하고 기꺼운 우정을 나누는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좌들은 위임을 받은 한도 내에서 제한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와드, 정원회, 스테이크, 보조 조직 또는 기타 조직들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셋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자는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언 11:14)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뢰와 신용을 지닌 형제들이 옆에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가졌던 회장단 모임이 생각납니다. 회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안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토론을 했으며, 결정을 내린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조직의 회장이든지 자신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의 보좌들이 만족을 느끼지 않는 한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노력하며 독자적으로 결론을 맺을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토론한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영향 아래서 일치된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 모두에게 대관장단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이신 대관장님도 그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결정을 내리고 교회의 방침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보좌들과 상의하시며, 만일 의견이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을 때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십니다. 두 보좌들이 회장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제동을 가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는 훌륭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실수를 최소화시키며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좌는 친구입니다. 회장단은 서로 의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들과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회장단은 서로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큼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하며 보좌들은 그들의 회장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회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보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보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인비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좌는 판사입니다. 보좌는 회장에 비해 낮은 판사이기는 하지만 판사임은 확실합니다. 교회 선도 평의회가 열릴 경우,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부장단, 혹은 대관장단의 세 형제들은 함께 앉아 그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저의 생각을 형제님들께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특히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지하게 영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따르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좌가 회장의 대리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능은 회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오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회장이 병이나 직장이나 기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부재하다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회장은 자신의 권능을 보좌들에게 위임하고 지금까지 같이 봉사하면서 훈련받은 보좌들이 훌륭하게 그 일을 수행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좌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보좌로 봉사하면서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병환 때문에 교회 관리의 책임을 맡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제게 “권능 없이 책임있는 일을 하기는 정말 힘들군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대관장님이 해야 하실 일을 보좌인 자신이 나서서 해야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대관장님만이 지니고 있는 권능을 소유하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그분의 입장을 아주 생생하게 실감하였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편찮으시던 중에 태너 부대관장님이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시자, 림니 부대관장님이 제 1보좌로 부름을 받고 제가 김볼 대관장님의 제 2보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림니 부대관장님도 편찮으시게 되자 제 능력으로 감당 못할 만큼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형제님들과 자주 의논하였으며, 그분들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저를 도와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추진해 나갔지만,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사안은 김볼 대관장님이 배석하신 곳에서 토론하고, 그분의 동의와 승낙을 얻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을 방문할 때, 저는 서기를 데리고 갔으며 그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저는 저의 지도자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교회

지침과 가르침을 변경하는 데 대관장님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언자임을 늘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십이사도 형제님들과 같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지지받았으나 우리중 어느 누구도 교회의 대관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만이 아시는 목적을 위해 김볼 대관장님의 생명을 연장하셨고, 모든 인간들 위에 뛰어나신 지혜를 가지신 주님의 지혜로 어떤 이유 때문에 김볼 대관장님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1985년 11월, 김볼 대관장님께서 별세하신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만장일치로 교회의 대관장이요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보좌를 선택하셨으며 저희들은 그분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하고 있고, 이를 통해 훌륭하고 보람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올해 구십 일세이시므로 옛날의 그 풍부하시던 힘이나 활력을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문슨 형제님과 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벤슨 대관장님의 보좌로서 교회의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대관장님보다 앞서려고 하거나, 오랫동안 지켜온 교회 지침을 대관장님께 알리지 않거나 그분의 승낙없이 변경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문슨 부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친해왔으며, 여러 직책에서 같이 봉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언을 하고 함께 숙고하였으며,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대관장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벤슨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자주 기도하며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는 그분을



대의 방문자

사랑하며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이사도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고 그분들의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십이사도 여러분의 조인과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는 대관장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만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주님께서 대관장님을 조직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며, 저희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를 바라며 또한 참으로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봉사하고 있으며,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애에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저는 사랑하는 구세주 앞에서 저의 청지기 부름에 대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때에 변명할 일이 생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완전한 인간이 못되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였고 만방에 있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였으며, 예언자요, 선견자 계시자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대관장님의 종으로서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같이 보좌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더욱 충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몰몬은 “더욱 훌륭함”을 의미해야 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감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별명이 매우 명예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아침 돌아가신 전 유타 주지사인 스코트 매디슨 씨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분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이 슬픔에 잠긴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전세계의 수많은 교회 건물에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모여 이 모임을 지켜 보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저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거의 15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개척자로서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은, 이 곳 계곡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소망에 따라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하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지닌 교회의 회원으로서 모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과 대중 매체에서 교회의 올바른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몰몬 교회”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6개월 전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님께서 교회의 올바른 명칭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손수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성 115 : 4)

그리고 그분은 그 이름의 여러 가지 요소에 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몰몬 교회는 물론 별명입니다. 별명은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소년과 그의 이름에 관한 동시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나를 윌리엄이라고 부르시고
누이는 나를 윌이라 부르며
어머니는 나를 윌리라 부르시죠.
그러나 친구들은 나를 빌이라 부르죠.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가 노력하든 안하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완전하고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몰몬이란 낱말이 짧아서 읽고 쓰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몰몬, 몰몬 교회 등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 정도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50여년 전,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한 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몰몬이란 말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저는 그런 시도를 포기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이름이 담긴 교회의 회원이 된 특권에 대해 고마움 느끼고 있으므로 몰몬이란 별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하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파생어로서 매우 명예로운 이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몰몬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누가 제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저는 조용히 ‘몰몬(Mormon)은 더욱 훌륭함(more good)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해 주지요.”(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43년에 처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임즈 앤드 시즌즈, 4 : 19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84쪽 참조.)

몰몬은 더욱 훌륭함을 의미한다는 그의 말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더욱 훌륭함”이란 말이 몰몬이란 낱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했으므로 그 두 가지 언어에서 상당히 많은 영어가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더욱 훌륭함이 몰몬에서 파생된 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흥미있는 인식에 바탕을 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삶은 생각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그

이후 저는 신문이나 잡지, 책 등 어느 대중 매체에서나 우리를 묘사하는 데 '물몬'이라는 낱말이 사용된 것을 볼 때마다 이제는 저의 좌우명이 된 "물몬은 더욱 훌륭한 의미를 의미한다."는 그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별명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것에 더욱 광택을 더하여 빛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조국을 구하려고 분투했던 한 위대한 예언자의 이름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강한 간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책의 이름입니다.

저는 잠시 동안 물몬이라는 분의 위대함과 선함에 관해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주후 4세기에 미대륙에 살았습니다. 그가 열 살난 소년이었을 때 엠마론이라는 역사가는 그를 "착실하며 또한 재치가 있는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물몬서 1:2) 엠마론은 그에게 24세가 되면 그 이전 세대들에 관한 기록을 돌볼 책임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물몬은 어린 시절 이후에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기나긴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조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우는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몬은 나중에 니파이인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백성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도 그들을 저버리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민족은 수십 만 명이 학살되며 멸망당했으며 그는 그 가운데 살아남은 24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갖 것들이 황폐하게 된 광경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가 주의 길을 떠났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서어 팔을 벌려 너희를 맞으시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 (물몬서 6:17)

그는 우리 세대에 경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주님을 길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적들이 생존자들을 찾고 자신의 삶이 곧 끝이 날 것임을 안 그는 우리 세대에 믿음을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살도록 부탁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 (모로나이서 7:47)

예언자요 지도자인 물몬은 그렇게 훌륭한 선한 성품과 능력과 믿음 및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티끌에서 나는 소리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책을 편집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본 수 백만 명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에서 만난 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여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여행하던 중 두 명의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약속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듣기로 동의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별다른 관심없이 선교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은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물몬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적인 사람이며 결코 울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던 것이 마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지금은 성스런

부름을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감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별명이 세상의 구속주에 관해 비할 데 없는 간증을 한 훌륭한 분과 그 책이 부여해 준 매우 명예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물몬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여 물몬을 알게 된 사람 뿐만 아니라 물몬이 수집하여 보존한 이 고귀한 유산을 읽는 사람은 물몬이 명예스럽지 못한 낱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가장 큰 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대 기록을 번역한 분은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교회와 이 세대에 속한 우리에게 우리가 물몬이라고 일컬어질 때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물몬이 진정으로 "더욱 훌륭함"을 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해 줍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세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분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혜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7년전인 1833년에 계시로 받은 건강에 대한 신성한 규율입니다. 이것은 술과 담배, 홍차와 커피를 금하고 있으며 과일과 곡식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말씀을 좀더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 얻게 되는 우리의 축복은 훌륭한 것입니다. 국내 신문들은 최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분교의 의과 대학 교수인 제임스 엔스트롬 박사가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 대상에는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으로서

대제사가 5,231명, 그들의 아내 중 4,61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 연구한 결과, 물몬은 치명적인 암 발생율이 평균 53% 낮으며…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율이 48% 낮고 모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53%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숄트레이크 트리뷴, 1990년 9월 12일)

엔스트롬 박사는 8년에 걸친 연구를 발표하면서 “대단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25세의 물몬 남자는 같은 연령의 보통 미국인 남자보다 11년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같은 책, 사체가 추가됨.)

이 인용문에서 물몬이란 낱말이 “더욱 훌륭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낱말은 더욱 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하며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큰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다 훌륭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며 어린 나이에 죽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진 전문의사이며 이 나라의 훌륭한 대학교 교수인 분이 8년간 연구하여 세상에 발표한 과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물몬은 개인적인 건강이나 공중 보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더욱 훌륭함”을 의미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과 세상의 다른 큰 도시 대부분에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가정의 약화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힘도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힘 역시 각 가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정 생활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교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훌륭한 가정 생활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데서 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정은 또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에 따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훌륭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며 매일 기도드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의하며 생활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교육을 권장하며 자녀들이 서로를 격려해줍니다.

우리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정도에 따라 물몬은 “더욱 훌륭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인애와 상호 존중 및 서로 도움을 줌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43년 나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것인지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몬)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이 기정 사실로 알려져 있다면, 저는 당당히 하늘 앞에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외의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일성도의 권리를 짓밟는 논리는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약소 종파, 즉 만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스스로는 방어하기에 약한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회 정사, 5:498)

지난 일요일, 저는 교회 대학내에 조직된 와드 중 젊은 학생 부부만으로 구성된 한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태어난 두 아기가 그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교회 기록부에 등록될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명의 젊은 아버지가 드린 기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인종이나 종파나 여러 차이점을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축복했습니다. 저는 의학도인 이 젊은 아버지가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심을 일생 동안 지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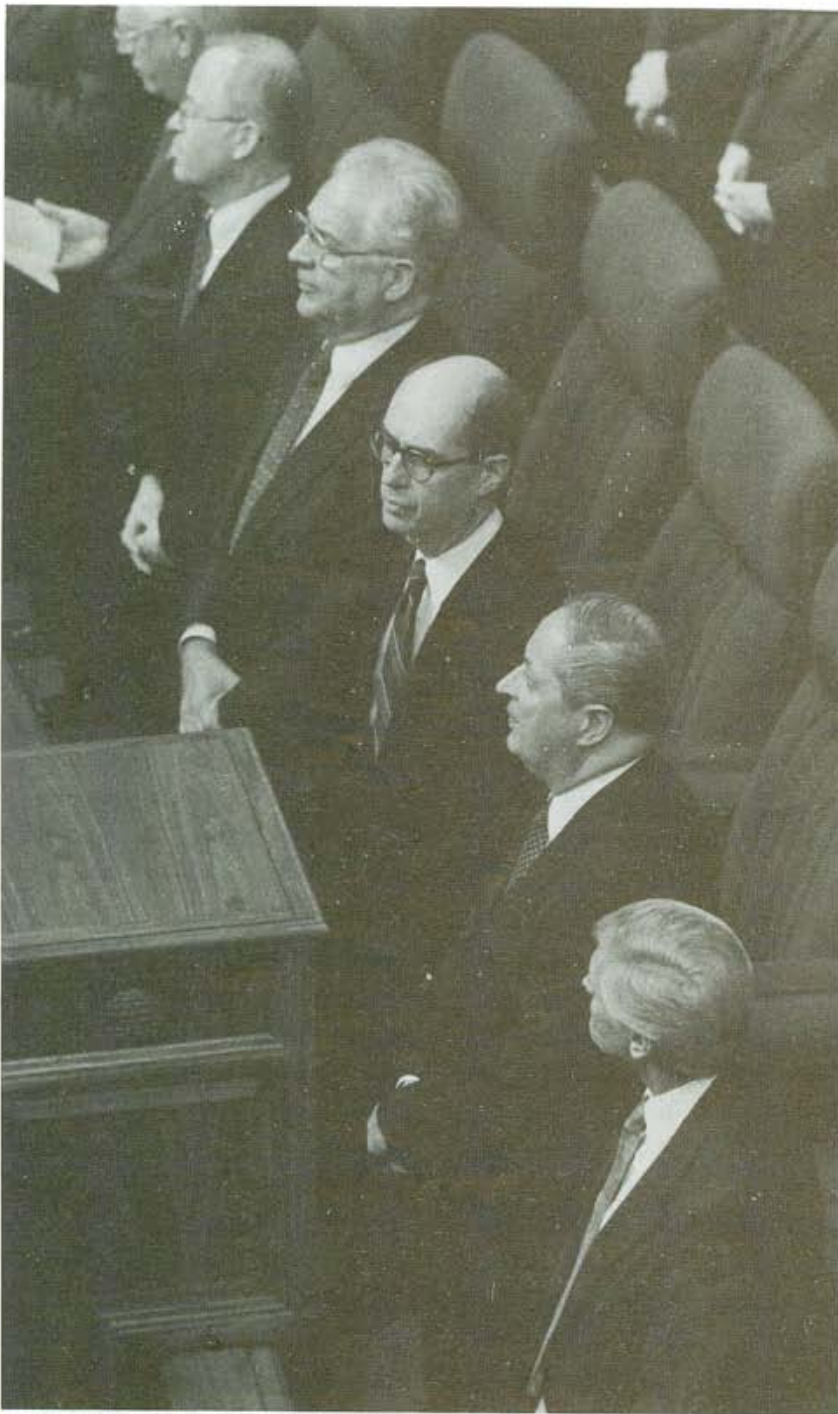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 주거나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주거나 또는 친절함과 감사함을 통해 표현되던 기간에 사랑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교회의 사람들, 이른바 물몬 교회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후하게 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교회 대관장단에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두 끼를 금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그 이상을 헌납하여 교회 회원은 없지만 기근과 고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지역의 집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도록 당부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달러가 점차 모여, 수천, 수십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납된 기금은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구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돈은 대부분 교회 회원들이 후하게 현금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관개 시설을 만들고 농업을 장려한 우리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물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훌륭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저의 주제를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여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자매로 구성된 교회의 상호부조회, 이른바 물몬 상호부조회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회중과 함께 노래하는 총관리 직원들(왼쪽부터): 칠십인 장원회의 존 케이 카머 장관, 조지 알 힐 삼세 장관 그리고 관리 감독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제1보좌),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글렌 엘 케이스 감독(제2보좌)

않는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심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상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힘을 준 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제 뒤에 자리잡고 있는 이 훌륭한 합창단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이라고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불리운 그 노래는 평화와 사랑과 존경 및 겸손을 전해주는 노래였습니다. 이 합창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매우 훌륭한 일을 하여 감사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형제 자매들이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들의 노래를 듣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재능을 나타내 보이며 전능하신 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찬송드리는 훌륭한 자원 봉사 덕택입니다.

이 합창단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물몬이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것의 일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은 개념, 즉 물몬은 “더욱 훌륭함”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평판 있는 경제 잡지인 포춘지 최근호에서는 솔트레이크시티가 미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칭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성실함과 근면과 친절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사도행전 10:38) 구속주의 비할 데 없는 모범을 더욱 가까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가르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존재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들이 우리를 그 책의 이름으로 일컬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물몬이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더욱 훌륭한 것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성전과 성전 사업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 질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



성전은 지상에서 구원과 하나님 왕국의 승영에 관련된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되는 가장 성스러운 예배 장소입니다. 성전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집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며, 주님이 오시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권의 축복을 베풀고 계시를 주시는 곳입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께 바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장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니파이 백성은 성스러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와 나부에 주님의 집을 지었고 그 후 예언자들은 전세계 여러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 가운데 계획되고 건축되었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참된 복음이 신성함을 알려 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은 집 안에서 의식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 씨앗이 내게 가납되겠느냐? 이 일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여 창세 이전부터 숨겨온 이 의식들을 들어내게 하였느니라.”(교성 124 : 37~38)

말일성도들은 창세부터 계시되어 왔으며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더욱 알기 쉽게 우리에게 계시로서 다시 알게 해 주신 이러한 지식에 영원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의 사도이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이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 : 21; 교성 121 : 26~32 참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위해 이러한 회복된 교리 중 하나인

전세에 관해 더욱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세에서 있었던 일과 그것이 현재 우리의 존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세에 관한 지식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전세에서 천국 회의가 열렸으며 거기서 제안된 계획에 대해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구원의 계획의 끝자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통해 각 사람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전세에서 부여된 지상 생활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든 아들과 딸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해 우리가 동의한 계약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세에서 천국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한 계획을 제안하셨고 우리는 그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그 계획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업과 구세주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전능하신 분과 함께 일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윌소 장로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의에 따라 우리는 인류에 대해 매우 책임이 무거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에 따라 주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는 모두 수많은 영들에게 구원을 주는 위대한 계획에 헌신하는 시온산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청하신 때문이며 이 위대한 사업은 그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동의한 인간의 책임이며 우리의 큰 기쁨이며 사업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광입니다.”(“영혼의 가치”, 유타 계보 및 역사 잡지, 1934년 10월, 189쪽)

말일성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동반자가 되기로 전세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대판장단은 교회의 사명 중의 하나로 교회 회원의 주요 임무가 되는 것은 죽은 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우리는 공복과 금식을 행하여 왕국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에 관해 이보다 더 강조된 말씀을 찾지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트리는 공베드러, 야코브, 요한의 손으로 벨기에 신권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위 각을 데 모든 의식이 준행되기를 위하여는"(교정 4: 211)에 언약 엘리야가 특별한 열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인본의 권능과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엘리야가 후계자를 올리버를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버위 마음을 말씀할 장년에게로 돌이키게 할 말라야 공 드" 4 : 5-6)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 세대에 있는 조상의 마음은 조상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일은 죽은 조상에 관한 자료를 모아 주님의 집에서 의식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 자들이 조상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창세 이전에 전세계에서의 맺은 계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공복 금식과 금식과 금식

엘리야와 커틀랜드 성전 방문은 여러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복 금식과 금식, (말일에, 엘리야가 오사리라는 유예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둘째,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트리의 간증은 차츰차츰 초음파 혼돈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없이는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책,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상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권고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은 1836년에 엘리야가 오신 후 계보 자료를 수집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1844년에 뉴 잉글랜드 역사 및 계보 협회가 조직되었고 1869년에는 뉴욕 계보

및 일대기 협회가 계보 수집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엘리아의 영"은 이 중요한 사업을 통해 교회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드는 작업을 세계 전지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로스 알 맥콩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브룩 하우스, 1954년 56년, 총 122-28 참조.)

올리버 카우트리는 엘리야가 약속한 것과 같이 엘리야와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올곧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엘리야께서 잔차에 오셔서 오사리로 문을 열어 주시리라. (이) 공복 금식과 금식과 금식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집에 서 엘리야가 돌아오시도록 노력할 때 1836년 4월 3일 18월이었습시다. 그러다가 1836년 4월 3일 엘리야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인 가정에서 의지 할 커틀랜드에 갔다. 주님의 집으로 내려가서 사도들의 영지를 주셨습시다. (1936년 4월 연회 대회) 유예인자 요셉은 어느 지대에나 유대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집합하는 추환 목적은 "주님의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의의 집의 의식과 그의 왕국의 영광을 감화시키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안책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1쪽)

성경의 예언이 알려 주는 것은 목숨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성전 건축과 의식의 집행을 포함하는 과거 경륜의 시대와 모든 원리와 절차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 3장; 마가 4: 1-2, 사도행전 3 : 19-21; 에베소서 1 : 9-10 참조.)

한 말일의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기도 했고 약해지기도 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이람 엠 스미스 및 잔 엠 쇼달, 교리와 성약 주해,

우리는 사랑하는 예언자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호명할 때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동반자 폴라 자매님은 매주 금요일 시간을 내어 주님의 집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성전에 참석할 수 있는 데도 가지 않는 회원들은 스스로 풍성한 축복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무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정 130 : 20-21)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원 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원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황화은은 제창에서 그 환희의 유익을 얻으리라." (교정 130: 18-19)

어두운 창구를 따서 후회 치는 모든 회원들에게 해의 왕국의 영광으로 향하는 신앙을 강화시키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간섭을 새로이 하도록 부원 권고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조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책임은 우리의 조상을 찾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타프즈 핸드 북, 5 : 616)

저는 제가 이 경륜의 시대에 살며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의 (교정 1 : 30) 회원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저의 조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즉 계보 조사 및 성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사를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멀리해서는 안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44개의 성전에서 성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러한 책임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교성 38 : 32)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교회의 합당한 회원에게 가르침과 간증과 깨달음의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우리가 참여할 때 진리를 강건케 하고 확신케 하는 지식을 줍니다.

셋째, 우리는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아야 합니다. (교성 124 : 36 참조.)

우리가 주님의 집에 받을 내딛는 순간 세상적인 곳에서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주위 상황이 바뀝니다. 그곳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떠난 휴식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화평한 마음과 영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피난하며 우리의 영적인 복리를 해치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이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 23)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째, 우리는 **제식을 받아야 합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걱정과 근심에 싸인 채 농장, 사무실, 집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주님의 집에서 자신의 문제를 더욱 훌륭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과 조상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한다면 앞서 가신 조상에게 큰 축복을 주게 될 것이며 그에게도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고통을 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전 안이나 밖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계시로서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합당하게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성전 예배”, 유타 계보 및 역사 잡지, 1921년 4월호, 63~64쪽)



대회 방문자

계시는 엔다우먼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제보 및 성전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죽은 친척들을 위한 그 일을 소홀히 하는 정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정사, 4 : 426)

여섯째, 우리는 **시온산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시온산의 구원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모든 의식을 받으며 머리 위에 성임과 인봉의 권세를 받고... 죽은 모든 조상을 위한 일을 하여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나와 영광의 보좌에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구속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상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 주는 고리가 있으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합니다.”(교회 정사, 6 : 184)

일곱째,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커틀랜드에서 주님은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받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교성 97 : 15~16)

구세주를 실제로 본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을 보면 “보다”라는 낱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그분을 알게 되고 분별하며 그분의 사업을 인식하고 그분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그분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가르침과 축복은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권세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임을 그분의 성스런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고든 비 영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벨슨 대관장



토머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디블류 윈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케이 해러슨



앨 롱 페리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닉 에이 맥스웰



러셀 영 넬슨



앨런 에이지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웨스턴



리차드 저 스포트

칠십인 회장단



뒤셀 러슨



에리온 디 렉스



로버트 셀 백던



제임스 앤 웨리모어



케이 리처드 클러크



레스 다 그레이가



캄보스 이 에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안형 아브레아



정원회 알 브래드포드



태드 이 브루어



에프 앤지오 부지



준 케이 카워



칼로스 에이치 아미도케이치



필립 알 브래드포드



에유와드 아알라



벤자민 비 벨크스



존트 제이 브러프



조지 아이 캐년



앨버트 클즈 이세



조제이 크리스티슨



진 알 록



태릭 에이 케스버트



아쿰 디아가



왕스 디테이



스캇시 제이 쏘디



레그랜드 알 커티스



클린톤 쉐 커롤리 포머트



앤드루 쉐인 바호



로이드 피 조오지



프렙시스 쉐 기빈크



에프 앨빈 하몬드



모턴 시 딘



본 제이 페디스토운



켄 에이치 그로버그



다블류 유진 헨슨



에드니 와이 고마조



조지 알 힘 3세



해롤드 지 힐렐



멜롬 셋 벨슨



케네스 존슨



앨 리오넬 펜드릭



존 알 라스터



리차드 피 윈저



제프리 알 홀린드



에프 버논 하워드



말린 제이 쉐슨



요시히코 기구베



윌리엄 알 리버트



가드너 에이치 러셀



더글러스 케이 마블



윌베시오 마넨스



제럴드 이 벨킨



린 에이 미클슨



임탁산디 비 모리슨



셸 알론 포터



에이치 버크 피터슨



휴 더블류 피츠크



토날드 이 포울먼



하프만 맥터 이세



윈스 비 랭거



클렌 엘 버드



이세크리



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린 에이 소렌슨



포레이쇼 에이 네노리오



케이 벨라드 워시먼



다릴 에이 울저

칠십인 제이 정원회



다릴 에이 울저



다릴 에이 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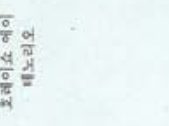
다릴 에이 울저



다릴 에이 울저



다릴 에이 울저



다릴 에이 울저



다릴 에이 울저

관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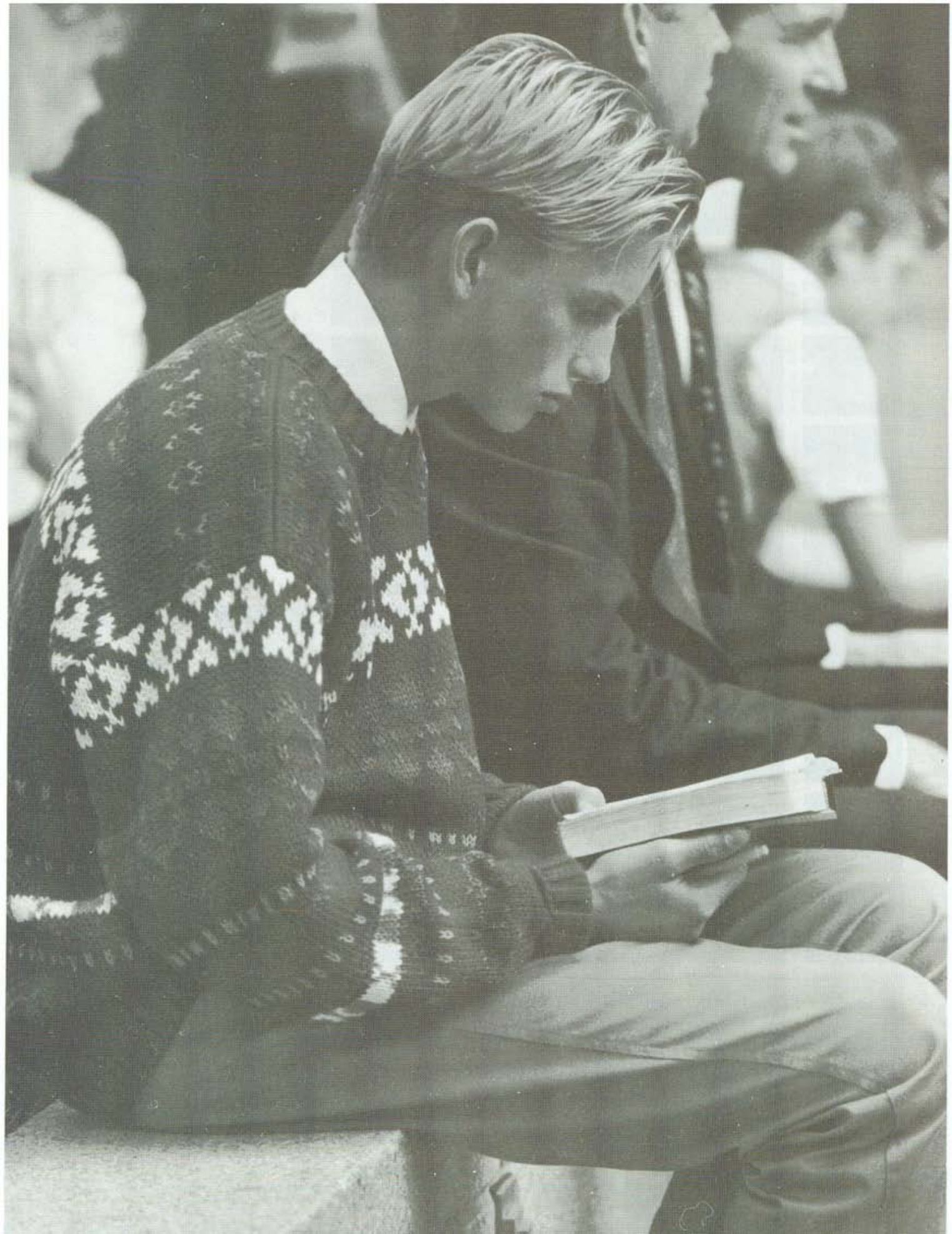
헨리 비 아이어링



포버트 디 해일즈



클렌 엘 페이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많은 증인

제임스 엠 패러모어 장로
철심인 정원희

“우리는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증인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과 주님의 방법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몇 마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텍사스로 여행하던 중 매우 훌륭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썼던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켄 형제님께,
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긴 토론에 덧붙여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내는 편지와 교회에 관한 자료들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형제님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고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싶어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온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를 그분께 인도해 주는 여러 증인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기쁨과 열의를 갖고 부르게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함께 일어나 다 찬송부르세”(찬송가, 130장) 이렇게 영원하고도 성스럽기까지한 노랫말은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알려 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 차례 세상에 오신 일과 주님의 증인에 관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의 중심되는 분이셨습니다. 그 계획이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매일 헌신하며,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길을 확립하고, 갯세마네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후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희망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려 하였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길과 진리와 빛을 전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인간의 모든 소망에 빛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이며 내 운명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주님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분에 관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증인을 통하여 주님과 주님의 방법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증인들은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지침 즉 표준인 계명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이 지상 생활을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경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알려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이사야 7:14) “그 어깨에는 정사를”(이사야 9:6) 메리라고 예언했으며 나중에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며 “만물을 지은 구주자”라고 말씀했습니다.(이사야 40:28; 44:24; 40-45장 참조)

예레미야, 스가랴, 욥, 모세 및 그의 여러 예언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려고 오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간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간증을 남겼습니다.

켄 형제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도 잘 모르면서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 지상에 오실 날이 왔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전후로 많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분이야말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하늘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성역을 베푸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예언자로 인정해주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고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세, 즉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신이 보혜사로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안내해주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보여줄 것이며 주님을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16장 참조)

주님은 또한 사도와 예언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부르시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피난처로서 교회를 세우시어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분과 그분의 진리에 관해 배우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해 읽으면 그 심오한 영향을 받아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경이감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몇 개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으로 수천 명을 여러 차례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형제님과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마지막 증거로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죄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 며칠 후 무덤이 열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불멸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 계시며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때에도 여러 증인이 있었습니다. 신약전서에 있는 기록은 그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많은 증인에 관해 알려 줍니다. 이 기록은 또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계명, 지침, 표준 및 의식을 제시해줍니다.

켄 형제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그분은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있는 다른 양들을 방문하셔서 팔레스타인에서 하신 것처럼 여러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11) “보라 나는 [미대륙에서 살던 예언자들을 포함한]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10절)” 그분은 그들 가운데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신권과 침례 의식을 주셨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언자와 사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으며 그분의 업적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켄 형제님, 그분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며칠 동안의 기록은 물론경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은 구세주의 가르침과 권세에 큰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200년 이상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며 그분의 축복을 받게 하신 그 권세에 대한 영원한 증거입니다. 매우 특별한 증인인 물론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들이… 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주께서 주신 계명을 좇아 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니파이삼서 2, 12, 16, 15) 켄 형제님, 예수님은 그 짧은 지상 생활 중에도 참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결국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교회를 변경시켰으며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20년 예수님은 요셉 스미스 이세라는 한 젊은이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에 응답하여 이 생과 저 세상을 가른 장막을 다시 걷으시고 다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신약전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두 분이 나타나셔서 그의 머리 위 공중에 서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젊은이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여러 증인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요셉 스미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세우신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시대나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처럼, 또 그분이 부활하신 후 미대륙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주님은 여러 증인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과 진리에 대한 증인을 마련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으로서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따르며 알고 증거하는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켄 형제님, 여러 해 전 서기 2000년에 관하여 어느 작가는 한 신문사로부터 이런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질문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으며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일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다면 우리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켄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면전을 떠나 잠시 이 세상에 오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합당함을 증명하며, 구세주를 찾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런 증인을 찾아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험난해져가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며 그분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증인이 되어 결국 언젠가는 영광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켄 형제님, 그 여행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신약전서와 구약전서를 포함하여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예언자와 사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곧고 좁은 길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죄는 순수하게 시작된 행동으로 부터 비롯된 수도 있으며 적절하게 행한다면 합당한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를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 등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날 저녁에 저와 제 아내는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있었는데 길의 앞이나 좌우를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차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차선을 지킨 것이 우리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거나 한쪽 깊은 계곡으로 빠지거나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차선을 이리 저리 바꾸었다라면 매우 위험한 경우를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만일 차선을 바꾼다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차선을 벗어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다면 차선을 확실히 지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산길을 운전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신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13~14)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현대에도 계시를 통하여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승영과 생명의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이를 찾는 이가 적나니”(교리와 성약 132:22)

요시아는 유다 왕국의 의로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8살에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성경에는 그가 어린 소년에 불과하였으나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2)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걸지 아니하시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고치시지도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곧고 그 나아가시는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교리와 성약 3:2)

구세주께서 이 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살아계신 예언자의 가르침을 자기 편의대로 따르고 회생과 확고한 결심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신성한 가르침들이 단지 자신의 고정 관념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끌 만한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자는데 있습니다. 죄는 순수하게 시작된 행동으로 부터 비롯될 수도 있으며 적절하게 행한다면 합당한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를 끌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그 한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직접 가던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하여 운동 경기를 즐겨 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멋진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다보면 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신과 영은 우리가 끈고 좁은 길을 계속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이 담긴 원리”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의 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현대 의학을 통해서도 그 진실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9편 창조) 지혜의 말씀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계명은 영적인 것이며(교리와 성약 29:34~35 참조), 우리는 육체적인 영양분 이상으로 영적인 영양분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활동은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이나 건전치 못한 영화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런 것에 써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저속한 말과 부도덕한 행위 및 외면적인 것이나 폭력적인 오락물을 보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이탈하도록 하는 또 다른



대회 방문자

유혹은 물질적인 소유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필요 이상의 아름답고 큰 집을 짓는 다거나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집을 장식하고 가구를 사며 정원을 가꾸는 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만큼 충분히 축복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나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는 데 사용할 물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예언자 야곱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버리지 말고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니파이서 9:51) 그리고 더욱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중 몇몇은 너희들의 형제들보다 더 풍성하게 얻었다 하여 마음에 교만이 부풀어 올라 치장한 값비싼 의복을 구실로 목을 곧게 세우고 개를 치켜들며, 저희가 저희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라 생각하여 동료들 폄박하노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 하실 줄 아느냐?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주는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요, ... 너희는 이러한 모든 일이 온갖 육신을 창조하신 이 앞에 가증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인이 하나같이

귀하여”(야곱서 2:13~14, 21)

마치 질병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치듯이 겸손과 반대인 자만과 허영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파괴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일찍부터 모든 계명을 지킨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고 여주자 세상적인 재물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자신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지를 묻자,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9:16~22 참조) 우리 중 몇이나 이 시험을 통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납의 율법에 따라 살기로 성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 주신 풍성한 축복을 이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것에 연연하는 마음과 자만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경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많은 사람들의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어

끝은 길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 : 35)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또한 여러분이
안전한 선에서 벗어나 부도덕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예언자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바로 이 단상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되고
있는 죄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침투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회보고, 1986년 4월,
4쪽)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의 파탄과
그로 인한 슬픔 또한 부도덕성이 정말로
중대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회원들에게
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일을 행하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에스라 태프트 벤슨,
뉴이라, 1986년 6월 6쪽)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구별을 불문하고 도덕적인 탈선을
위해 단 한 발을 헛디디는 것은 마치
엄청난 산불을 일으키는 불똥과
같습니다. 올해 어느 무덥고 바람불던
여름날 유타주 미드웨이의 작은
캠프촌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산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불길이 잡히게 되기까지 두 훌륭한
회원의 목숨이 희생되었으며, 활활
타오르던 불은 아름답던 가을 단풍과
18채의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순간적인
방심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성실성에도
그와 비슷한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불온한 사고의 불똥이 마음에 튀어
들어와서는 영혼의 도덕이라는 직물에
불을 당겨서 이를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끈고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되풀이 하여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경전 연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며 매일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부 상호부조회, 청년 및 초등협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자매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음.

쇠막대기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니파이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해석해
주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부친이
보신 바, 그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저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같은 창도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눈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15 : 23~24)

바꿔 말해서 니파이는 난간에 매달리듯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매달린다면 유혹을
피할 수 있으며 길을 잃고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작가 또한 적절한 상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 : 105)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 주는 빛이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쇠막대기이자 난간이며,
또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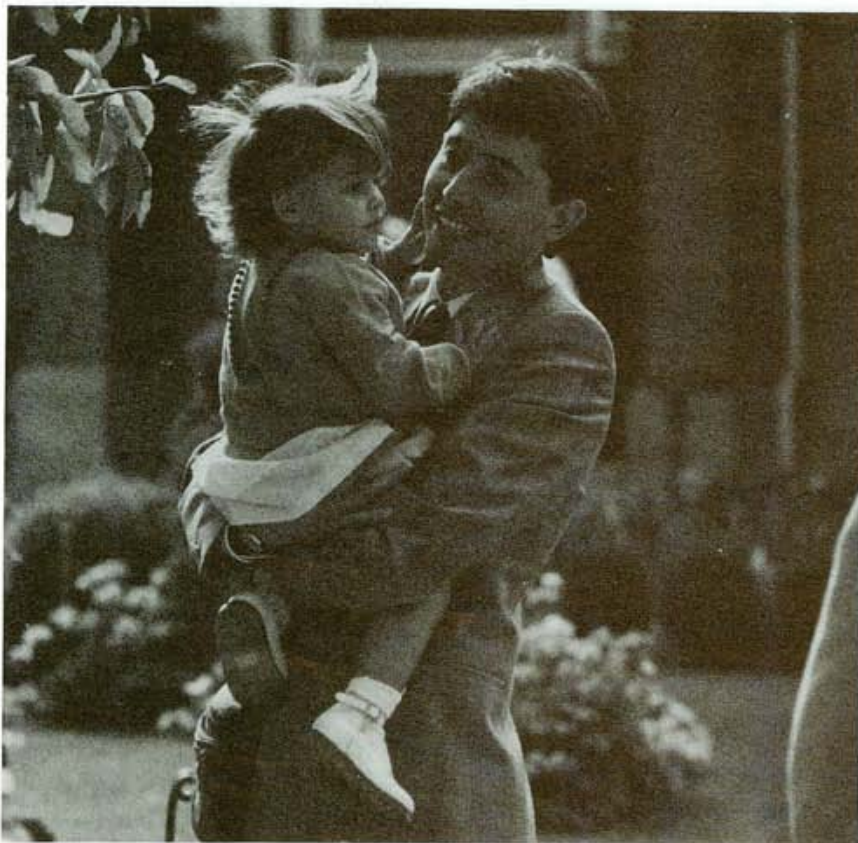
벗어나서는 안 될 제한선을 뜻합니다.

매일 경전 및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명수나
생명의 나무로 인도합니다. (니파이일서
11 : 25)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잠언 3 : 6) 우리는 매일
개별적으로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또한 우리와 주님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진실하게 최소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의로운 이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이웃에게 베푸는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대회 방문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 : 34~40)

베냐민왕도 같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모사이아서 2 : 17)

기도하실 때에 가끔씩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는 주님이 아시듯 자신이 어떤 면에서 더 발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갖추었다면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주님 앞에 합당합니까? 기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며 회개하고 곧고 좁은 길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합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바르게 지킨다면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 및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인 영생, 다시 말해 해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은 “지상 생활이 끝나고 모든 것이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만이 온 생애 동안 전력으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임을 더욱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연차 대회 1949년 10월)

물론경의 예언자 야곱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주께로 나아가 주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사람 앞에 바르게 놓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니파이서서 9 : 41)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열매를 향유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킵시다. 우리 모두가 곧고 좁은 길을 염두에 두고 폭풍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그 선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합시다. 경전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봉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더 중한 바”(마태복음 23 : 23)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한 예언자이며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잊을 수 없는 날

토마스 에스 몬슨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캐나다 동부 지역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성전을 중앙에 세운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1990년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지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잠시 멈추어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오월에 저는 아내와 함께 역사적인 도시 베를린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베를린 장벽으로 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우리에게 “갈 수 없어요. 벽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된 베를린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응시하면서 장벽이 무너진 뒤에 생긴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폴란드에 새로운 선교부가 생겼고 헝가리와 그리이스에도 생겼으며,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선교부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레닌그라드 지부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마태복음 24:14) 우리가 참되게 볼 수 있는 눈과 알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의도는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말에 있었던 또 다른 훌륭한 축복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서 주님의 장엄한 성전이 헌납된 것입니다. 그 성전의 찬란한 빛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오라! 주님의 집으로 오라. 지친 자는 이곳에서 안식과 영혼의 평화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의 내부 구조와 건축 목적과 성전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설명해 주는 일반 공개실을 경건하고 조용히 둘러 보았습니다. 한 방문자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곳은 평화의 중심지군요.”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한 동양 소녀는 성전을 떠나면서 “엄마, 여긴 너무 아름다워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나요?”라고 물어 안내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충실한 성도들이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성전 구역에 속해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캐나다의 해안 지방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석을 놓는 것을 지켜보는 한 어린

소년이 교회 지도자의 영감에 따라 삼을 잡고 초석을 인봉하는 일을 돕도록 지명받기도 했습니다.

아작스 온타리오 병원에 4년째 입원하고 있던 도라 발렌시아 자매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해의 왕국실까지 병원 침대로 운반된 그 자매는 그곳에 임한 영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매 역시 더 강한 영적인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방을 떠나려고 그 자매결을 지나칠 때 저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자매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고 그 자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의 찬사와 같은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은 영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회중이 합창단과 함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회자는 토론토 지역의 교회 역사를 낭독했으며 평화로운 가운데 아름다운 헌납 기도가 바쳐졌습니다. 언젠가 올리버 카우드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한 말이 그 헌납식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성전을 중앙에 세운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1830년 4월 초순에 피니스 영 형제는 예언자의 동생인 사무엘 스미스에게서 물몬경을 받았으며 몇 달 후에는 캐나다 북부로 떠났습니다. 미국의 경계선을 벗어난 지역인 킹스톤에서 그는 처음으로 회복된 교회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1833년에 예언자 요셉은 시드니 리그돈 프리맨 니커슨과 함께 온타리오주 브랜트포드와 프레즈트 산에 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시드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0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너희 곧

답의 친구 셔드니와 요셉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저들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오이
[3절]의 주위의 자역에 나는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동쪽 땅
주변의 지역에 효과적한 전도와 문야
열려야 하느니라. [11-3절]의
애연자는 주님의 그와 셔드니
라그돈에게 나타나 보여 주셨던 똑같은
느낌을 [그 사람들에게서] 받았습니
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하여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친절하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간증을 그들 마음속에 인봉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정사 1:422-423]

1836년에 팔리 파 프렛은 허바 시
김볼을 통해 주어진 위대한 예언에 따라
캐나다의 토론토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복음이
그곳에 접두된 시작해서 위대한 일
성취될 열망까지 퍼져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토론토에서 존 테일러
대관장과 윌딩 가족 및 다른 많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37년 8월에 요셉
스미스는 셔드니 라그돈과 당시 12사도
정원회 회장인 토마스 파쉬와 함께
토론토로 갔습니다. 마차 안에서 쫓돌을
켜고 저녁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테일러 장로님은 그분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분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척
즐거워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가르침을 들으며
예언자 요셉에게서 끊임없이 나오는
풍족한 지혜를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회상해 볼 때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라는 부름을 받은 존 이
페이지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존 이
페이지 형제는 “요셉 형제님, 그렇지만
전 캐나다로 갈 수 없어요. 입고 갈



관리 감독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제1보좌), 로버트 디 웨일즈 감독, 글렌 웨 페이스 감독(제2보좌)

코트도 한 벌 없거든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벗이 주면서 “자, 이것을 입으세요.
주님이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이 페이지는 교회의 장로로서
1836년 5월 31일 그의 첫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하이오주 케틀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캐나다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8,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거의
걸어서 여행했으며 600여 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개종했던 훌륭한 가족 중
에 아치볼트 가드너 가족도
속합니다.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1843년도에 캐나다에서 그 가족이
경험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가드너는 그들이 침례받던 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2.5킬로
미터 숲속을 걸어 들어가 적당한 냇물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46센티미터나
되는 두꺼운 얼음을 깨고 구멍을
냈습니다. 저의 형인 윌리엄이 저를
침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냇물
옆에 있는 한 통나무 위에 앉아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느낀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같은
마음으로 저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치 못한 점이
없도록 무척 조심했습니다. 시간이
때마다 저는 경건을 공부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물영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물영천을
설명해주는 좋은 구절이 눈에 띄면 그
페이지를 접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곧
거의 모든 페이지를 접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접을만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영천을 믿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영천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책이 참되다는 불타는
간증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아치볼트 가드너는 다음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 들으신 후 바로 복음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신앙에
접한지 얼마 안되어 매우 큰 병에
걸리셔서 곧 돌아가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어머니를 물 속에 넣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머니를 이불로 따뜻하게 감싼 후

절매를 5킬로미터를 끌어 침례할 곳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모셔졌습니다. 침대가 준비되었으나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했습니다. '아나, 난 필요가 없단다. 난 거든해.' 어머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든해졌습니다." (네릴라 지 휴수, 아치블드 가드너의 생애, 드래퍼, 유다, 리뷰 앤드 프리뷰 출판사, 1970년, 25~27쪽)

오랜 세월이 걸쳐 아같은 신앙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저희 가족은 제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게 된 토론토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지역 성도들에게 쏟으신 사랑을 보아 온 증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날드 메이비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메이비 형제는 회사일로 전근이 되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온타리오주 노스베이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장로신권 소유자였지만 신권 부름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 정도였으며, 그에게는 사랑스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스베이 지부에는 신관 지도자가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부를 방문하여 이런 점을 알고서 메이비 형제를 접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지부장단에서 봉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고 저는 '왜 그렇지요?' 라고 물음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때 인기있던 노래의 가사 중에 있으며 그의 성이기도 한 메이비(아마)란 말에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메이비 형제는 승낙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대제사이며 서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가족도 모두 성전에 들어가 성전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신앙의 증거는 제가 토론토에서 19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저희 선교부내의 세인트 토마스 지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성찬식에 초대되어 말씀 부탁을 받았습니다. 멋진 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 건물 중 어느 것이 우리 교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해 받은 주소를 찾은 후 우리는 그 지부가 남아있는 작은 건물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부는 그 건물의 지하실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약 25명의 회원 중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임을 진행하고 성찬을 축복하며 전달하고 가도를 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어빙 윌슨 지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저에게 열차인의 전신인 임프러브먼트 이라 한 권을 권해 주었습니다. 윌슨 지부장은 그 책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새로운 건물들 하리키면서 "우리로서 제인트 토마스에 이런 건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깨소키으며, "충분한 수요가 있었건 축을 위한 계획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불명확한 건물에 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건물을 찾기 위해서는 집일조와 기타 현금은 물론이고 부제와 천불 비용의 30퍼센트를 지역 회원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윌슨 지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건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회원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우정 증진과 복음 토론토로 회원 수를 늘리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담긴 커다란 신앙과 노력의 결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윌슨 지부장은 여섯 명의 선교사들을

세인트 토마스 지부에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 선교사들을 자신의 작은 요청을 뒷받침으로 불러들여 그곳에서 함께 부름을 받고 가도를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 창로에게 협상 회에 있는 직원들과 전화 번호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윌슨 지부장은 약속을 본에 회로 말했다. "세인트 토마스에 주위와 꿈꾸던 천불을 가져려면 건물일 설계할 생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본이 그 건축가가 없으니 부단간 개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건축가들의 이름을 뵈나서 찾아와서 어렵게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초대해쳐 회부의 해체자를 돌려볼 차림은 회로 사람이입니다." 도널드 윌슨은 "이월준지부장은 신와 같은 방법으로 배관공, 전기기사 등 모든 부분에 필요한 기술자를 찾았습니까? 관할이 할 집한 건물을 만들자 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직업도 카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온 그의 집으로 초대되어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천리를 배우고 간증을 얻어 마침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제로 칭대본은 모든 알은 방법으로 매수, 해탈과 복음을 불을 다른 시험을 하였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지부는 출발해 성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 언었고 아름다운 건물에 건축되어 영감받은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드스 지부는 지금 시온의 천혜에서 번성하고 있는 와드가 되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지부 생할 때 수백명의 회원과 수십 명의 가족 회원과 작은 건물 지하실에서 작은 수회 회원들과 갖던 성찬식의 추억이 생각나며" 부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다른 성전들도 토론토 성전과 같이 돌과 유리와 나무와 쇠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신앙의 결실과 희생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 기금은 십일조와 가난한

과부의 돈과 어린이들의 푼돈과
노동자들의 푼돈에서 나온 것으로써
신앙으로 성별될 것입니다.

성전 헌납식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온타리오주 킹스톤시의 구스타프와
마가렛 웨커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는
킹스톤 지부의 지부장이었습니다.
웨커는 유럽에서 왔으며 영어를 특이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발사로 일했기 때문에 킹스톤시의
조그만 지역에서 머리를 깎아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기쁜 날은
선교사들의 머리를 깎을 때였습니다.
그는 결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돈을 내려고 하면 그는 “아,
안됩니다. 주님의 종의 머리를 깎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그날 받은 모든
돈을 선교사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킹스톤에는 비가 자주 오는데 그런
날이면 웨커 지부장은 선교사들을 택시에
태워 아파트로 보내고 자신은 하루가
저물 때 작은 가게 문을 닫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구스타프 웨커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상 수입보다 훨씬 많은
십일조를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분의 일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스구에 경이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의
삼분의 일을 바쳤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이한 십일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구스타프와 마가렛 웨커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갖는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교회의 많은
회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오타와에서 온 한 박식한
교회 지도자는 “저는 그 가정을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좀더 가까이 살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라고 제게



남미 남 지역 회장인 아담 디아가 장로(중앙), 태평양 지역 회장단의 로이드 피 장로(우), 칠십인
정원회의 맬콤 에스 겐슨 장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영화롭게 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부는 번성했습니다.
회원 수가 빌려쓰던 건물에 비해 너무
많아 그들은 많은 것을 헌납해서 얻은
킹스톤시의 아름다운 건물인 사랑스런
현대식 건물로 옮겼습니다. 웨커 부부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고향인 독일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워싱턴 디스에서
성전 선교사로서 봉사했습니다. 1983년에
지상에서의 그의 선교 사업은 끝을 맺어
구스타프 웨커 형제는 워싱턴 성전에서
하얀 성전복을 입고 영원한 동반자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론토 성전 헌납식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머리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표하는 각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눈에 띄며 또한 그리이스와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에스파니아와
폴란드에서 온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토론토는 주님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신 약속의
실례입니다. 이 예언은 토론토라 불리는
시온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말씀은 주님이
모으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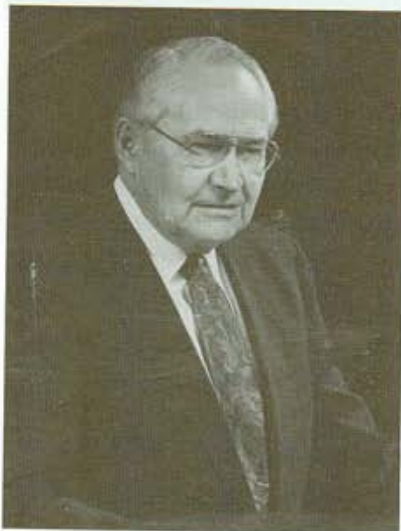
헌납식을 끝내고 토론토를 떠날 준비를
하며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파스한 보살핌과
풍성한 축복과 ‘잇을 수 없는 날’을 주신
것에 대해 은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며, 빛나는 하얀 성전 첨탑에는
금으로 입혀진 모로나이 천사 상이
있습니다. 저는 날씨가 좋은 때에 32미터
정도의 그 높이에서 구모라로 가는 모든
길을 볼 수 있다고 들은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모로나이의 손에
들린 나팔이 눈에 뜨였습니다. 그는
구모라로 가는 길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토론토 성전은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가족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집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길찌니”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영광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더럽힘을 받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따라서 나의
영광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나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97 : 15~17)

저는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은 흔히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도,
즉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과
경배의 태도라는 측면에서의 경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한 태도
뒤에는 의당 경건한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먼저 키워
나가야 할 것은 경건한 태도입니다.
경건한 태도를 배제한 경건한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간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기에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선함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영예를 받기 위해서만 걸음으로
경건을 나타낼 뿐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영광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겨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히 12 : 28)

엘마 이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경건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여

줍니다. 젊어서 그는 죄와 세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회개하라 명하였을 때,
그는 너무도 놀라 병어리가 되고 힘이
진하여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밤낮이 지나서야 사지에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된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주님의 속죄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마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모사이야서 27장 29절에서, 엘마는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쓴 잔에서
구함을 얻으며 죄의 사슬에서
속죄되었도다. 내가 지극히 암담한
심연에 거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보았고, 나의 영혼이
영원한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이제 구제되어 나의 영혼이 괴로움을
모르노라.”(모사이야서 27 : 29)

그리고 나서 우리는 31절을 통해
엘마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깊은
경외심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인이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만인이 저의 혀로 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마지막 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온
자들에게 내릴 영원하신 징계의 심판이
바로 저들 위에 내려질 것을 고백하고,
두려움으로 떨며, 만사를 꿰뚫어 보시는
눈길 속에서 움츠러지리라.”(모사이야서
27 : 31)

엘마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 가장 깊은
존경심과 또한 경배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권세와 위엄을 지니고 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대관장님을 모시고 여러
지역 대회에 두루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 며칠간의 간격으로
열렸음에도 것처럼 대조적이었던 두
대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참석한 지역 대회는 넓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연단에 앉은 우리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움직임에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은 옆에 앉은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기대어 소근거렸습니다. 회원들에게 좋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러한 경건성의 부족을 대회 장소가 넓은 탓으로 돌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또한 한 번 지역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대회 장소 역시 먼저 갔던 대회장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회중석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일반 총회 동안 사람들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경청하였습니다.

청중들은 어느 연사에게나 큰 관심과 존경심을 보였으며, 예언자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그곳 신권 지도자들에게, 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준비는 간단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과 담당 가정 방문 대상 가족들에게 이번 지역 대회에서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된 것이 곧 대회에서의 경건한 행동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저의 감독님으로부터 받았던 값진 교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새로 지은 예배당을 헌납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헌납 기도예 큰 감명을 받았던 우리 감독님은 그 다음 주 화요일 초등학교 시간에 우리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은 새 건물이 예배의 장소로 헌납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오셨던 것입니다.



철심인 정원회의 매리온 디 쉘스 장로, 엘 리오넬 켄트릭 장로, 안셀 아브레아 장로. 켄트릭 장로는 필리핀 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으로 새로 부름받았음.

감독님은 이 새 예배당이 주님께 헌납된 곳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려 우리들에게 건물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홀 뒷쪽을 가리키며 뒷면에 그려진 별집 문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 별집이 초기 개척자들의 근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별은 집에 꿀을 저장하기 위해 언제나 바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벽에 그려진 별집은 매일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져와 안식일 예배를 보며 그것을 서로 나누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앞면 벽에 걸린,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선 개척자들의 모습을 그린 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곳에 들어와 도시를 세우고 처음으로 예배의 집들을 지어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영을 나누고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 개척자들의 희생에 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독님은 또한 개척자의 큰 그림 양쪽에 걸린 다른 두 그림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 주었습니다. 오른쪽의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그린 그림이었고, 왼쪽의 것은 예언자 브리감 영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언자에게 경건한 마음을 품어야 하며 그들의 권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그는 그랜트 대관장님의 여행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가 이곳까지 와서 헌납하고 이 건물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기시는 과정에서 희생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독님은 계속해서 예배당 전체에 둘러있는 문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화살과 달걀 모양이 계속 이어져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양이 선택된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달걀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며, 작은 화살은 생명의 끝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달걀은 우리의 출생과, 이 세상의 삶이 주님의 길에 따라 가르침과 훈련을 받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화살은 필멸에서 불멸로 바뀌는 변화의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감독님은 우리가 합당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축복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여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대관장단 제1보좌)

성찬대였습니다. 그는 성찬의 목적은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구세주의 속죄의 회생을 기억케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헌납된 이 전당에서 우리들 각자가 늘 경건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말씀을 끝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우리 예배당이 헌납되는 것을 보고, 감독님의 안내를 맡아가며 건물을 둘러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경건해야 한다는 데 어려울 것이 없었으니, 주변에는 언제나 주님과 그의 종들, 나를 위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 등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저는 더욱 경건한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자연히 경건한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예배당은 구세주의 사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나 주님을 경배하도록 헌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감독님들은 초등학교 시간과 예배 모임이 중복되는 관계로 저의 감독님처럼 초등학교를 가르쳐 주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따로 남아, 이곳이 주님께 헌납된 특별한 곳으로서, 그 안에서는 오직 경건한 태도와 행동만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 할 때, 그 느낌은 은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상관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경건한 태도를 방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경건한 태도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가정이야말로 경건한 태도에 이르는 열쇠라 할 수 있으니, 어떠한 하나님의 덕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기도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머리를 숙이며, 팔을 모으고, 눈을 감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일상 생활의 혼잡이 집안에서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간에 명상과 가르침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가정 안에서 경건의 표본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가정 생활의 일부가 되는 가정의 밤 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여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행동을 보여야 할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배운 행동에 따라 교회 모임시의 행동이 좌우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배운 어린이는 예배시에 기도할 때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느 일요일, 저의 네 살박이 손녀 다이애나가 교회에 참석하여 아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빠의 팔에 안겨서 편안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일어나 성찬 찬송가를 발표하자, 다이애나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아빠의 팔을 살며시 들어 그의 무릎 위에 놓더니, 팔짱을 끼고 똑바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그녀는 자기의 아빠를 쳐다보며 그도 자신처럼 하라고 눈짓하였습니다.

다이애나가 아빠에게 전하는 의사표시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구세주께 모든 주의를 돌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태도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경건한 태도가 충만할 때, 경건한 행동이 반드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저 역시 다이애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경건한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 노력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히 12 : 28 참조.)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평강의 왕”(니이 19 : 6)이 되시는 분에 대하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품고있는 산 증인으로서의 개인적인 모범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선택

러셀 엠 벨슨 십이사도 정원회

“처음에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결정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 마 전, 한 젊은 부인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것은 큰 수술의

수술 여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따라 그녀의 남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매일 아침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가조차도 머리가 아픉니다.”

저는,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삶의 위대한 특권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부인에게 동료 의사들 역시 인체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이나 신체의 일부를 희생시키기 위한 수술에 관련된 질문도 있으나, 어떤 질문은 신체의 구조나 기능을 변경시키려는 임의 절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기되는 대다수의 질문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인간 존재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데 대한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이, 형성 단계에 있는 개체의 생명과 선택을 동시에 부인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 신체에 관한 질문은 인생의 감당하기 힘든 선택에서 중요한 일부만을 반영할 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질문은 “어디에서 살것인가?”,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명예와 노력을 걸고 일할 것인가?” 등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지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할 수많은 결정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이나 상담했던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특정 주제로 돌림으로써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관련된 기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어려운 선택에 당면하게 되므로, 저는 이 젊은 부인과의 대화를 확대시켜 다른 사람들도 가담시켜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자문해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좀처럼 하지 않는 결정이건 매일 항상 하는 결정이건 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이 질문을 생각해 보고 싶겠지만 뒤에는 남편과 함께 검토해 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1. “나는 누구인가?”
2.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3.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변치않는 원리들과 힘의 주요 근원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고려해 보면, 처음에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결정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할 때에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로 영향받게 될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평가는 조용히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린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라”(교성 2 : 18~19; 창세기 1 : 26~27; 모사이야서 7 : 27; 엘마서 18 : 34; 22 : 12; 이더서 3 : 15; 모세 2 : 27 참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육신은 보존되고 보호되며 잘 보살피겨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육신을 성전에 비유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 : 16~17)

여러분은 이 시기에 지상에 오도록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고귀하고 위대한 영입니다. (교성 86 : 8~11 참조) 전세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인류의 대집합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이 말일에 그의 혈통을 통해 성취되리라는 약속의 상속인입니다. (니파이일서 15 : 18; 니파이삼서 20 : 25 참조)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교성 18 : 28; 20 : 29, 37 참조) 여러분은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의 영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로나이서 4 : 3; 5 : 2; 교성 20 : 77 참조)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수없이 해본 질문입니다. 오래 전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군에 있는 동안 처절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교통이 두절되고 식량도, 피난처도 없는 외딴 곳에서 추위 속에 갇혀 오도가도 못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두려운 순간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더 확대하여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육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험받으며, 육신의 생활을 경험하고, 생의 험난한 순간 순간에 해야 할 바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여러분이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 선택은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2 : 15, 25 참조) 자유의지는 성스러운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무엇이 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부모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의 길을 열어 주며 개인적인 계시를 들려줍니다. 또 어떤 경우 특별히 매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전문가나 지역 교회지도자들과 상담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바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1972년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김볼 장로는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권위있는 의사의 권고도 받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김볼 장로 부부와 대관장단은 조심스럽게 여러 대안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후에 대관장단을 대표해서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김볼 장로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볼 장로님, 당신은 부름받았으! 죽지 않을 것이요! 자신을 돌보고 계속 살기 위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위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던 심장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13년을 더 사셨고 리 대관장님을 계승하여 교회 대관장이 되셨습니다.

귀중한 특권인 선택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교성 93 : 29~31 참조) 그것은 도덕적 양심입니다. (교성 101 : 78 참조) 결국 사탄은 그것을 반대하였고(모세 4 : 3 참조) 주님은 승인하셨으며(모세 4 : 2 참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것은 재확인되었습니다. (교성 58 : 26~28; 모세 6 : 56; 7 : 32 참조)

도덕적 자유의지를 합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입니다. (신앙개조 제4조 참조)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초석이 되어야 하며 신앙의 시험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믿는 신앙, 그의 말씀과 그의 종들과 그의 계명에 관한 신앙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는 것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없으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 여호수아는 그의 가족이 직면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천명하였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5; 모세 6 : 33 참조)

신앙을 발전시킬 때 여러분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는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니파이일서 2 : 27~28; 교성 14 : 8 참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진실한 회개 없이는, 신앙은 온전히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니파이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며... 성스러운 경전을 믿게 되어 저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케 한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로 안내된 자들은 모두...”(힐라맨서 15 : 7)

신앙과 회개와 순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속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공의와 자비의 가장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엘마서 34 : 16~17 참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내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 모든 힘든 일과 고난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교성 63 : 11; 101 : 4 참조)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육신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중요한 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참 마음 참 뜻으로 기도으로써 주님께 겸손히 간구할진대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엘마서 33 : 23; 모로나이서 7 : 9, 10 : 4; 교성 9 : 7~9

참조)

신앙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야고보서 2:17; 18, 20, 26; 엘마서 26:22 참조)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은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는 죽어,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왕국에서 거할 곳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5:22; 엘마서 12:24; 21:9; 힐라엔서 14:16~17; 교성 138:19 참조) 매일 해가 저물어 감에 따라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과 업적에 대하여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교리와 원리에 맞는 행위를 하게 하며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01:78; 모사이야서 3:24)

모든 것이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의 신체 역시 부활할 때에 온전한 형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엘마서 11:43; 40:23 참조) 여러분의 부활의 날은 여러분이 그 이후로 살게 될 삶을 결정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여러분의 행위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에 품고 있던 생각과 마음속의 소망까지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하는 생각은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모두”(엘마서 5:18), “명백히 기억하”(엘마서 11:43)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아십니다. 예를 들면, 독신 자매들과 자녀 없는 부부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심판의 날 깊이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교성 137:9; 히브리서 4:12; 엘마서 18:32; 교성 6:16; 33:1; 88:109 참조)

주님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족과 사회에 온전히 봉사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여러분의 소망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에 거스르는 명분을 내세우며,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 짐짓 모른 척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탐닉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경전의 다음 구절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에스겔 20:16)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감독 또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접견을 하는 것은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접견은 여러분이 위대하신 심판관 앞에 서게 될 중대 회의에 대비하는 뜻깊은 “예행 연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이 끝나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 집을 배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집의 영광을 여러 천체의 밝기에 비유한 계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고린도전서 15:41)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별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곳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76:82)

예언자는 달의 영광에 대해서는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거부한 자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인간의 간사한 재주로



대외 방문자

눈이 먼 자”들이 거하게 될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성 76:75)

그런 뒤, 그는 해의 영광에 관해, “저들의 영광이 태양의 광채와 같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것”(교성 76:70)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충실한 자들은 하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와 함께 승영하여 그들의 가족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와 후손에게 인봉되는 장소인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과 의식에 순종했던 자들이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힘든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며,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 때 크나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특별한 신분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향한 길을 닦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책임에 대한 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부활

하트만 렉터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개는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생각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과 잠시 동안 부활에 관해서 또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의 중대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자나 부활한 분들이 현세의 인간들에게 그 과성을 설명해준 일이 없기에 부활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져올 것(엘마서 42:23)이라는 정도입니다. 부활은 영과 육신, 육신과 영의 재결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엘마는,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리라”(엘마서 40:23)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금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함에 저들이 행한 대로 심판 받으며, 율법과 공의로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리라.”(엘마서 42:23)

야곱은 부활의 몇 가지 개념은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낙원은 의로운 영들을 내어주며, 무덤이 의로운 자들의 육체를 내어 놓으며 영과 육체가 다시 제 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불멸의 것이 되어, 육신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산 영육이 되리니,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결함과 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은 순결의 옷 곧 의의 옷으로 입혀져 저들의 기쁨과 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

분명히 주가 살아 계시며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자는 의에 머무를 것이요,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울 것이매...”(니파이이서 9:13, 14, 16)

그렇다면 부활에는 좋은 소식도 있는 한편, 나쁜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모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로울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저지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낮은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부활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가 육신으로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는가를 판결합니다.(엘마서 5:15 참조.)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니파이이서 31:15).

사실상 주님께서 이 세대에 회개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교성 6:9, 11:9, 14:8, 19:21 참조.) 회개는 우리가 부활에 대비하여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엘마서 42:24)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에게 회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루셨음을 믿게 되면, 그는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고서 회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엘마서 34:16 참조.)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 서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게 됩니다. 침례는 죄사유함을 위한 것이며(교성 13:68:27) 나아가서 이후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게 순종할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니파이이서 31:6~7)

일단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성신, 곧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귀중한 은사를 얻게 됩니다. 성신은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모든 진리를 알게 하고 위안을 주며, 남은 생애를 평화롭게 지내게 해 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들이 안수함으로써 성신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 받아



대회의 모습

들어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2, 이디서 3:14, 엘마서 5:19 참조.)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그 후로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으로(니파이서 31:15 참조.) 이 후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회개하기를 계속합니다. (모세 5:8 참조.)

2. 생활해 나가면서 남을 용서하기를 계속합니다. (교성 64:9~10 참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면,

3.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해의 영광에 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성 31:9,52:40 참조.)

“훌륭하다”는 말은 단순히 좋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성전 성약내에서 자녀를 낳거나 자녀를 그들에게 인봉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야말로 자녀 자신이 훌륭하다면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20 참조.)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며 진실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훌륭한 선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자녀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회원 친구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물몬경을 주도록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일을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물몬경을 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몬경이야말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따르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물몬경이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분명하고 진귀한 진리가 바로 물몬경에서 알려지고 회복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파이서 13:40 참조.) 저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교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영화로운 부활에 대비하여 필요한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베나민 왕의 말씀 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그들에게)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는)” 일입니다. (모사이야서 4:26)

주님께서 그에게 돌아오라(말라기 3:7)고 하신 의미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침례를 받은 뒤에는 십계명에서 시작하여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의 법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의 위험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표의 담배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중 위생성의 경고: 흡연은 폐암, 심장 질환, 기종을 야기하며 임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이는 결국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일조는 또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 3:8 참조.) 그것은 여덟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고 끝까지 변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모두 돌려주시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누가복음 6:38 참조)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약속이 아닙니까?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않는 진리의 율법인 것입니다.

침례 받은 후에 십계명과 십일조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니파이의 말씀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니파이이서 32:3)기 위한 표준이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십일조를 내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내기 시작하십시오. 만일 지혜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지키십시오. 만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십시오.

회개는 죄를 고백하며 버리고(교성 58:43 참조.)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세주께서 회개라는 조건으로 죄값을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교성 18:12 참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지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진리만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공경해 나가야 합니다.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돈, 기술, 자동차, 집, 금, 은 등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회개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지키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을 준비함으로써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 지상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이서 2:25 참조.)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분에게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엘마서 3:27, 교성 29:45 참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 주 하나님께서



대희 방문자

그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사이야서 2:22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ی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또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죽음의 사슬을 풀게 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또한 그분 이름 외에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고 정결케 될 수 있는 이름이 없음을 압니다. (니파이이서 31:21, 모사이야서 3:17, 4:12 참조.) 저는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회원 전체에 대하여 기뻐하시는—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임을 압니다. 아울러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 언행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며, 머리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는 진리는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받(엘마서 42:24)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간증을 전해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몰몬경에서 나오는 힘

루스 비 라이트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제2보좌)

“경전은 우리가 생의 어느 곳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말해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본 부 초등협회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 지역의 어린이들이 몰몬경에 나오는 여러 큰 사건을 그린 그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보면 저는 세상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숭고한 예언자와 지도자들의 영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 준 신앙과 용기, 사랑, 겸손, 봉사와 인내는 저를 받쳐주고 저 자신의 삶에서 당면하게 되는 곤경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순수하고 단순한 그림 몇 장을 소개하여 그들이 전했던 강력한 원리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생의 어느 곳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말해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느낌과 제가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은 모두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첫번째 그림은 리하이의 여행을 그린 것입니다. 주님이 매일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완전한 신앙으로, 리하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광야로 나서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저는 리하이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배를 만들고 있는 니파이의 그림을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를 떠올려 봅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배 만드는 것은 전혀 모르는데, 배워본적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를 수 있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명하여 육지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도 역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

“주께서 그토록 크신 권세를 가지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음이 사실일진대, 내게 배를 만들 것을 어찌 가르칠 수 없으시겠느냐?”(니파이일서 17:50~51)

그렇게 해서, 니파이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 주어져 불가능하게까지 느껴질 때면, 나는 바다가에서 배를 만들던 용감한 니파이를 생각합니다.

저는 베냐민왕이 높은 대 위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인자하게 팔을 벌리고 있는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남을 위해 일평생을 봉사한 이 위대한 왕은 지극히 겸손하게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스스로 범속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 하려 너희를 명하여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니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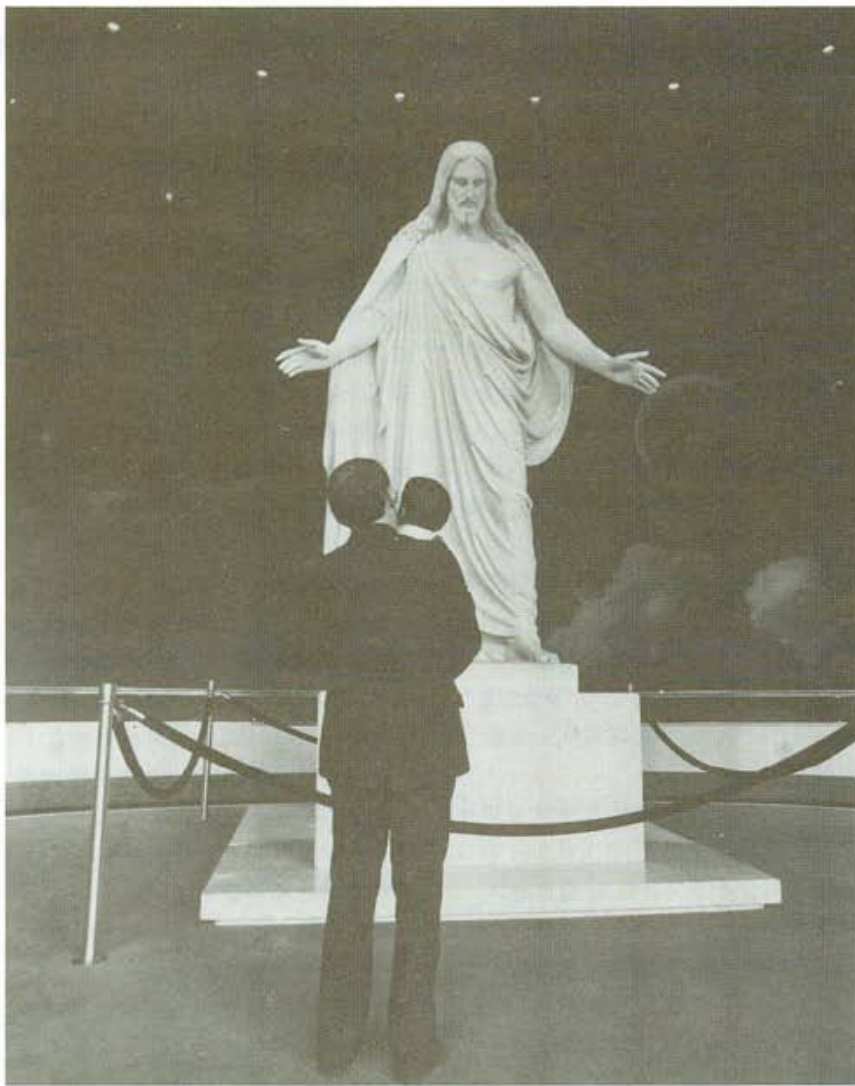
“나는 너희들과 같이 육체로나 정신적으로 약함을 지닌 자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됨을 주가 친히 허가하셨으며, 한량 없으신 주의 권세로 지켜 주시매, 주께서 내게 내려 주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다스려 왔느니라.”(모사이아서 2:10~11)

스스로의 나약함으로 인해 부적합하다는 느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저는 베냐민왕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감옥에서 밧줄로 묶여 나란히 앉아 있는 엘마와 엠올레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다 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가두고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닥친 시련을 극복하고자 할 때 엘마와 엠올레크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변하는 가치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거나 “좋다고 생각되면 하라.” 또는 “잡히지만 않으면 속여도 된다.”라고들 합니다. 저는 힐라벤의 젊은 용사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로부터 올바른 원리를 배운 이 젊은이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은 바에 충실하였”(엘마서 53:20)입니다.

이는 곧 유혹에 임해서도 충실하며, 원하지 않을 때라도 진실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 해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실한 젊은



대회 방문자

용사들의 모범은, 복음 원리에 굳건히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내게 힘이 되어 줍니다.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면서 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던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육신은 약해지고, 감정은 불안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전날보다 더 견디기 힘들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안을 갈구했습니다. 삶이도 받지 않으면 안될 수술을 앞둔 채 병원에 누워 있던 그녀는 전혀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 스미스와 그가 겪은 고난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니파이삼서를 읽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니파이인들이 바운티폴 땅에 있는 성전에 모여 하늘에서 오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두 번 듣는 대목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것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

“보라, 세번째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 : 3, 6~8, 10~11)

이 구절을 듣고 난 제 친구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위안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라앉았으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성인들에게만 성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7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의 주위에 모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21, 23~24)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느낌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를 매일같이 축복해 주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문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깊이 명상할 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게 되는 시련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한 장씩 넘겨가며 읽을 때마다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범사에 감사하라”

헬리오 알 카마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며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 : 18)고 권고한 대로 저는 오늘 제 생애의 몇가지 특별한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한 경전인 성경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말씀과 충고보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매일의 모범을 통해서 정직과 근면과 절약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전 청소년기에 저는 군대에 들어가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관 학교에서 지도자들과 교수님들을 통해 수련과 순종과 헌신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계속해서 군대의

경력을 쌓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를 저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발 노인이 되었으며,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저는 그 사고를 명철과 자기 실현이라는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길을 건도록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한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고는 불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을 세어 보면서 그리고 저보다 먼저 장막 저편으로 간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저의 동반자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여성을 생각하면서, 제가 보낸 지나간 세월들과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훌륭한 자녀와 손자들을 우리의 가정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축복들 때문에 제가 대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성경을 보존했던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충실한 족장들을 비롯해서 당대에 널리 쓰인 언어였던 그리이스어로 예언자들의 기록을 번역한 헌신적인 학자들에 의해 전해져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값진 책들을 보존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후에 중세 시대에 경전을 복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며, 끈기있게 다시 출판하고 유럽을 침략한 민족들에게서 그 경전들을 방어했던 담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 백성들의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읽고 교화되도록 노력한 16세기의 용감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존경을 포함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셉 스미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겸손하고 충실한 예언자를 통하여 이 세대에 영적인 일이 계시되었으며, 오늘날 물론경으로 알려진 경전-성경의 불확실한 구절들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구원의 계획의 기이한 부분을 채워 주는 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기록했던 서반구의 예언자들의 진귀한 교리적 가르침이 세상에 드러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순수하고 헌신적인 훌륭한 자녀들을 기를 뿐 아니라 때로는 적대 감정을 가진 낯선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귀중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모두 옛날 황량했던 이 계곡에 거주한 개척자들의 후손들입니다. 부름을 받고 저의 조국인 브라질에 와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부모님들에게 우리 국민과 특히 저희 가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저는 무수한 도전, 밝은 희망, 기술의 진보, 그리고 놀라운 과학 발전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복음의 메시지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자유 세계의 국가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완전한 조직, 비교할 수 없는



대외 방문자

영적인 힘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교리를 갖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복된 복음 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던 어떠한 진리나 위안이 되는 소망이나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떠한 고상한 원리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으며, 우주의 진리들이 하나로 통합됨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회복된 복음의 진리들은 이미 경험한 행복과 기쁨을 더욱 확대시키며 이전에 가졌던 지식에 영감받은 지혜를 더해 주어 이전의 빛이 더욱 찬연히 빛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게 하는 열쇠, 즉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인봉의 열쇠가 포함된 신권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6 : 19 참조)

고대의 사도와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태버나클에서 우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 현대의 예언자들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 : 18)는 사도 바울의 훈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며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 : 28)고 하신 대로 모든 것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경전에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 : 21)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 보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성공과 업적을 이루어 냈다고 믿게 할 인간적인 자만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함

왈도 피 콜 장로

철심인 정원희(해임됨)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 약전서의 열왕기하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었으나 “문둥병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1 참조)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2~3 참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비록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이 제안을 깊은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편지와 금은과 값진 의복 등을 주었습니다.

신앙심이 약했던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나아만을 낮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열왕기하 5:7)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람을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열왕기하 5:8)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예언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10 참조)

그러나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습니다. (열왕기하 5:11~12 참조)

그는 자만심 때문에 예언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그대로 지닌 채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만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충실한 종들은 그에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라고 하면서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열왕기하 5:13~14)

나아만은 감사하는 마음에 예언자에게 가서 금은과 값진 의복으로 보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답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과 그 일행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언자 엘리사의 종 하나가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나아만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들을 뒤쫓아 갔습니다. 나아만은 그 종의 달려움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 종은 자신의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있으며, 온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청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쾌히 그 물건들을 건네주고 그 물건들을 운반할 사환 두 사람까지 함께 보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종은 물건들을 어느 집에 옮겨 놓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나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종이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 같이 되더라”(열왕기하 5:25~27)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 네, 그분은 주님의 예언자이시죠. 하지만 저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매일 물문경을 읽을 만한 시간이 안 납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는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했으니 일요일엔 잠을 좀 자야죠.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을 사러 갈 날이 일요일 밖에 없어요.”

베냐민 왕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욕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사이야서
3:19)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 니파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가 저들에게 명한 일이
어렵다 하여 불만을 토하였으나, 보라
이는 나의 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이시니라.”(니파이일서 3:5)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보라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은
나의 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이시니라.”

리하이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하니 가라 나의
아들아. 네가 나의 분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시고로,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6~7)

우리는 니파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미대륙에 살았던 그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흠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니파이삼서
27:16)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시겠습니까? 유순하고
불만을 토하지 않으며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그분의 예언자와 사도들을 따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



철심인 정원회의 회원들(앞줄):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와 조지 알 힐 삼세 장로(뒷줄): 아담 디아가
장로(남미 남부 지역 회장단의 회장)와 그의 두 보좌인 에두와도 아얄라 장로와 케네스 존슨 장로 그리고
테드 이 브루어른 장로(새로 조직된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회장).

입니다.

그들의 지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갖거나
맹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교리나 예언자의 말씀에
대해 어떤 표적을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기도하며 의로운
생활을 계속한다면, 성신을 통해서
감미롭고 평온한 느낌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니파이와 같이 신앙을
갖고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다면 영으로써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만심을 갖고
행동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문둥 병자로 지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욕심 많은 종을,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 부귀와 세속적인
것과 인간의 지혜를 구할 때의 우리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불순종 때문에
영원토록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불결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교리와 성약 1:14)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예언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저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그분의
예언자이시며, 힐클리 부대관장님과
몬슨 부대관장님, 그리고 십이사도는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한 예언자요,
사도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이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는 제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예언자와 사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약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영적으로 위험한 생활 형태를 합법화하고 보편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도덕적,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 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경감이 되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아흔을 넘어서서도 “주님의 성약과 저의 의무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약이라는 말이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고대의 백성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창세기 6:18)라고 말씀하셨으며 니파이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언약의 백성임이라”(니파이삼서 20:26)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회복된 복음을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교리와 성약 22: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침례와 성찬 의식도 성약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 성약과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교리와 성약 20:77)

세 가지 위험한 생활 형태

오늘 저의 말씀은 성약을 어기려는 유혹에 빠져들거나 성약을 깨뜨리는 생활을 지속하여 마침내는 자기 자신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영적으로 위험한 생활 형태를 합법화하고 보편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낙태, 동성애 그리고 약물 중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에 걸쳐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 학교, 또는 일상의 대화나 대회 및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영성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와 같으나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도덕적,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할 한가지 면은 도덕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성약이 깨질 위험에 놓입니다. 성약을 지키다면 안전할 것이나, 성약을 깨뜨리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권고 및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종류의 계명이 성문화된 율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영적인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가지를 다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에 낙태와 동성애 그리고 마약 복용을 금하라는 계명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면 왜 경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경전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문화된 율법에서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다소 허용하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승인하시는 모든 것이 경전에 일일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반면에 금하시는 모든 것 또한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혜의 말씀에 비소(원소 번호 33의 극약)를 취하지 말라라는 식의 구체적인 경고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교리와 성약 58:26)라고 말씀하셨으며,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인간은 선약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니파이이서 2:5, 힐라맨서 14:31 참조)

이 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니파이이서 2:5 참조)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성문화된 율법 및 기타 영적인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질 의지는 도덕적인 양심입니다. (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우리에게 성약을 깨뜨리고 그 결과로부터 벗어날 자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부도덕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우리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엘마서 41 : 10)라고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권리

이러한 파괴적인 생활 형태에 관해 토의할 때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권리”가 마치 절대 불가침의 권리인 것처럼 제기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으나, 어느 한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는 서로의 권리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한 아무도 행복하게 되거나 구원받거나 승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 용

관용이란 말 또한 마치 다른 모든 덕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쓰이는데, 물론 덕이 되기는 하겠지만 최상의 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와 행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로는 무한한 관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행함에 대해서는 관용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덕도 너무 지나치게 강제하면 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것에 대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 이상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낙 태

낙태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할 때보다 더 강력히 선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선택하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때에 가장 편리하게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때때로 결혼 성약이 깨지기도 하며 결혼 성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상태이든 아니든 낙태는 혼자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세 사람의 생명이 관련됩니다.

경전에는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 : 6)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나 간음에 관련된 상태 혹은 합법적인 의료진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결함이 있어 살아 남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분명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외적 경우일지라도 옳은 결정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님

우리는 자녀들이 인간은 일종의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학설을 받아들이도록 방치했을 경우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수를 누적시켜 왔습니다. 동물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는 곳에는 도덕적인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와 선택은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동물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해방감을 느낄 것이며 심지어는 모든 욕구와 충동에 따르고자 하는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당황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심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광풍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 그대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권리

동성애의 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일부 출판물들이 이제는 교회 전반에 걸쳐서 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지들은 동성애의 충동은 타고난 것이며 극복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행동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전의 내용까지 왜곡시키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전을 인용합니다. 이들은 또한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근친 상간이나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조차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성문화된 것이거나 영적인 도덕률 중 어느 것도 이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경전 해석을 권능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우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로마서 1 : 25)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배약”(로마서 1 : 31)하는 자라는 말이 경전에서 언급된 것은 그 때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없이 경전을 거부하고 그들의 성약을 포기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느낌과 충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중에는 합당한 충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자연스럽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느낌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그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성의 결합은 주님의 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맺는 주님과 함께 성스러운 성약은 종족을 보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행복한 가정 생활에 필수적인 느낌과 충동이 합당하게 표현되도록 보호막이 됩니다. 부도덕하고 변태적인 행위는 예외없이 실망과 고통을 주고 결국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역 신권 지도자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중독이나 탐닉으로 이끄는 욕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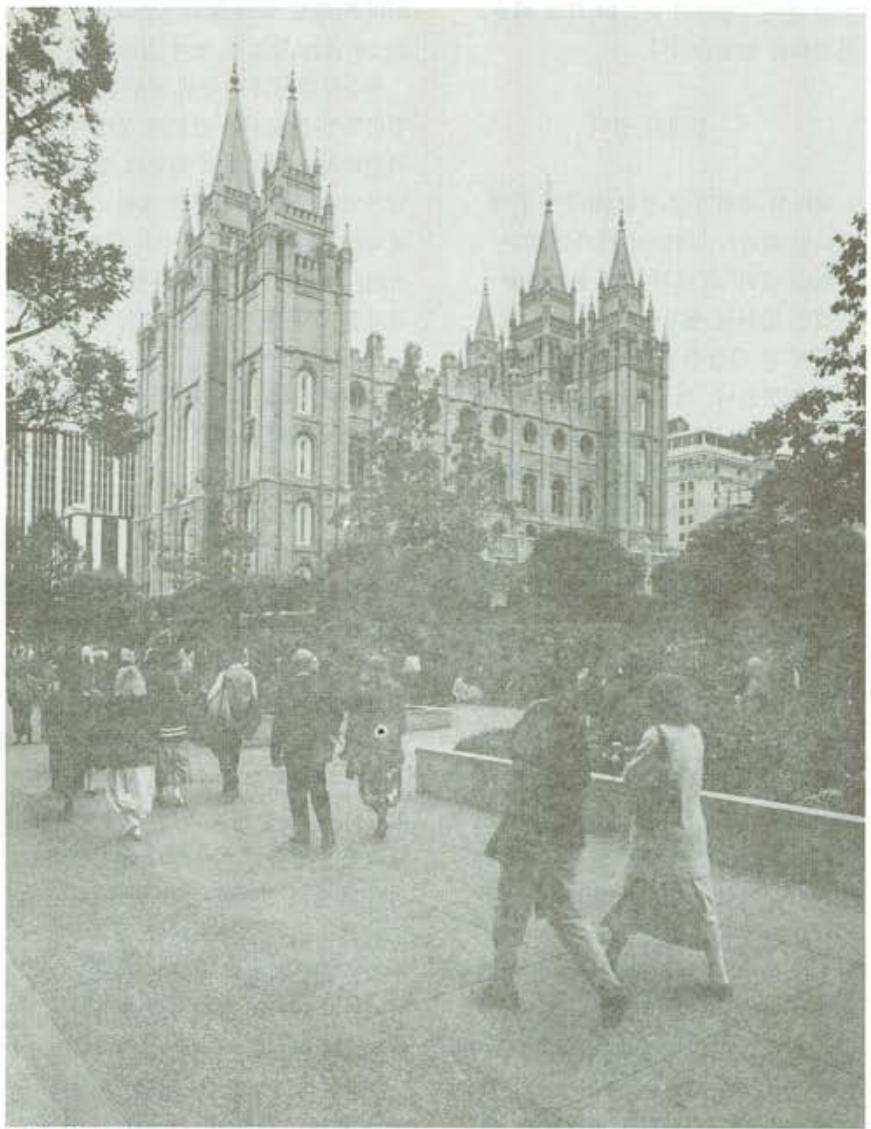
인하여 고통받는지 질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같은 욕망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금지 구역에 매혹되고 그곳을 침범하고자 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공평하지 못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독이 그 이유를 답하지 못할 뿐더러 그런 중독이나 그같은 나쁜 습성들을 고쳐주지 못한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듣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유혹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한 두 가지의 유혹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험으로 필멸의 육신을 입고 받는 시험의 한 부분이며, 어떤 종류의 유혹은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러한 유혹이 이끌어 내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형태가 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집어 던지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끌려 간 길의 종착지를 보아 왔습니다. 감독은 여러분에게 그런 상태의 원인이나 왜 여러분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해 줄 수도 또 그런 유혹을 없애줄 수도 없으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곳이 바로 개인의 선택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또한 회개와 용서가 위대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약중독, 변태행위 또는 낙태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위험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방문자

유혹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상태는 유혹하는 사람이 되어서 선량한 사람을 파멸로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골방”(마태복음 6:6)에서 나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이기도록 부추기며, 그러한 행위가 영적으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숨기어서 모든 규제로부터의 해방과 쾌감만을 약속합니다.

유혹자는 그러한 충동은 어쩔 수 없으며 저항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 유혹자가 우리를 부추겨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밧줄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42)

후원 단체들

유혹을 극복하게 하거나 마약복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후원단체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한 것을 획책하고 파괴하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중독과 변태행위의 사슬을 더욱 꼭 조입니다. 그와 같은



본부 청녀 회장단: 제인 비 앨런 자매(제1보좌), 아데스 지 켈 자매(회장), 제니트 시 해일즈 자매(제2보좌)

조직에 결코 가입해서는 안되며, 혹 이미 연관되어 있다면 속히 탈퇴하십시오.

연민과 사랑의 영

이제 저는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동정과 사랑을 느끼며 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저항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일생 동안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어긴 성약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때때로 자살할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살은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괴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뜻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은 이러한 유혹으로

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복음의 계획을 알면 이 생의 시험 기간의 조건으로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바로 이생의 목적입니다. 이같은 나쁜 행위가 당분간 여러분의 영을 마비시키거나 도덕심을 삼켰을지라도 회개하기에 늦지는 않았습니니다.

그저 단순히 선택하는 것에 의해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일시에 떨쳐버릴 수는 없을지 모르나, 이제까지 여러분을 유혹해 왔던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닉과 타락한 생활 습관을 버림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은 그러한 생활에 빠져 있을 동안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수백분의 일도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고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항하거나 또는

일단 빠졌을 경우 빠져 나오는 것은 진실로 비이기적인 행동이며 순종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희생물입니다. 이에 대한 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 것입니다.

성약을 어길 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선택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자유의지가 이제부터 구원을 위한 위대한 영적인 권세를 발휘하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너무 거칠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사랑 외에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는 회개의 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약이 깨졌다면 어렵긴 하나 다시 성약을 맺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도 가능하냐구요? 그렇습니다. 낙태를 했을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핏자라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18)

세상을 휩쓸어 가고 있는 이 소름끼치는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유혹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권은 정결케 하는 위대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결케 하는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시기 위해 희생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해

창세기 13:13, 18:20-22, 19:4-9(요셉스미스 영감역 창세기 19:9-15 참조), 레위기 18:22, 29, 20:13(주해 13a 참조), 신명기 23:17, 로마서 1:24, 26-27, 고린도전서 6:9(주해 9e, f 참조), 디모데전서 1:9-10(주해 10b, c 참조)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전능하신 분을 신뢰하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힝클리 부대관장님 사이에 있는 빈의자를 보니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힝클리 부관장님과 함께 며칠 전에 다녀왔던 벤슨 대관장님의 병실에 여러분을 모시고 갔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곳에 깃들어 있는 평온과 사랑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목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침대에 누워서 왼손으로는 훌륭한 아들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아름다운 딸의 손을 잡고 계셨으며, 오른쪽에 있는 딸은 물문경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안에는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가 온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연차 대회가 마감됨에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한층 더 고양되고, 마음이 영감으로 채워지며, 영혼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 연단으로부터 우리는 필멸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권고와 인도의 말씀을 받았으며, 또한 이 연단 위에서

주님께 드리는 겸손한 기도가 바쳐졌습니다. 그분들의 간구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모임마다 합창단이 불러준 천사같은 음악은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여기 태버나클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진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마치 대관장님이 함께 하시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회원 및 세계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가히 전설적입니다. 그분은 또한 가는 곳마다 많은 친절의 행동으로 그분과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벤슨대관장님 부부는 평소에 하시던대로 조단 리버 성전 의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곳에서 벤슨

대관장님은 어떤 젊은이를 만나셨는데 그는 기쁨에 넘쳐 인사하며 자신이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를 껴안으시며 미소를 띠우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게! 함께 데려가 주게!” 그 선교사는 벤슨 대관장님의 이 말씀이 선교사업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었으므로 어떤 면에선 대관장님과 함께 선교 사업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발전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차대전 말기에 그 대륙의 굶주린 사람들과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여 주셨던 벤슨 대관장님의 위대한 봉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봉사를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자매님은 최근에 벤슨 대관장님께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왔습니다. 대관장님께서 1946년 가을에 독일 랑겐에서 저와 처음으로 만났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관장님과 이차 대전후의 그 참담한 때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비참했던 시절, 난민들에 대한 당신의 도움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44년전의





대회 방문자

일이 되어버렸고 대관장님도 저도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대관장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온 생애 동안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온 마음을 담은 사랑을 보냅니다.”

만약 벤슨 대관장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대회의 마지막 모임이 끝나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 분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과 교훈과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들려 주셨던 권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좀 더 담대해 집시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데저렛 출판사, 솔트레이크시티, 1983년, 16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전을 연구하시기를 촉구하며, 매일 경전을 상고함으로서 여러분을 보호할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연차 대회, 1986년 4월)

가족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다루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염려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영혼 깊숙히까지 전달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신뢰하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역경이 닥쳐올 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온의 영인 이 평화와 말로 우리 생애 있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항상 기도하라, 앤사인 1990년 2월, 5쪽)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힘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젊은 총관리 역원들이 지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육신을 새롭게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온 지상이 물론경으로 차고 넘침,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6쪽)

벤슨 대관장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종종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다음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써 인도하며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때 하나님이 함께 합소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험이 닥쳐올 때에
안아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때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회원 여러분과 전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분의 애정과 감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 드리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만물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엘레인 엘 책 회장
교회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근거는 구세주의 삶을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 보려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수많은 호의와,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 주심을 느끼며, 가슴속에 훈훈한 정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회장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느끼며 그것을 여러분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제게 들려주신 고견을 전해 드릴 이러한 기회를 고대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의견 가운데 한가지

공통된 주제는 자매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30여년 동안 저는 교회내에서 많은 말일성도 여성들이 자신들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어떤 여성을 만나기를 위해 왔습니다. 그 여성은 흔히 “뛰어난 여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형적인 상호부조회 자매라고 하는 그 여성은 먹음직한 빵을 만들고 전문가처럼 울개를 연주하고 손수 지은 옷을 언제나 자녀들에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혀 줍니다.

그 여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성은 누구입니까? 그 여성은 어떻게 했기에 다른 여성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까? 저는 주의 깊게 살펴 보았으며, 이 여성을 찾아 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 자매님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언자 야곱은 “...영은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를대로 이야기하나니, 우리들 영육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간결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야곱서 4:13)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를대로”(야곱서 4:13)라는 말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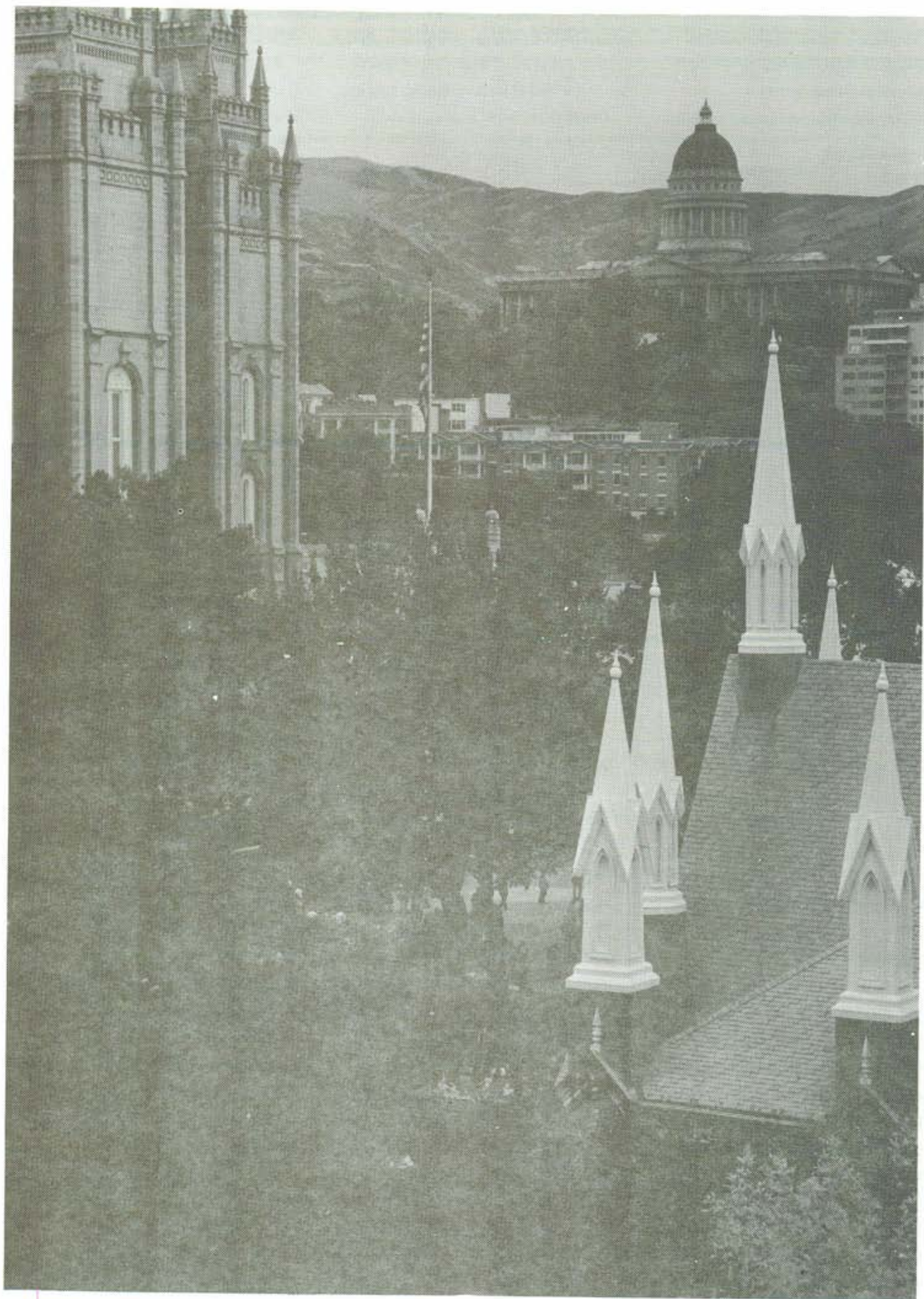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현실적으로 훌륭한 말일성도 여성과 비교해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것처럼 스스로 상상해 냈거나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형에 비교해 봄으로써 동기를 부여받고 격려받는 자매도 있었지만, 많은 여성의 장점을 두루 갖춘 여성, 책에 등장하는 여성, 또는 다른 면으로 알게 된 이와 같은 이상형의 여성에 의해 좌절감이나 실망을 느끼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상호부조회에서 훌륭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소리지를 때가 있어 항상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의 남편이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저는 다음과 같은 말도 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기혼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상호부조회나 성찬식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 준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또 그와 비슷한 말들은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게 어떤 이상적인 것에 비해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한 마음과 주님께서 내려 주신 개인적인 은사를 간직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게 될 때 잠재 능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찌게 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그릇된 비교의 근거는 다른 상호부조회 자매들이나 상호부조회 조직, 또는 삶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발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사실대로 규명되지 않는 한 그 비교의 눈금은 틀린 것입니다.

예언자 야곱은 만물이



“사실대로” 그리고 “장차 이룰대로”
우리들 영육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서 4 : 13 참조)

자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구세주의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서입니다. 다만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실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 연령, 결혼 상태 또는 신체적
조건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근거는 구세주의
삼을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을 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 보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해 보는 때가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시간에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게
되면, 모두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공과도 아주 깊이있게 가르치며 또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영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기가 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나 내 인생은 보잘
것이 없어요.”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은 비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여성보다 더 위대한 여걸은
없습니다. 네브라스카나 푸에르토리코,
또는 가나,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등
세상의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여러분은
타인의 찬사를 받는 일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보살피고, 이웃을
돕고, 학교에서 봉사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며, 또 가정 안팎에서
실생활에 따르는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무도
여러분보다 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 전형적인 말일성도
자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여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그 여성은 훌
륭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여성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278만 명에 달하는 여러분은
128개국에서 살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인버카길에서 캐나다의 에드몬튼까지,
그리고 시카고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기
까지 지구를 가로질러 여러 영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8,000명은 독신으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1,700명은
부부 선교사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20만 명의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50만 명이 십대인
청녀이고 50만 명이 청남입니다.

-여러분은 1990년 상반기 5개월
동안에 방문 교육을 위해서 서로를 약
일백만 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선함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청녀들은 매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라고 함께
말합니다. (모사이야서 18 : 9 참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하나님 계획
군계 믿고 주 따라 가리라.”라고
노래합니다. 저의 손자·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것을 보면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그리고 이것을 아는 지식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토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가 남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세주의 봉사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러한 것이 참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요한복음
4 : 14~15)

가나에 있는 한 상호부조회 자매는
진리를 알고자 하나 글을 모르는 한
여성을 방문하여 가르칩니다. 그
자매에게 복음의 진리, 즉 깊이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방문 교사는
가능한 자주 그녀와 함께 하고자
노력합니다. 방문 교사는 그 자매에게
그녀의 모국어로 경전을 읽어 주고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매우 활기차며 남다른 한
60세의 여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으며, 그
나라가 모든 종교적인 기회를 부인한
40년의 침체 기간 동안 활동적으로 남은
몇몇 안되는 성도 중의 한 분입니다. 그
자매는 83세의 지부장을 매일같이 모시고
산책하러 나가며 그를 위해 장보기도
하며 복음의 생수를 나눕니다. 그
지부장은 두 개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으며 더구나 체코에서의 장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성들은 일상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글을 쓴 자매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되어 좋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주엔가 상호부조회에서 보조 교사로 대신 가르쳤는데 가족 경진 공부에 대한 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경진 공부를 하지 않는 가족 생활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과 후에 한 자매가 다가와서 '저는 자매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래를 하고 음악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매와 대화한 후, 저는 비록 대단한 음악적 재능으로 축복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모성애로 축복해 주셨고 더우기 이것은 참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의 요점은 이 자매들은 능력에 맞추어 주변의 필요에 따라 봉사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를 살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고아들을 위해 이불을 만들고 감옥에 있는 여인들을 방문합니다. 여러분은 기저귀를 수없이 갈아 주고 한없이 흐르는 어린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줍니다. 수재민들을 위해 의복을 모으기도 합니다. 학습 지진아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사회를 보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방문 교육을 하며 그 밖의 수많은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도서실 책임자, 또는 초등학교 교사나 복음 교리반 교사로서 봉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교회의 모든 단위 조직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년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상호부조회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는 참된 것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여러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엘레인 앤 패 자매의 지에고 앤 오까지가 자매(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좌)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비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는 버릇을 없애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성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개인적인 간증을 키웁시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의 생활, 그리고 우리 구세주를 따르는 사려깊고 진지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성 개개인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상호부조회 여성으로서 다양하고 의로운 생활에서 찾는 즐거움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는 모든 육체를 하나로 보시나니,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나"(니일 17:35)

셋째, 사랑을 발전시키고 실천합니다. 저희 상호부조회 모토 표어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모토 표어에 따라 생활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우리 주위의 세상에 있는 고독, 나태, 무지, 결손 가정과 같은 현실적인 결핍에 대처할 때 더욱 활발하게 됩니다.

넷째, 가족을 강화합니다. 많은 유형의

가족 단위 안에서 우리 구세주의 좀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살찌게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신앙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스한 우정으로 나누며 단합된 자매애를 즐기도록 합니다.

키웁시다, 축복합시다, 발전시키며 실천합시다, 강화합시다, 즐깁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고무시켜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각자가 생의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전형적인 상호부조회 여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증, 개성, 사랑, 가족, 자매애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세계 곳곳에 계신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친절— 하나님 계획의 일부분”

베티 조 잭슨 자매
교회 본부 초동협회
회장단 제1보좌

“저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친구 마시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마시아가 열 살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시아의 어머니는 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서 딸 곁에 앉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시아는 학기 중간에 학교를 옮기고 학과목을 따라가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적응해 나가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시아가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마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딸은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학과 공부나 새로운 선생님들에 따르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딸은 주근깨난 두 뺨에 눈물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혼자 먹는 것은 정말 싫어요.”

마시아는 자기의 상황을 알아주고 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친숙하게 지내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

친절이라는 말에는 사랑, 봉사, 자비와 같은 동의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절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보기를 드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친절입니다. 그분은 친절을 베풀 대상인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를 찾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신약전서 마가복음에는 한 어린 소녀에 대한 구세주의 친절한 관심이 쓰여 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곳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막 5:35)하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위로하시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36절)고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급히 그 소녀의 침대 옆으로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42절),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도 그분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으로써 관심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친절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은 남에게 동정심이 있고, 관대하며, 남의 감정에 사려깊고, 자기의 행동에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 주려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 즉 노인, 어린이, 동물, 신분이 높은 사람뿐 아니라 낮은 사람에까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2쪽)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예언자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머리되시는 우리의 예언자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제가 경전에서 인용해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친절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사람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을 때 하셨듯이 우리의 안전이나 안락을 희생할 것을 요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피꼬리반 소녀들과 그들의 주변의 친절한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케이트와 로라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두 사람 주위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친구들은 케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는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로라는 케이트도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초대에 응할 수가 없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한 친구의 친절하고 성실한 행동이 고통과 슬픔을 막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친절히 행함으로써 더욱 친절해집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친절은 언제나 친절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즐거 찾는 인용문, 존 바트렛 편지, 에밀리 모리슨 백 저, 보스톤: 리틀, 브라운 앤드 컴퍼니, 1980년, 73쪽) 저는 어린 시절에 익힌 친절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표어를 기억합니다. “나는 언제나 가장 친절한 것을 가장 친절한 방법으로 행하고 말하겠습니다.” 저의 다정한 한 친구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 시귀를 알려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는 감아 버린 내 좁은 소견에
나는 밤새 울었네

그러나 과분한 친절을 베푼 것에는
한 점의 후회도
느껴 보지 “못했다네.”

(작가 미상, 리차드 엘 이반스 인용,
“친절의 자질”,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0년, 6월, 340쪽)

친절한 행위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때 이른 친절이란 없는
법입니다. 친절히 행함으로써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선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데릭은 선천적으로 심한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태어나서 다섯 해
동안은 달리거나, 숨바꼭질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혹은 아픔을 모르는
아이들의 세상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지쳐 있거나 용기를 잃었을 때 팔을
벌리고선 “안아 줄까요?”라고 묻곤
했습니다. 천진스럽게도 그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친절하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바쁜 경우여라도



본부 청녀 회장단의 제인 비 앨런 자매(제1보좌)와 제니트 시 레일즈 자매(제2보좌).

친절이라는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 어린
데릭처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으나 타고난 성품이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 시절 농장에서 보낸 여름철은
제가 곤충과 동물의 세계를 고맙게
생각하고 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꿀벌의 부지런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는
일에 전념합니다. 화려한 꽃이나 그렇지
못한 꽃에까지도 침을 깊숙이 찌러 넣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꽃
속에서 꿀을 찾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활기차게 왕왕거리며 다음 기회를
찾아 다닙니다. 바쁘게 꿀을 모으는 동안
꿀벌은 꽃들이 창조의 목적을 다하도록
차례차례 가루받이를 해줍니다. 마침내
꿀을 성공적으로 싣고 돌아오면 벌통에
저장 되어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벌들이 먹음 양식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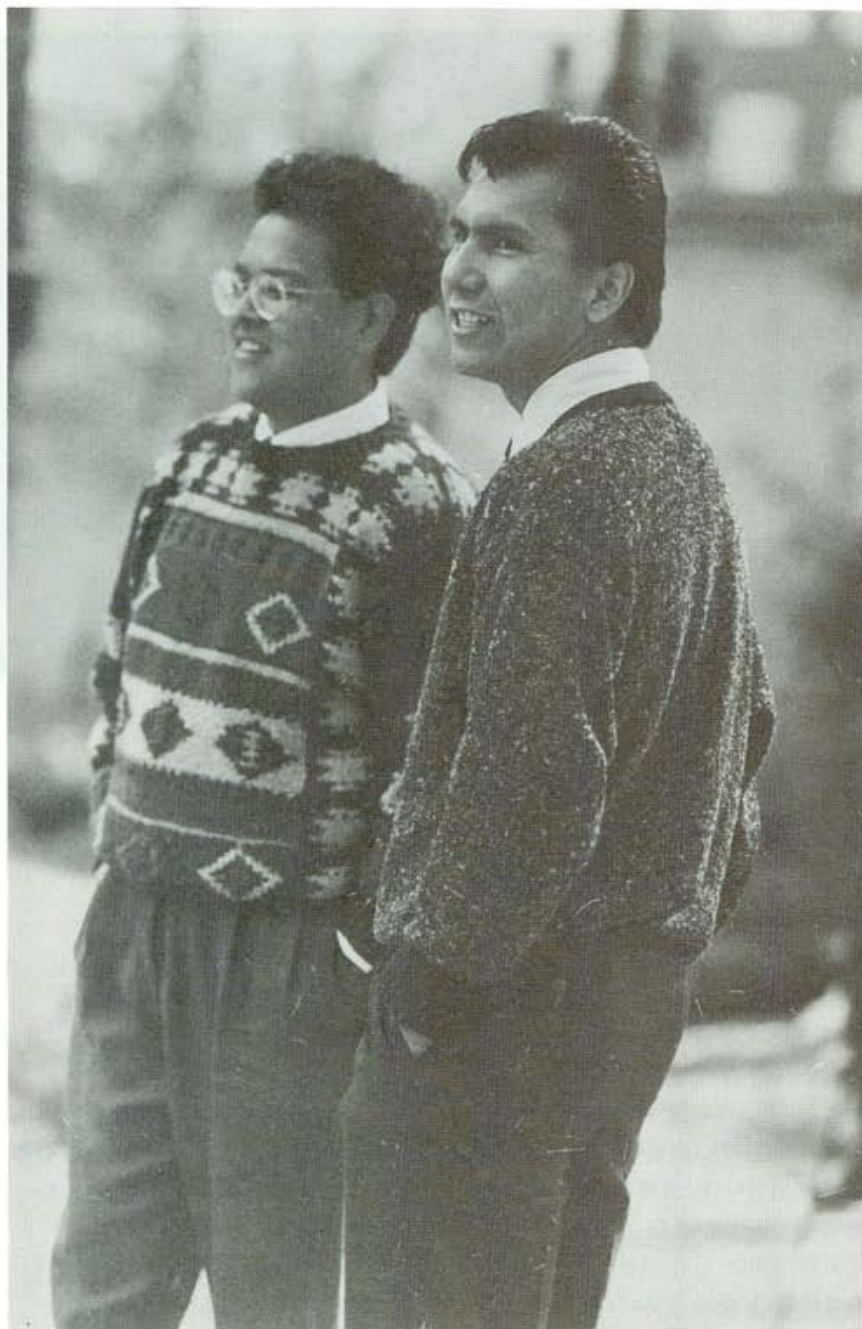
여러분과 저는 그 꿀벌이 순전히
본능적으로 꿀을 모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다닙니다.

우리는 꿀벌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히 행동할 기회를

찾음으로써 일종의 “친절한 본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 본능을 타고나
친절을 베푼 기회에 처해 있을 때 친절을
베푼 수 없다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수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달콤한 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친절하였다고 스스로 변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만사가 잘 되어
갈 때는 남에게 친절을 베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고,
실망하고, 또는 불친절하게 대접받아
괴로운 상황에서 친절할 수 있을 때,
아마도 진정한 친절의 척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사가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친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항상 따라야 할 중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시는 순간에 그 옆에 달려 있는 한
도적이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39 참조)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니다. 두번째 도적은 구세주에게 자기를 대신해 아버지께 말씀드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제쳐 놓고 그 도적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절)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곧 끝나고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마지막으로 친절한 말을 한 사람은 도적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친절을 받아들여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로버트 브라우닝,

즐거 찾는 인용문, 545쪽)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베푸신 애정어린 친절한 행동도 감동적인 예가 됩니다.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실 즈음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과 만나 성찬을 나누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갖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물기를 닦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요한복음 13 : 8)라고 하였습니다. 필경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려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 특히 자신을 곧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유다의 발까지 모두 씻기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진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12~17절)

그분은 약속과 함께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원히 조건없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산이 떠나고 작은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함(친절)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니파이삼서 22 : 10, 이사야 5 : 8, 54 : 10 참조)

“영원한 친절로 너에게 자비를 행하리로다. 주 너의 구속주의 말씀이니라.”(니파이삼서 22 : 8, 이사야 54 : 8)

피꼬리반의 표어는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는 기회를 찾기를 촉구합니다. 그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이 행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하는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메뚜기들”은 영성을 통해서 파멸될 수 있습니다.

아데스 지 캡 회장
교회 본부 청년 회장단

“주님께서 메뚜기떼를 멸하기 위하여 갈매기들을 보내셨듯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 랑하는 청년회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영이 가르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06쪽)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의 복지를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활기차게 생활하고, 멋진 미래를 앞에 둔 영광스러운 시대이면서도, 반면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교성 38 : 30 참조). 여러분은 오늘날의 개척자로서 광야에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되므로 아마도 초창기의 개척자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메리 고블 페이 같은 청년의 용기보다 더 크지 않다면 그녀의 용기와 같아야 합니다. 그녀의 일지에서 인용합니다. “1856년 12월 11일, 밤 9시에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살아 남은 네 명 중 셋이 동상에 걸렸다. 어머니는 마차에서 숨을 거두셨다...”

“이튿날 이른 아침 브리감 영 형제님이...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동상걸린 우리의 발과 숨을 거둔 어머니를 보시고 두 뺨에 눈물을 흘리셨다.”

“의사는 내 발가락을 절단했다... 자매님들이 어머니를 장례지내려고 옷을 입히고 있었다. 내 발의 치료가 끝나자 그들은 나를 안으로 옮겨 주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도록 해주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묻히셨다... 우리가 영국을 떠나기 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종종 생각했다. “폴리,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아직 어릴 때 시온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예요.”(믿는 사람들, 리차드 에이치 크래크로프트, 닐 이 램버트 공저,

프로보, 유타 :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79년, 107, 111쪽)

오늘날 어머니들은 복음과 자녀들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합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의로운 표준을 지키고 지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지켜 서 있기 보다 차라리 마차 안에서 죽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여러분은 복음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의 개척자가 되어 동년배 친구들 앞에서 굳건히 서서 만일 그들이 성령의 속삭임에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맞서는 행동을 취하기 보다는 차라리 발가락을 절단시키는 편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 : 12) 동년배 그룹의 압력은 일종의 핍박입니다. 동년배 그룹의 압력은 오늘날의 큰 시험의 하나입니다.

농작물에 해를 끼치려 산에서 내려온 검은 메뚜기떼의 무서운 재앙과 초기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남김없이 굶어먹는 메뚜기떼로부터 남년노소가 농작물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기도하고 새까맣게 물러드는 메뚜기떼와 싸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갈매기떼를 보내셨습니다. 갈매기떼가 메뚜기떼를 잡아 먹었습니다. 농작물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어린 농작물, 내일의 약속입니다. 고든 비헝클리 부대관장께서는 우리가 한 명의 청년을 구하는 것은 몇 세대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청년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청년, 어머니, 혹은 지도자가

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우리들의 어린 농작물인 청녀 청남 뿐아니라 많은 성인들까지도 파괴하려 드는 오늘날의 새카만 메뚜기떼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세력이 루시퍼의 영향력에 힘입어 증가하고 선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아래 증가”(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98쪽)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팽팽한 대결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모두 시험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 표준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메뚜기들은 과거의 양상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힘이 있으며, 더 위협스럽고 또 눈에 덜 띄입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순진하게 보일 겁니다. 생각과 말과 영상이 매우 미묘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고 말로 표현됩니다. 처음부터 저속하고 상스러운 생각을 품게 되는 데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것처럼 순진하게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는다면 그 메뚜기떼는 우리의 안전 지대인 가정과 마음, 그리고 생각속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영화, 책, 음악 그리고 패션을 통해서 이 유해한 영향력이 소리도 없이 침투해 파괴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힘은 배가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재미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현혹적인 메시지에 자주 노출되나 보면 감각이 둔화되어 처음에는 놀라게 보이던 것도 주위를 덜 끌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은 탈을 벗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악몽이 되고 희망은 부서집니다.

음악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승화시킬 수 있는 감정과 기분을 조성하는 데 매우 강하고 훌륭한 영향력이 있으나,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자극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썩게 하는 데 교묘히 이용되어, 여러분이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게도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정하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나치게 요란하고 미혹적인 패션 광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패션의 옷을 입어 보고 싶은 욕망과 시도는 어리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은연중에 어린 딸들에게 유행되는 요란한 패션의 옷을 입게 하는 취향을 길러 주어 딸이 열 살이 넘어서면 이미 습관이 형성되어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16세가 될 때까지는 이성간의 교제를 피하라는 예언자의 권고가 무시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메뚜기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서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사탄에게 팔관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성과 단독으로 데이트 하는 것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분에게 적이 공격해 오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부도덕한 행위, 술, 약물, 남용, 외설물을 탐닉하는 천박함, 사탄을 숭배하는 등의 사악한 행위 또한 치밀하게 마련된 악마의 도구로 모두 여러분을 속박하고 결국은 여러분을 파멸케 할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설 자리,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어린 개척자, 아이다호 출신인 매린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던 인기있는 영화가 분명히 표준에 어긋난 것임을 알았을 때 친구들을 떠날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영화인데, 걱정할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하지 모릅니다.”라고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은 점점 크게 될 옳지 못한 일들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 자매는 강조했습니다. 그 자매가 자리를 뜨자 다른 친구들도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것이 개척자인 것입니다.

부모님과 지도자 여러분,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주저하거나 동요하거나 약해지는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태도에 따라 여러분의 딸들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준과 행동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모범에 의해서 분명히 정해지고 가르쳐지는 표준이 없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표준을 지키지 않는 활동과 습관은 물론 전통도 변경될 수 있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긍정적인 도래 집단의 영향력을 모으고 활용하여 필요한 변화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워드 및 스테이크, 이웃과 학교에서 서로 화합할 때 특히 의로운 원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력함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갈매기 떼를 보내 초기의 성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갈매기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은 영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속이려 꾀하고 있는 음성과 영향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어떻게 옳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끌리는 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순진해 보이는 걸요.”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선 메뚜기떼를 없애기 위하여

갈매기를 보내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영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진대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리라”(니hil 17:13) 이제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침례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받았을 때,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며 여러분을 가르칠 것이며, 지상 생활 이전에 배운 교훈까지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을 강화시키고, 위로해 주며 평안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깨끗해야 하며,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달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깨끗해지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게 되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올바른 선택이 메뚜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주신 율법과 표준에 반항하는 것은 메뚜기들을 보전하려고 갈매기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교회의 표준은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개척자들은 하루의 여행을 마치면 매일 밤 마차를 수리할 데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여 변함없는 안내와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여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리와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들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면 잘 해 나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지메고 앤 오까자키 자매님(제1보좌), 엘레인 앨 잭 자매님(회장),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님(제2보좌).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측정법은 이 결정으로 인해 여러분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날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여러분 가족 및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할 것인가에 대해 영의 인도를 받겠다고 굳게 약속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의롭게 생활하여 여러분을 인도하는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느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되돌아 보십시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힘이 더욱 더해져 선한 영향력을 힘차게 발휘하는 참된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발전 기록부를 꼼꼼히 기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심이나 순종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과 간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임을 가질 때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영성을 높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높이 세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의 약속이요,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창과 의의 검들고 힘차게 일어서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함성으로 이기자,”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참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의 등대는 쉽사리 알아볼 수 있고 결코 꺼지지 않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곳 역사적으로 유명한 태버내클과 세계 여러 곳의 스테이크 센터와 수백 개의 예배당에서 갖는 이 모임의 충만한 영은 여성 여러분의 힘과 헌신과 훌륭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3~14, 16)

청녀 여러분 중에는 편안한 초등학교의 품을 떠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청녀로서 활기찬 의욕의 시기로 들어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들께서도 이 모임에 참석하여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룬펠로우의 식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청춘,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찬란한가!

환상과 동경과 꿈이 함께 하니 시작의 책이며 끝이 없는 이야기여라. 모든 처녀가 주인공이며 모든 젊은이가 친구라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룬펠로우 시전집, 리버사이드 출판사, 1922년, 311쪽)

여러분은 모두 서로 자매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됩니다. 저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여성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 말씀을 즐겨 자주 인용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취해져 나왔습니다. 남성에게 밟히도록 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되도록 옆구리에서 취해졌으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운 부분에서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속 깊이 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현명한 다음 충고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방울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지만 한다면 우리들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세기 1:27)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큰 화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상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복리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함께 거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곳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후 지상 생활이 우리의 발전에 필요한 시기가 이르러 우리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작별의 말이 있었고, 신뢰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지상 생활을 향한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놀라운 새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은 기쁘게 우리들을 지상의 가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소망을 상냥하게 돌보고 자애롭게 받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지상에 새롭게 떨어진 아름다운 꽃 봉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럴드 매시, “구애와 획득” 도드, 미드 앤드 컴패니, 1956년, 121쪽)

태어난 후 몇 년간은 귀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무죄하였고 다만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곧 “무서운 십대”라는 딱지가 붙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놀라운 십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야 말로 성장의 시기이며 발전의 시기이며 지식을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이 시기를 편한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때는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안전한 정박지로부터 벗어나 있고 평화의 항구로부터 멀어져 표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제한적인 허용과 부도덕과 외설물과 친구들의 영향은 많은 청소년들을 수많은 죄에 빠지게 하며 그들의 기회와 축복을 잃게 하며 미래의 꿈을 깨뜨려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스럽게 물을 것입니다.

“안전한 길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멸망으로부터 피신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주님의 등대**를 바라보십시오. 짙은 안개도 어두운 밤도 강한 바람도 길 잃은 선원도 없을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이 구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그 신호는 이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이고, 집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의 등대는 쉽사리 알아볼 수 있고 결코 꺼지지 않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 곧, 안전한 표준을 주기 위한 경고의 말씀은 곧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발간되어 배포될 것입니다.

교회의 대관장단이 준비한 그 소책자의 머리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남 청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신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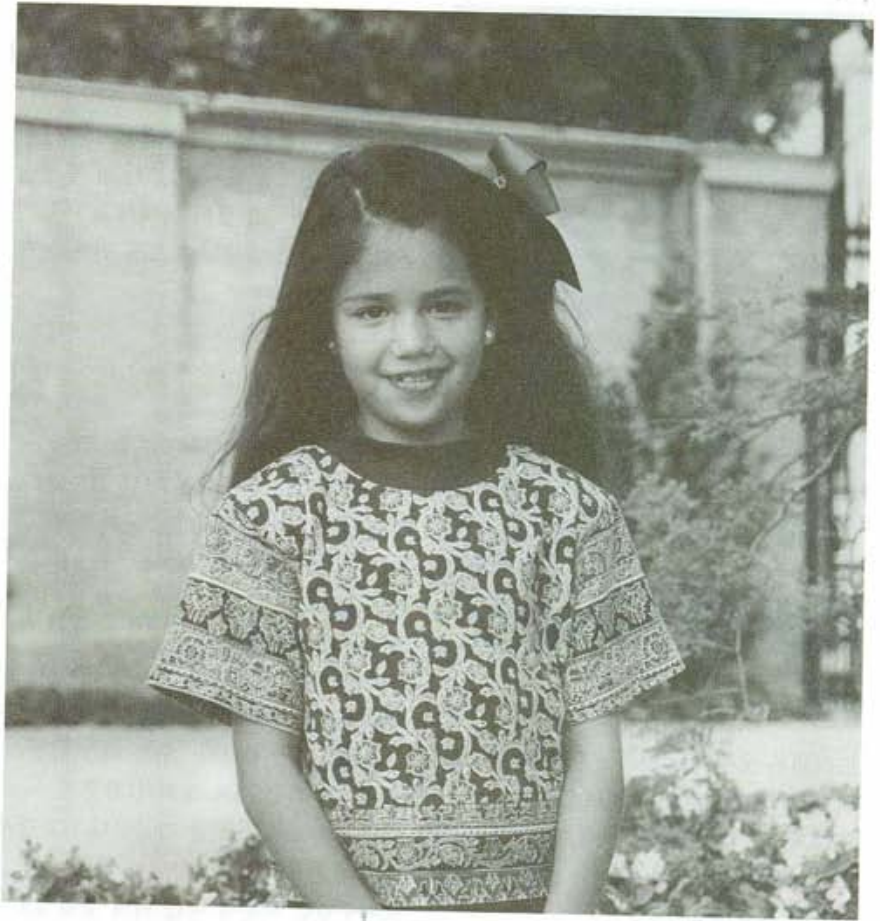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옹고 선한 모든 것을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혹과 책임과 기회가 가장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예비되었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의롭게 생활해야 할 때이며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뜻하고 계시는 것과 영광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선택하여 생활하시길 권고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순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쾌락을 좇아 여러 해 동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고 본 소책자에



강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준을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무거운 짐과 이에 따르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킴으로써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합당하고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990, 3~5면)

방금 읽은 서문에 언급된 특별한 표준을 자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표준을 간략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데이트(이성 교제)

성전 결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합당한 데이트는 그런 준비의 일부입니다. 데이트가 통용되는

문화권에서라도 16세가 될 때까지는 데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모두 다 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그룹 데이트나 더블 데이트를 하십시오. 데이트 상대자를 부모님께 소개해 드려 알게 해야 합니다.

데이트는 결혼을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높은 표준을 지키는 사람들과만 데이트 하십시오.

2. 복장 및 외모

주님의 종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우리들 자신에게 존중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옷을 입으십시오. 꼭 끼는 옷이나 몸을



대외 방문자

드러내는 옷이나 극단적인 복장과 용모는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어서는 안 될 옷을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의심나는 일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엄격언을 생각하십시오.

3. 우정

인간은 누구나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하듯이,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품위있게 대하십시오. 많은 비회원들이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통해 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1959년도에 제가 토론토에서 캐나다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시작된 저희 가족의 소중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우리 딸 앤이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앤이 “교회 잡지” 몇 부를 학교에 가져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때는 물론경도 가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인 페퍼 선생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지난 해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토를 떠나 귀환한 지 몇 년 후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편지함에 페퍼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앤에게,

몇 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렴, 그때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너의 교사였지. 그때 내가 학교로 갖고온 “교회 잡지”를 읽고 나는 감명을 받았단다. 나는 또한 물론경이라고 부르는 책에 네가 보이는 열성에 감탄했단다.

나는 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솔트레이크시티에 가보기로 결심했단다. 오늘 나는 템플 스퀘어에 있는 너희 교회의 방문자 센터에 가보는 특권을 가졌단다. 그 당시 다섯 살된 한 소녀가 자신이 믿는 것을 보여주었던 덕분에 나는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단다.”

페퍼 선생님은 그 후 얼마되지 않아 돌아 가셨습니다. 앤이 오래 전에 알았던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조단 리버 성전에 갔을 때 그 애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4. 정직

종종 인용되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격언은 언제나 참된 것입니다. 말일성도 청년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믿는대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께도 정직합니다. 그들에게는 정직이 생활 습관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은 자신에게 결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5. 언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는 여러분의 인품을 말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향상시켜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불경스럽고 천박하며 거친 언어와 고상하지 못한 농담은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 : 7)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때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십시오.

6. 신문 방송 매체 :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책 및 잡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외설물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위험하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계속 외설물을 본다면 여러분의 영은 둔화되고 여러분의 양심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전개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영화관을 나오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어떤 영화나 책이나 다른 형태의 오락물이 합당한지 아닌지 의문이 생길 때는 보거나 읽지 말고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얼마전에 코미디언인 **스티브 알렌**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한 가지를 다룬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알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점점 더 충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성인들 위주로 한 내용물이 주류를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이 코미디언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여론 난에 현대의 텔레비전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혹평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이 우리 모두를 시궁창으로 몰아 넣고 있다.”라고 하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용하기를 금했던 표현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유선 방송국 뿐만 아니라 한 때 높은 표준을 지키던 방송국에서까지도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등장시키는 쇼는 미국의 가정을 몰락으로 이끌 뿐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7. 정신적 및 육체적인 건강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지십시오. 변덕스러운 식이요법(다이어트)를 피하십시오. 가늘픈 몸매가 최상의 것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습관성 마약, 약물 남용, 알코올, 커피, 차, 담배는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영적인 복지까지 파괴시킬 것입니다. 맥주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알코올도 여러분의 영과 육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폐를 약화시키며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담배의 강한 습관성의 한 예가 인기있는 칼럼니스트이자 대인 관계 상담자인 앤 랜더스에게 보낸 한 어머니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친애하는 앤 랜더스 여사님께,”

“1년전에 우리 두 살짜리 아들이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애가 담배 연기 알레르기임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 다 지금 바로 담배를 끊자고



본부 초동협회 회장단 : 베티 조 램슨 자매(제1보좌), 미셸린 피 그래스리 자매(회장), 무스, 비 라이프 자매(제2보좌).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으나 나는 그날 저녁에 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내가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숨어다니면서 지하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것은 무척 불안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아들을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훌륭한 가정에 입양시킨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남편이 그애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 애를 사랑합니다만 저는 더욱 현실적인 타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애하는 부인에게,”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내가 이 편지를 조작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보다 담배를 더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그 무서운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가 어린 아들을 일을 데리고 있고 당신을 내쫓는다 해도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음악과 무용

음악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해 줍니다. 음악은 교육시키고, 교화하고 영감을 불어 넣고 단합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빠르기와 박자와 강도와 가사에 의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음악으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무용은 즐거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정을 강화시켜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복장과 용모와 조명 그리고 무용 종류 및 음악이 있는 그런 무도회를 계획하고 참여하십시오.

9. 성적인 순결

성관계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므로 주님은 결혼전에는 자제하고 순결하도록 그리고 결혼후에도 정절을 지킬 것을



총관리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청년 합창단과 회중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음.

요구하셨습니다. 데이트할 때 여러분의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도 여러분을 똑같이 존중하도록 하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여러분이 깨끗한 생각을 갖도록 간청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행동을 다스리고 싶다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훌륭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닥쳐 올 때마다 바울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 : 13)

10. 일요일의 행동

주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안식일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주일은 단지 공휴일이 아니라 성스러운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11. 영적인 도움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여러분은 성신이 함께 하심을 누릴 권리를 받게 됩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와서...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성신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교성 45 : 57 참조)

여러분의 이상에 충실하십시오.

“이상은 별과 같아서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나 그것을 따름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찾는 인용문 중에서; 733쪽) 영적인 도움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2. 회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축복된 은사를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갈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 : 18) 여러분의 영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 오수록 용서의 기적을 통해 오는 감미로운 평안과 기쁨을 더 빨리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에 나오는 표준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대관장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훌륭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옹호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과 신뢰에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명예롭게 하십시오.

죄를 만나면, 그것을 피하십시오.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간증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영적인 힘은 종종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 옵니다. 청녀와 그들의 교사와 한 자매님이 실제로 겪은 다음 사례가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성탄 절기가 다가오자 한 월계반 교사가 외로운 제인 부인을 기쁘게 해 줄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소녀들이 맛있는 과자와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거기에 달 장식까지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문할 그 특별한 여인의 영혼을 밝게 해 줄 아름다운 꽃송이도 잊지않고 준비했습니다.

그 소녀들과 교사는 각자 선물꾸러미를 팔에 안고 제인 부인의 아파트로 이르는 긴 계단을 올라 갔습니다. 그 나이트 부인이 문간까지 걸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서 그녀는 이 어여쁜 소녀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날라온 장식물을 나무에 매달며 보여준 미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선물 꾸러미를 나무 가지 밑에 두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사랑과 관심으로 장식된 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사는 살며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세 소녀의 도움을 받아 간식을 준비하여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다정한 부인은 손님들을 주위에 불러 모으고 자신의 귀중한 추억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녀가 벌려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어린 소녀 시절에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게 된 경위와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 들였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조소와 비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자신이 새로 찾은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어떻게 안식일 하루를 꼬박 보내며 여행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녀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에 편히 교회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부인은 배를 타고 미대륙으로 건너온 이야기를 하면서 폭풍우에 휘말린 대서양과 자유의 여신상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음속에 일어났던 뜨거운 느낌에 대한 것도 들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들이 분명히 감동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울바르고 명예로운 행동을 하고 신앙에 충실하고 표준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문으로 조용히 걸어나가 거리로 나서는 계단을 걸어 내려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붙은 사랑과 새로이 영감받은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한 어머니를 뒤에 두고 떠나 왔습니다. 저는 그날이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음을 확신합니다. 그날 밤의 그 꽃송이는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에 잘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소녀들은 눈덮인 길을 걷는 자신의



대의 방문자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 월계반 소녀가 물었습니다. "왜 전에 느끼던 것보다 더 훌륭한 느낌이 들까요?" 다른 소녀들도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찬송가 가사인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 그대로 어울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노래 불렀습니다.

"오 고요한 밤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사악한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맞이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찬송가, 136장)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들어 오신 것입니다. 초라한 그 가정과 부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모든 소녀들의 영혼속에 들어 오셔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등대가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도 깃들기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원,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도표는 1991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과 관련된 1990년 10월 반연차 대회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1991년도 열기새택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연사
2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모임)
3	매리온 디 행스
4	델린 에이치 옥스
5	로버트 캔트 델린바호
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7	글렌 엘 페이스
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2	해롤드 지 힐렘
13	제임스 엠 페러모어
14	하트만 렉터 이새
15	델린 에이치 옥스
16	제임스 이 파우스트; 리그랜드 알 커티스; 더럴 에이 울지
17	엘 러셀 벨라드; 러셀 엠 넬슨; 보이드 케이 패커
19	데이비드 비 헤이트
20	하워드 더블류 헌터
21	제이 벨라드 워시번
22	마빈 제이 에쉬튼
23	조셉 비 워스런
27	리차드 지 스코트
31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1991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1	델린 에이치 옥스; 제임스 엠 페러모어; 글렌 엘 페이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리그랜드 알 커티스; 제임스 이 파우스트
2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델린 에이치 옥스; 헬베시오 마틴스	
4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러셀 엠 넬슨
5	하트만 렉터 이새	제임스 이 파우스트; 리그랜드 알 커티스
6	하트만 렉터 이새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7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8	리차드 지 스코트
9	
12	헬리오 알 카마고
16	마빈 제이 에쉬튼; 매리온 디 행스

공과	자선 봉사 및 사회관계	가정 관리
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2	글렌 엘 페이스	
3	글렌 엘 페이스	글렌 엘 페이스
4		
5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모임); 델린 에이치 옥스	
6	해롤드 지 힐렘	
7	보이드 케이 패커; 에두와도 아알라	
8	닐 에이 맥스웰	
9	에두와도 아알라	
9	헬리오 알 카마고	

1991년 방문 교육 공과

공과	연사
1	1월 제임스 엠 페러모어
2	2월 델린 에이치 옥스
5	6월 글렌 엘 페이스
6	7월 글렌 엘 페이스
7	8월 제임스 이 파우스트
8	9월 리그랜드 알 커티스

방문 교육 메시지

성도의 빛 연차 대회 특집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실리지 않는다.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다음 방문 교사들은 대관장단의 일원이 행한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하여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한다.

1991년 복음 교리반 - 신약전서

공과	연사
1	엘 톰 페리
6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캔트 델린바호
7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엘 러셀 벨라드
9	델린 에이치 옥스
10	보이드 케이 패커
11	조셉 비 워스런
14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매리온 디 행스
15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헬베시오 마틴스
16	닐 에이 맥스웰; 해롤드 지 힐렘
17	제임스 이 파우스트; 린 에이 미컬슨
18	제임스 엠 페러모어; 헬리오 알 카마고
20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러셀 엠 넬슨
21	에두와도 아알라
22	글렌 엘 페이스
23	엘 톰 페리
24	헬베시오 마틴스

26	하트만 렉터 이새
27	델린 에이치 옥스
36	마빈 제이 에쉬튼
37	해롤드 지 힐렘
3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에두와도 아알라
39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모임)
40	보이드 케이 패커
41	글렌 엘 페이스
42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43	닐 에이 맥스웰; 하트만 렉터 이새

1991년 초등협회

정의반 제1과정

공과	연사
4	러셀 엠 넬슨
6	리그랜드 알 커티스
11	델린 에이치 옥스
12	헬베시오 마틴스
15	조셉 비 워스런
20	하워드 더블류 헌터
21	엘 톰 페리
34	린 에이 미컬슨
36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4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정의반 제2과정

공과	연사
7	제임스 엠 페러모어
8	하트만 렉터 이새
16	로버트 캔트 델린바호
19	린 에이 미컬슨
26	매리온 디 행스
27	리그랜드 알 커티스
29	닐 에이 맥스웰
43	해롤드 지 힐렘

용기반 제1과정

공과	연사
3	마빈 제이 에쉬튼
4	보이드 케이 패커
7	제임스 이 파우스트
12	왈도 피 쿨; 제이 벨라드 워시번
16	매리온 디 행스
17	리그랜드 알 커티스
18	보이드 케이 패커
25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29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33	해롤드 지 힐렘
39	왈도 피 쿨; 제이 벨라드 워시번
40	하트만 렉터 이새
41	에두와도 아알라

용기반 제2과정

공과	연사
4	델린 에이치 옥스; 제임스 엠 페러모어
44	조셉 비 워스런

불꽃반 제1과정

공과	연사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스 엠 페러모어
6	리그랜드 알 커티스

7	더럴 에이 울지
17	해롤드 지 힐렘
21	리차드 지 스코트
22	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23	글렌 엘 페이스
25	매리온 디 행스
30	에두와도 아알라
32	헬베시오 마틴스
37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피코리반 제1과정

공과	연사
4	마빈 제이 에쉬튼
5	리그랜드 알 커티스
6	더럴 에이 울지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22	글렌 엘 페이스
23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26	린 에이 미컬슨
27	해롤드 지 힐렘
30	에두와도 아알라
32	헬베시오 마틴스

공과	연사
3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4	리차드 지 스코트
7	리차드 지 스코트
8	리그랜드 알 커티스
10	헬베시오 마틴스
13	엘 톨 페리
15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16	린 에이 미컬슨
18	에두와도 아알라
19	하트만 렉터 이세
20	해롤드 지 힐렘
24	엘 톨 페리
25	보이드 케이 패커
29	더럴 에이 울지
3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33	글렌 엘 페이스
42	러셀 엠 넬슨
44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주일학교 제12반

공과	연사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즈 엠 페러모어
7	조셉 비 위스린; 매리온 디 행스
8	보이드 케이 패커
14	마빈 제이 에쉬튼; 러셀 엠 넬슨
16	보이드 케이 패커
21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22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23	엠 러셀 벨라드
2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제이 벨라드 워시번
27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즈 엠 페러모어
33	하트만 렉터 이세
3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3	글렌 엘 페이스

주일학교 제13반

공과	연사
2	조셉 비 위스린
3	러셀 엠 넬슨
5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루스 비 라이트

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1	제임즈 엠 페러모어;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2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22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2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26	글렌 엘 페이스
27	하트만 렉터 이세
28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즈 엠 페러모어
2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1	글렌 엘 페이스
33	조셉 비 위스린
36	해롤드 지 힐렘
38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43	리차드 지 스코트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연사
1	하워드 더블류 헌터;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7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16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19	엠 러셀 벨라드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하트만 렉터 이세
27	마빈 제이 에쉬튼
28	리그랜드 알 커티스
30	리그랜드 알 커티스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제이 벨라드 워시번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연사
6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즈 엠 페러모어
8	마빈 제이 에쉬튼;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10	글렌 엘 페이스
12	하트만 렉터 이세
15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16	엘 톨 페리
17	마빈 제이 에쉬튼; 조셉 비 위스린
18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	델린 에이치 옥스; 린 에이 미컬슨
24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해롤드 지 힐렘
28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0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2	보이드 케이 패커
33	린 에이 미컬슨
35	제임즈 이 파우스트; 리그랜드 알 커티스
38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39	에두와도 아알라
43	하트만 렉터 이세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연사
----	----

2	마빈 제이 에쉬튼;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6	하트만 렉터 이세
1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왈도 피 콜; 제이 벨라드 워시번
13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15	델린 에이치 옥스; 로버트 켄트
16	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임즈 엠 페러모어
19	델린 에이치 옥스
23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25	에두와도 아알라
26	엠 러셀 벨라드
30	엘 톨 페리
32	매리온 디 행스
35	닐 에이 맥스웰
3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39	리그랜드 알 커티스
43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44	리차드 지 스코트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연사
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왈도 피 콜
3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매리온 디 행스
10	델린 에이치 옥스;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헬베시오 마틴스
1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24	엠 러셀 벨라드
27	데이비드 비 헤이트
29	제임즈 이 파우스트
32	리그랜드 알 커티스
33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매리온 디 행스
34	보이드 케이 패커
35	엠 러셀 벨라드
40	닐 에이 맥스웰
42	헬리오 알 카마고

풀범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	러셀 엠 넬슨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5	엘 톨 페리; 닐 에이 맥스웰
1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3	왈도 피 콜
14	조셉 비 위스린
16	리차드 지 스코트
1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해롤드 지 힐렘
20	마빈 제이 에쉬튼; 하트만 렉터 이세
24	로버트 켄트 델린바흐; 헬베시오 마틴스
26	글렌 엘 페이스
30	러셀 엠 넬슨
31	보이드 케이 패커
34	마빈 제이 에쉬튼
35	에두와도 아알라
40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헬리오 알 카마고
41	글렌 엘 페이스; 해롤드 지 힐렘



장미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	델린 에이치 욱스; 제임즈 엠 패러모어
3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모임)
4	마빈 제이 에쉬튼
5	리그랜드 알 커티스
6	제임즈 이 파우스트
15	리차드 지 스코트
17	로버트 켄트 델린바호
18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모임); 앨베시오 마틴스
19	로버트 켄트 델린바호
21	루스 비 라이트
23	조셉 비 워스런
24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26	글렌 엘 페이스
31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35	에두와도 아알라
36	에두와도 아알라
38	마빈 제이 에쉬튼; 닐 에이 맥스웰
39	헬리오 알 카마고

월계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링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	로버트 켄트 델린바호
3	델린 에이치 욱스
4	앨 톰 페리

6	러셀 엠 넬슨
8	글렌 엘 페이스; 고든 비 링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닐 에이 맥스웰
10	리그랜드 알 커티스
11	리그랜드 알 커티스
12	해롤드 지 윌렘
13	데이비드 비 웨이트
14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후 모임)
16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모임); 리그랜드 알 커티스
22	러셀 엠 넬슨; 마빈 제이 에쉬튼
25	델린 에이치 욱스; 앨베시오 마틴스; 로버트 켄트 델린바호
27	닐 에이 맥스웰; 글렌 엘 페이스; 앨 톰 페리
28	조셉 비 워스런
29	리그랜드 알 커티스; 하트만 렉터 이셔
30	글렌 엘 페이스
32	조셉 비 워스런
33	보이드 케이 패커
34	리그랜드 알 커티스
35	조셉 비 워스런; 마빈 제이 에쉬튼
36	보이드 케이 패커; 하트만 렉터 이셔
37	리그랜드 알 커티스; 보이드 케이 패커
38	에두와도 아알라
40	에두와도 아알라
41	러셀 엠 넬슨
42	글렌 엘 페이스
43	마빈 제이 에쉬튼
44	하워드 더블류 헌터
45	마빈 제이 에쉬튼

복지 사업

주제	연사
인도주의에	글렌 엘 페이스
바탕을 둔 봉사	
도덕적인 문제	엠 러셀 벨라드; 보이드 케이 패커
이기심	닐 에이 맥스웰
자녀에게	제임즈 이 파우스트
일을 가르침	

복지에 관한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대회 말씀은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복지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 부름받은 세 분의 총관리 역원

대 관장단은 새로 부름받은 세 분의 총관리 역원을 발표했다.

대관장단의 발표에 의하면 세 분중 한 분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두 분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며, 1991년 1월 1일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얼시 텡기 장로, 56세. 유타주 바운티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음.

물론 지 크레이븐 장로, 66세. 유타주 센터빌.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됨.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 64세. 유타주 할러데이. 역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게 됨.



얼시 텡기 장로는 세계 최대의 탄광 회사 중 하나인 케네코트 회사의 법률 부고문이며, 약 11년 전 고향인 유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25년 이상 주로 뉴욕시에서 회사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텡기 장로는 1934년 6월 11일 바운티플에서 출생했으며, 유타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 대학교에서 회사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 육군 법무감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면서, 대위까지 이르렀다.

텡기 장로는 네바다주 로간데일 출신인 조안 웰스 자매와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으며, 여덟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

텡기 장로는 1988년부터 유타주 옥든 선교부의 선교부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그 이전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가 있는 유타주 북부 선교부의 선교부장단 보좌로 4년간 봉사했다. 장로는 또한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선교부(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7년 동안 지역 대표로, 뉴욕주 앤헤튼 와드의 감독 및 동부 선교부의 선교부장 보좌로 봉사하였다.



물론 지 크레이븐 장로는 지난 13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서기로 봉사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정 보조로 근무했고, 1974년부터 1977년까지 3년 동안 교회 아론 신권 책임자로 봉사했다.

크레이븐 장로는 1924년 11월 11일 유타주 머레이에서 출생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도나 린트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으며, 열 네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해 온 크레이븐 장로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뉴질랜드 북부 선교부(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지역 대표, 본부 주일학교 임원, 프로보에서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봉사했고, 또한 교회 보조 조직 지도자 및 교사로 봉사했다.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는 올해 39년 동안 근무하던 미국 웨스트 커뮤니케이션즈(전화 시스템) 회사를 정년 퇴직했다. 퇴직 당시 로렌스 장로는 그 회사의 유타주 부사장 및 최고 경영자로서 일해 왔다.

로렌스 장로는 1926년 10월 2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했으며, 1950년 유타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잭클린 영 자매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며 손자 손녀가 열 명이다.

로렌스 장로는 현재 솔트레이크 마운트 올림퍼스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지역 대표로 봉사했고, 그 밖에 마운트 올림퍼스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및 할러데이 제 16와드 감독을 역임했다.*

“모든 백성을 위해”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외쳤던 엘마가 느낀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마서 29:1) 그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빨리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련만,”(2절) 엘마는 복음이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며, 의로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은 평화롭고도 훌륭한 세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칠 때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엘마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나는 사람이라, 소망으로 죄를 범하나니,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해야

하리라.”(3절) “어찌 내가 천사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바라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의 나라에...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셨으니,...”(7, 8절)

엘마는 그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온 세상을 구할 수 없으며 주님만이 그분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장차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외칠” 권세를 지니게 될 미래의 지도자요 교사를 양성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서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각 스테이크와 와드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매주 만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귀환 선교사 출신인 부부로 구성된 훌륭한 가족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 회원들의 훌륭한 영향력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에 관해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많은 나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저희 주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볼 때 영육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나니, 그때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까지도 기억하느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게 뻗쳐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노라.”(10절) 우리는 모두 각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분담되어 있으며 그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엘마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교회를 갖게 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사 이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크게 뜻을 이루게 하사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느니라.”(13절)*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 68:4)